

경인일보



kyeongin com

2015년 8월 7일 금요일 1945년 10월 7일 창간 제21552호 구독·광고/(031)231-5114 (032)861-3200

경제재도약 첫 과제 '노동개혁'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청년 일자리 늘려야" 강조

박근혜(사진) 대통령은 6일 후반 기 국정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 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천 명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와 고용 유연화를 공공기관부터 도입 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을 내놓기도 했다. | 관련기사 5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해 드리는 말씀' 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우 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 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 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의 영업 형태 변화를 약속하며, "금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 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 없이는 청 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연 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



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은 경제 재도

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들며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 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 고 했다. 또 '교육 개혁'을 위해 자 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 정개혁, 일·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 진학,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금융 개혁'을 위해 보 신주의 관행에 머물고 있는 금융회사 융개혁이 이뤄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 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 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 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靑, 13일 특사 임시국무회의 검토

최태원등 대기업 총수 거론 정치인은 사면 대상서 제외

특별사면이 13일 이뤄질 전망이 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특별사면 심의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 국무 회의를 13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자들과 만나 13일 사면안 심의・의 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여부와 관 련,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 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 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사면

हेक्नेस्योधियात! 한신협 공동기획-전남 ▶17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재 사면 대상자에 대 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 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 광복70주년을앞두고단행되는 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 장 등 현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 인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면 대상자 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 최 회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 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 는 오는 11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내 꽃사슴 농장.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이국적인 도심 풍경을 배경으로 뛰어놀고 있는 꽃사슴들을 보며 신기해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금요 ♥ 이트 | 힐링공간으로 진화하는 도심공원 ▶ 2·3

직장인 김모씨는 일과를 마친 후 종종 아내와 공원을 찾는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공원에서 풍기는 풀 내음은 하룻동안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절로 풀리게 한다. 김씨 는 이번 주말에는 공원으로 아이들과 소풍을 갈 생각이다.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 도 좋지만,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요즘 공원은 뜨거운 여름을 피할 수 있도록 분수대가 잘 구비돼 있다. 아이들은 분수대 속에서 즐거워한다. 아이들과 함께 돗자리와 김밥 등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 잔디밭에 누워있으면 여느 피서지 못지 않다.

향기 가득 식물섬・왁자지껄 벼룩시장・텐트속 꿀맛 낮잠

따분한 쉼터 이미지 벗고 시민 위한 '복합문화공간' 변신

최근 동네 공원이 문화・운동・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해 가 고 있다. 과거 공원은 어르신들이 주로 찾고 산책 정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요즘 공원은 그 모습이 확 달라졌 다.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아 축 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각각 생활 스포츠 를 즐긴다. 또 일부 공원에는 캠핑 시설도 마련돼 있어 캠핑족들을 불러 모은다. 각종 문화 • 예술 공연도 공원에서 자주 열려 굳이 콘서트 장이나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문화 공연을 맘껏 즐길 수 있다.

실제로수원광교호수공원에는호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어반레비, 분수대인 신비한 물너미, 조용한 물 숲, 향긋한 꽃 섬과 같은 인공 식물섬을 비롯해 국제 규 격의 인공암벽장, 공연 전문가 혹은 아마

추어 동호회가 무료 공연을 열 수 있도록 한 마당극장, 캠핑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양 평촌중앙공원은 매주 토요일 마다 시민들이 자신들이 쓰던 물건을 파 는 벼룩시장이 열리고, 인천 송도 센트럴 공원은 이국적인 도심 풍경 속에서 다양 한 문화 및 레저 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 다. 또 부천 상동호수공원에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X-게임장이

과거의 '따분한' 이미지에서 탈피한 공원 은 이제 지역 시민들의 여가와 복지 증대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에 어떤 공원이 있는 지 주말에 한번 나가보

/신창윤·이원근기자 shincy21@kyeongin.com





뻔하다 생각했던 동네산책로서 마주한 'Fun한 일상'

힐링공간으로 진화하는 도심공원

경기·인천지역 공원들 '매력 업그레이드'



390㎡)을 따라 '수상택시' '카누' '카약' '패밀리보 트' 등을 타고 송도 마천루 도심을 만끽할 수 있다. 이 곳은 최근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송도 주민 인 배우 송일국씨와 세쌍둥이의 나들이 모습이 종종 보이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 곳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수 상 레저스포츠를 즐기러 온 나들이객 들로 늘 북적인다. 작은 유람선과 같은 수상택시는 가족들에게 인기 다. 배터리로 가는 보트인 패밀리 보트는 어린이도 운전할 수 있 다. 5명을 기준으로 30분에 3만 5천원이다. 또 직접 노를 젓는 무동력 수상 레저스포츠인 패 들링(카누·카약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3명이 타는 카누・ 카약은 친구나 연인들로부터 반응이 좋다. 3명 기준으로 50 분에 2만5천원이다. 보드 위에 선 채로 패들을 저어 나가는 신 종 레포츠 SUP(Stand Up Padd le Board)도 눈길을 끈다. 60분에 1만원을 받는다.

수상 레저 외에도 공원에는 숨은 볼 거리가 많다. 최근 문을 연한옥호텔 '경 원재 앰배서더 인천'의 앞뜰은 아늑한 분위 기를 즐기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변 문화예술 공간인 트라이볼 등을 들

러 전시와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시원한 물썰매장 인기만점

■ 인천대공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대공원은 습지원・숲속 도서관 · 어린이동물원 등의 테마 공원이 있다. 야외 음악당 · 사계절 썰매장 등의 시설도 설치돼 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사계절 썰매장이 다. 여름에는 물썰매를, 겨울에는 눈썰매를 탈 수 있다.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 여름 시즌에는 6시에 문을 닫는다. 다만, 금요일과 토요 일은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더 연장한다. 성인은 7천 원, 청소년은 5천원, 어린이는 4천원이다. 물썰매장 이용시 수영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인천대 공원 한 편에는 365일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너나들 이 캠핑장'도 마련돼 있다.



■ 인천 자유공원

인천 중구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국 최초의 서구 식 공원이다. 자유공원의 조성 시기는 1888년으로 탑골공원보다 9년 앞선다. 자유공원 정상에는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고 맥아더 장군 동상도 서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학도의용대가 일어난 것을 기리는 호국기념탑도 세워져 있다. 특히 정상에서 는 인천 앞바다와 항구 도시 인천을 느낄 수 있는 내 항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인근에는 차이나타운 과 100여 년이 된 근대건축물이 남아있는 개항장 거 리도 있다.

은은한 야경 트레이드 마크

■ 수원 광교호수공원

광교호수공원은 기존의 원천유원지를 광교택 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산과 저수지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수변공간인 어 반레비와 함께 6개의 테마(어반레비, 마당

극장, 신비한 물너미, 인공암벽장, 조용 한 물 숲, 향긋한 꽃 섬)를 가진 공원으 로, 국내 최대 도심 속 호수공원이다. 국토교통부 선정 2012년 조경대상 ·2014년 경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비한 물너미'는 더운 여름철 아이 들의 물놀이장으로 많이 찾는 곳으로 원형광장에 바닥분수가 솟아 오른다. 또 거울못·물보석분수·안개분수 등 9 개의 분수시설도 어우러져 있다. 호수 주변1.6km의 길이로 설치된 어반레비는 호수를 가까이 조망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야간에 볼 수 있는 은은 한 경관조명은 이 곳의 트레이드 마크다.

주변 인공암벽장은 국제규격으로 만들어져 전문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도 사용된다.

X-게임 애호가들 연일 북적

■ 부천 상동호수공원

이 곳은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을 즐 기는 X-게임장이 설치돼 있다. 또 상동호수공원 옆 고가 밑에 위치한 해그늘체육공원 X-게임장도 익스트림 애호가들로 북적인다.

지난 2008년 공원 내 농업공원이 조성돼 물레방 아를 비롯 생태연못, 논과 채소밭, 우물, 초가집 등 이 독특하다.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손혁준

(13) 군은 "이곳은 X-게임을 즐기려 는 사람들이 항상 몰린다"면서 "요즘은 남학생뿐 아니라 여 학생들도 스케이트보드를 즐겨한다"고말했다. 또임 현성(9) 군도 "이제 보드를 배운지 6개월 됐다. 3~4시 간 정도 타면서 스트레스 를 풀고 있다"고 했다.



■ 성남 율동공원

클래식·물기둥의 커플 댄스

45m 높이 번지점프대 '짜릿'

성남 분당동 일원에 위치한 율동공원은 자연의

멋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번지점프와 분수대, 수변

산책로와 책테마파크 등 현대적 시민 휴식 공간으

로 자리 잡았다. 45m 높이의 번지점프대는 타 시·

도 주민들도 찾을 만큼 인기가 높다. 또 번지점프대

옆 호수 가운데 설치된 103m까지 올라오는 분수대

도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인천에서 번지점프 체험

을 하기 위해 공원을 찾은 대학생 김윤주(21·여) 씨

는 "방학을 맞아 언니와 함께 율동공원에 놀러 왔

다. 소리를 지르니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곳은 국내 최초로 책을 테마로 공원

을 조성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기존의 책을 읽는 도

서관의 개념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독서의욕을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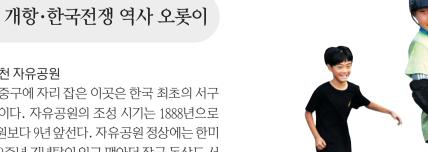
■ 용인 동백호수공원

시키는 창조적인 공간이다.

용인 동백호수공원은 생태 개념이 도입된 호수 공원이다. 인공호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호수 주변 부에 정화력이 높은 갈대・부들 등 정수식물과 소나 무 등을 심어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 이 곳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 고 수준의 음악 분수다. 클래 식 음악과 물기둥의 조화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기에 충분하다.

/임승재·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사진/임순석·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데이트·캠핑·생활체육·레저까지··· 인생의 '休'를 찾다



센트럴 파크에서 시민들이 음악 분수 쇼를 보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다양한 기능 갖춘 공원들

공원의 이미지가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공원

다. 공원은 이제 도심 속에서 꼭 필요한 힐링 장소가 됐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을 찾 아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시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볼거리와 건강 프로그램도 챙겨본다 면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가족·연인들은 힐링의 공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원의 이미지는 '힐링'이 다. 시끄럽고 복잡한 도심 가운데 나무와 숲, 물 길 등이 조성돼 있는 공원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쉼터다. 가족 • 연인들은 함께 공원을 찾아 지친 마 음을 달랜다. 시끌벅적한 도심을 떠나 조용함이 있는 공원에 오면 여느 휴가 못지 않다는 게 공원 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얘기다. 안양에 사는 직장 인 민진아(28·여)씨는 "일은 서울에서 하고 있지 만 주말에는 안양의 공원을 자주 찾는 편이다"라 면서 "남자 친구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데이트를 하고 혼자 조용히 나와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 하기도 한다. 또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찾을 때에 는 그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풀어내는 공간이 된다"고 공원 활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게이트볼・농구 등 만능시설

■스포츠 시설은 기본!

공원은 단순히 산책을 할 수 있는 장소 만은 아 니다. 각각의 공원마다 농구장, 축구장, 배드민 턴장 등 체육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 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장도 공원 내 설치돼 있어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체육시설로도 활용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공원은 이제 만남의 장소가 됐다.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진 대신 이들은 공원에 삼삼오오 모여 농 구, 자전거 타기, 익스트림 스포츠 등 다양한 스 포츠를 즐긴다. 물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이 있 지만, 야외에서 운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수 용하기에는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다. 10대들은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나와 운동을 하면서 스트 레스를 해소한다. 부천 상동호수공원에서 스케 이트 보드를 즐기고 있다는 김도현(14)군은 "스케 이트를 배운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됐다"면서 "친구 들과 함께 타다 보니 더 재미있고 스트레스도 풀 려 좋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공원들은

산책로를 따라 자전 거 도로도 함께 만들어 져 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상쾌함도 느낄 수 있다. 평소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는 이원석 (27)씨는 "공원도 이제는 숲과 나무가 많아 자전 거 타기가 더 재미있어졌다"면서 "자전거 코스를 다니는 것도 좋지만 공원을 돌아보는 자전거 타기 도 나름 매력 있다"고 소개했다.

광장 체조·댄스 어깨춤 들썩

■이제는 생활체육도 배운다!

공원에선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보통 아침마다 진행되는 광장 체육 프로그램이 바로 그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약 20곳의 공원에서 생활 체육광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 램은 시·군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공원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광장체조, 재즈 댄스 등을 지도한다. 물론 모든 수업료는 무 료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환영이다.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전 문적인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은 생활체육 프로그램만이 갖는 매력이다.

'가족 캐러밴' 이국적 풍경

■캠핑도 즐기세요!

캠핑도 요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공원 트렌 드다. 경기 지역에는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인천대 공원, 부천 여월농업공원 등 다양한 캠핑 시설이 있다. 부천 여월농업공원 캠핑장은 2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과 주차장, 세 척장, 화장실, 샤워장 등의 편의 시 설이 갖춰져 있다. 이 용 요금은 1만5천원이다.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부천시 통합예약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깔끔한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은 가족캠핑장을 설치했다.오로지 가족 단위의 캠 핑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교 호수 공원 가족 캠핑장은 4인용 가족 오토 캠핑장 26면, 4인용 가족 캐러밴 7면이 설치돼 있다. 화장실과 샤 워실, 식기세척장, 전기콘센트 등 부속시설도 마련 돼 있어 가족단위의 캠핑족들이 즐기기에 최적의 공 간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사용료의 30% 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3자녀 가정 등은 관련 증 빙서류 제출 시 50%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숲속도서관은 '마음의 양식'

■문화 생활에 톡톡튀는 아이디어까지!

공원은 스포츠와 레저 뿐만 아니라 문화 행사 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발전했다. 용인 동백 호수공원 광장은 주말에 무용, 재즈,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오는 15일에는 한국 다문화 예술인 협회 용인시지부의 색소폰 연주가

펼쳐지고, 16일에는 아름색소폰 동호회에서 색소 폰, 태평소 등의 연주가 진행된다. 22일에는 2015 용인시 청소년어울림마당 '무지개를 품다'가 개최 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롭게 본 후 제자리에 놓으면 된다. /임승재·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수원시 광교 호수 공원 캠핑장에서 어린이들이 배드민턴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을라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9in.com operfile



종합 제21552호 경인일보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인천·與·野, 내년 국비확보 뭉쳤다

간부공무원·안상수 의원, 기재부 찾아 이례적 협조요청 KTX·도시철도2호선 포함… 여야정협의회 국회지원도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 한 총력전에 나섰다.

인천시는 6일 인천발 KTX 노선 신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인천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기획재정부 에 요청했다.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 시 간부공무원은 이날 방문규 기획 재정부 2차관을 만나 이같이 건의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안상수(인천 서강화을) 의원도 자 리에 함께해 힘을 실었다. 시 간부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기 재부에 국비반영을 요청한 것은 이 례적인 경우라고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내년 시 주요사업 추진 을 위해 2조2천440억여원의 국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신청했다.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한 올해보다 도 1천580억원 정도가 많은 액수 다. 그러나 인천시가 신청한 국비는 정부부처 등의 심사를 거치면서 최 근까지 1조9천억여원 정도만 반영

된 상태다.

기재부는 이달 중 내년도 정부예 산안을 확정하고, 9월 초 국회에 제 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인천시는 조만간 새누리당 인천 시당과의 당정협의회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인천시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회' 를 열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국 회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시가 필요로 하는 국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최대 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명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내년 도 정부예산안에 인천시 사업 예산 이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 원전을 펼치고 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밖 사업예산 도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꼭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등 적 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 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정부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엔 안상수·박상은 (이상 새누리당), 최원식(새정치민 주연합)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3명 이 참여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대만 타이베이 시청 귀빈실에서 커원저 타이베이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대만 관광객·투자자 인천 유치 협력"

카트 타고 커피한잔 마시면 '배보다 배꼽'

골프 대중화의 덫 >4< 만만찮은 '부대비용'

경기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하 캐디피)과 카트대여료(이하 카트비)만 팀당 각각 12만원. 여기 에 점심식사와 커피라도 한잔 마시 면 1인당 부대 이용료만 10만원이 훌쩍 넘게 된다.

여기에 그린피(골프장 입장료) 15만~20만원(회원제 골프장 기 준)까지 합하면 1인당 골프장 이용 료는 25만~30만원이 된다.

6일 한국골프소비자모임에 따 르면 골프카트 1대당 연간 벌어들 이는 수입이 2천76만원으로 구입

카트비등 12만원선 '오름세' 캔맥주 시중 10배 음료폭리

그린피외 10만원이상더들어

비(5인승 기준)를 1천만원으로 계 산할 경우 6개월이면 본전을 뽑는 다는 계산이 나온다.

팀당 카트비(회원제 골프장 기 준)는 2004년 6만3천800원에서 2013년 8만5천원으로 36%나 인상 됐다. 같은 기간 주중 그린피가 12.3% 인상된 것과 비교할 경우 무려 세배나 된다. 광주 곤지암의 B골프장은 지난 4월 카트비를 12

만원으로 인상하면서 회원들과 마

찰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골프장 이용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카트비를 골프장측이 슬그머니 올 리면서 골퍼들의 지갑을 축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캐디피 부담도 만만치 않다. 18 홀 이상의 국내 골프장 349개소 가 운데 249개소인 71.3%가 캐디피 로 12만원을 받고 있다. 특히 팀당 캐디피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0% 인상한 것은 1인당 그린피를 5천원 올린 것이다.

골퍼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식음료 값 폭리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시중 마트에 비해 캔맥주는 최대 9.8배, 이온음료와 삶은계 란, 캔커피도 각각 최대 8.2배, 6 배, 3.6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 회원제 골프장은 삶은계란 1 개에 3천원씩 받고 있고, 캔맥주도 7천~8천원까지 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그린피 이외에 부가적으 로 받게 되는 비용이 골프업계에 서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 위'로 불리고 있다. 더욱이 부대 비용 상승은 회원제뿐만 아니라 대중골프장에서도 비슷한 가격으 로 받고 있어 골프 대중화를 저해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 장은 "국내 골프 인구가 줄어들고 골프장이 공급과잉 시대에 접어들 고 있음에도 캐디피가 오르는 것 은 골프장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유정복시장, 타이베이 방문 커원저 시장 만나 교류논의

市・현지여행사와 업무협약 연말까지 유커 2만명 '약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대만 타 이베이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

유커 유치를 위해 중화권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커원 저(柯文哲) 타이베이시장을 만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항구,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은 '투 자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 다"며 "경제와 관광 분야 등 다방 면에서의교류확대를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커원저 시장은 "앞으로 대만 관광객과 투자자의 인천 방문



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 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만 최대 기업인 포모사(Formosa)를찾아가인천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타이 베이 시민들에게 직접 인천 관광 홍 보물을 나눠 주는 등 인천 관광 홍 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인천시와 대만 유명 여행사 인 '콜라투어'(강복여행사)는 인천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마케 팅 공동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콜라투어는 올 연말까지 2만명 이상의 관광객 을 인천에 보낼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콜라투어는 대만 여행 사 가운데 관광객을 한국에 가장 많이 보내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인천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정복 시장은 7일 중국과 대만 에서의 4박 5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작년 인천시 통합부채 13조3천억원"

올 들어 3천878억원 줄어

인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시 본 청,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 관의 부채가 총 1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통합부채 등 재정 상 황 보고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2014년 말 기준 인천시 통합부채 는 ▲본청 4조7천657억원 ▲공사・

공단 8조4천28억원 ▲출자・출연기 관 2천17억원 등 총 13조3천702억 원이다.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선수금처럼 앞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모두 합한 것으로, 채무(금 용 빚)보다 범위가 넓다. 공사·공단 의 경우, 8조원 정도는 인천도시공 사의 부채다.

인천시 통합부채는 올 들어 감소

세를 보이고 있다. 올 7월 기준 인 천시 통합부채는 12조9천824억원 으로, 지난해 말보다 3천878억원 줄었다. 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신규 지 방채 발행 억제' '기존 지방채 조기 상환' '금리 관리' '세출 구조조정' '체납세 징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핵심 키워드 '개혁'·'경제'… 절박한 심정 국민에 호소

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담화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과 '경제'로 분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 대목에 집중해 개혁에 더욱 박 차를 가할 수 있도록 화려한 수사를 가급 적 자제하고 담담하게 글을 써내려 갔다.

한 참모는 "세간의 관심사인 경제인 특별사면이나 정치는 물론 대북정책, 대일외교에 대한 내용조차 담화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노동개혁에 대한 절절한호소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24분에 걸쳐 이뤄진 대국민담화 동안 고 운을 뗐다. '경제' 단어는 총 37차례, '개혁'은 33차례 대수술의첫 등장했다. 또 29차례에 걸쳐 '국민'이란 말 로, "우리의 딸을, 14차례에 걸쳐 '청년'이란 단어를 사용 해결단을 내릴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일자리"라는 중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그 수단으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국민담화의 방향이 키워드 횟수를 통해서도 그대로비쳐졌다.

박 대통령은 담화 첫머리에서 일단 현재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고질적이고 구 경제인 특사·정치등 관심사 배제

경제 재도약위해 '대수술' 불가피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올려

노사정위 조속재개 명분 만들어

공공개혁, 타분야 변화 선도 강조

조적인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고 진단,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고 으은 떼다

대수술의 첫번째 대상은 역시 노동분야 로, "우리의 딸과 아들, 국가의 미래를 위 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는 공식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 크제 도입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하는 한편, 공공예산 개혁을 통해 매 년 1조원 이상 재정을 절약하겠다고 공언 하는 등 기득권층의 희생과 고통분담을 내세워다

특히 노동계의 이탈로 한동안 멈춰선 노 사정위 재개를 촉구하면서 한국노총과 민



후반기 국정운영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주노총이 테이블로 돌아올 명분을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실업급여를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지급기간도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늘릴것"이라고말했다.이는 그간 노동계의 요구사항중하나였다.

두 번째 과제인 공공개혁에 대해 박 대통 령은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 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년 반동안의 1단계 개혁성과를 설명한 뒤 "공공기관의 중복과잉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공개혁은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노동 개혁 성공 여부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임금체계를 성과에 따라 개편하고 올해 내에 모든 공공 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는 등의 약 속은 모두 공공부문에 대한 시스템 개혁을 노동개혁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가 시적인 성과를 낼 테니 민간 부문이 따라 와 달라는 요청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연설문의 3분의 1가량을 노동개혁에 치중했다. 새로운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국민에게 힘든 길이 될수도 있다'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 '우리

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결단을' 등의 표현 을 수 없이 반복하며 국민들의 감성을 자

극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 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 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경제주 체와 국민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린 다"고 말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여 "4대 개혁··· 올바른 국정방향 제시" 야 "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4無 담화"

與野 반응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에 대해 여당은 '올바른 국정 방향 제시', 야당은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4무(無) 담화'라는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 리핑을 통해 "국가 체질개선과 경제재도 약을 위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 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본다"며 "전 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 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능력과 성과에

6일 열기로 합의했던 국정원과 전문가 간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

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

단체와 개최한 '정보 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2시 간담회가 무 산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자료요구

라는 근본요구가 국정원에 의해 두 번이

나 거부된 데 원인이 있다"며 "(자료요구

는) 정치 간담회, 은폐 들러리 간담회를 막

기술간담회가 무산됐다.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 동시장이라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 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 튼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치권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야권도 경제 활성화와 경제재도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메르스 사태 관련 대국민사과' '국민과의 소통 의지' '경제실패에 따른 반성'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방안'등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4무 담화'라고 비판했다. 또 "노 동자들에만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대화

이든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 · 여당을 겨냥해 "사찰의 근본

문제에서 잠시 눈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

로 기술간담회 문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이런 간담회는 하더라도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고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

합은 자료 요구 등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장외

투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희는

를 종용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앞세운 노동개혁은 노동자만 희생하라는 노동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비정 규직, 사내 하청, 고용 외주화 등 다수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실업급여 확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실업급여를 늘려줄 테니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실업급여 확대 등을 두고 "경제위기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국민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담화가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였다"고 꼬집었다.

시의 시니었다고 고급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저희대로 국회에서 할 일을 찾고 검찰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근

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드러날까 봐 간

담회에 불참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간담회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간담회에

앞서 국정원 현장방문을 먼저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일정을 진행해서 하루빨리

국정원 해킹 의혹을 종식시키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킹 의혹과 관련

해 오늘 예정된 간담회가 사실상 무산됐

는데 빠른 시간 내 국정원과 전문가 간 기

술간담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사 부분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보·타협위해 野와 편안한 소통

🎎 🚉 여야 당직자에게 듣는다

>5<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새누리당 김영우(연천·포천) 수석대변인이 방미 성과와 지역 현안해결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 김무성 체제 2기 당직 인선 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김영우(연천·포천) 수석대변인은 김무성 대표가 많이 아끼는 소장파 의원이다. 이번 인선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수도권 출신을 대거 중용하는 인사였지만 김 대변인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이 김 대표의 마음에 쏙들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김 대변인 역시 유임된 이유로 "야당과 언론인들과의 편안한 소통이 긍정적 평 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김 대표의 방미 수행단에 참여했

던 그는 귀국 후 가진 경인일보와의 인터 뷰에서 이런 사정을 인정하듯 "김 대표 가 (유임시키면서) 정치는 양보하고 타협 해서 궁극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야당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혁 신연대모임'을 주도하는 소장 개혁파 의 원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정당 외교로 한미동 맹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

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계 주요 인사들과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남 북관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아 베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 구하는데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석대변인으로 당 대변인실을 이끌고 있는 그는 이제 지역에 내려가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마무리할 사업과 관련, "포천 전철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전반기 사업에 포함하

포천전철 3차국가철도망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등

산적한 사업 총선전 '마무리'

고 포천에서 가평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국지도 56호선 수원산 고개 터널 확 ·포장 사업'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 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자리한 국토교통 부와 기획재정부,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찾아장·차관과실무진들을 직접설득하 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연천 경원선 전철의 일부 구간을 교량화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방안도 임기내 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사격장과 탄약고로 피해 받고 있는 지역을 위한 군사시설 주변지 역지원법이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돼 19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아야 한다"며 K-디자인빌리지·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임진강 평화 문화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이다. 조건

🌑 경인정가

도화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현장방문 간담회

'국정원 해킹의혹 규명' 전문가 기술간담회 무산

국정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여야가 이 갖춰지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일요일

새누리당 홍일표 (인천남갑·사진)의 원은 6일 인천 남구 도화지구기업형임 대주택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 을 점검한 후 인천

도시공사 관계자, 주민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화구역에서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 주택사업은 8년간의 장기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해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총 2천105세대의 기업형임 대주택이 들어올 계획이다. 또 준공공임대 520세대와 공공임대 548세대를 합쳐총 3천173세대가 도화지구에 자리잡게된다.

홍 의원은 "도화지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고 중산층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 재벌기업에 집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안민석(오산·사진)의원은 6일 "지난해전체 법인세 감면액8조7천억원 중 상위

1% 법인에 7조1천억원(81%)이 집중된 반면하위 50%에 대한 조세감면액은 29억원 (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200조원의 순이익 중 상위 1%

법인의 몫은 139억원(70%)이며하위 50%의 순이익은 8조6천억원(4.3%)인 것으로 나타 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전체 이익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1% 법인이 전체 감면 액은 70%보다 더 많은 81%의 혜택을 본다는 의미"라며 "법인세 감면액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도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충분히 투자 여력이 있는 상위 재벌기업에는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기가자 islandkim@kyeongin.com

"국정원직원 車 부검결과 전 유족에 넘겨"



박남춘(인천남동갑· 사진) 의원은 6일 "경 찰이 국정원 해킹 의 혹과 연루된 임모 과 장이 숨진 채 발견된 마티즈 차량을 부검

새정치민주연합

결과가 나오기도 전 사망 당일 유족에게 넘겼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 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임 과장 이 사망한 지난달 18일 현장검사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30분께 유족에게 마티즈 차량 인계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부검을 실시한 19일보다 하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서를 회신받은 20일보다는 이틀 전으로, 경찰이 부검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넘긴 것이다. 박의원은 "부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유족에게 차량을 인계한

점은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경제

정규직 일자리 창출・건전한 소비에 '세제혜택' 보상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청년 1명당 최대 500만원… 체크카드 공제율 인상 업무용 차량・종교인・사행산업등 과세체계도 손질

정부가 침체에 빠진 국내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일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정안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제지 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

■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세금 혜 택을 준다

세법개정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대표적인 것이 전년보다 청년 정 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비 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다.

정부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과 중견기업까지 청년고용 증대세 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전 면시행되면앞으로 수년간 '청년고 용 빙하기'가 예상되는 만큼 청년 고용 증대세제를 올해 바로 도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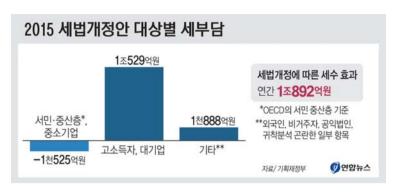
2017년 말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 을 공제해 주고 대기업은 250만원 으로 지원수준을 차등화시켰다.

정부는 청년고용 증대세제 도입 으로 기업들은 매년 1천200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고 3만5 천여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 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근로소 득세 감면율도 50%에서 70%로 인 상해 오는 2018년 말까지 적용하기

신규로 5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



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범위를 30억 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창업 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게

■ 건전한 소비에는 세제 혜택을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건전 한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 련했다.

우선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의 소 득공제율을 50%로 1년간 인상한 다. 단 1천1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 채를 고려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인 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대형 TV, 에어컨, 냉장고, 세 탁기 등 가전제품과 녹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명품가방 등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메르스로 인해 타격을 받은 음식 점업 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 하고, 매출액에 따른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 도를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 고,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 용대상에 '축사용지'도 포함해 축 산농가의 원활한 가업 승계도 지원

■ 과세사각지대 줄인다

논란이 돼온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방안도 공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승용차에 한 해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을 인정하 면서 운행일지로 입증된 사용비율 만큼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로 했다.

기업로고(탈부착식제외) 부착차 량은 운행일지 작성 여부와 관계없 이 비용을 100% 인정해주지만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관련 비용 전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개인사업자는입증된업무사용비 율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종교소 득 과세체계도 정비한다.

종교인의 소득을 소득수준에 따 라 필요경비율을 20~80%로 차등 해 누진 공제하도록 했다. 내년 1월 부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 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해야

이밖에 경마•슬롯머신 등에서 발 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범위도 확대되며, 경마와 경륜 등의 사행산 업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붙는 개별 소비세도 100% 인상된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예금·적금·펀드 '만능통장' 도입

ISA, 200만원까지 비과세 내달 국회제출·내년 출시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 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 ividual Savings Account)7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ISA는 기존보다 높은 세제 혜택으로 저금리 시대에 국민들 의 자산 증식을 돕겠다는 취지 로 도입돼, 보험을 제외한 예금 과 적금·펀드·파생결합상품 등 을 모두 하나의 계좌에 넣을 수 있다.

특히, 연간 2천만원까지 5년 간 적립할 수 있고 만기 인출 때 이자 · 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 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

한 이익에 대해선 9%의 분리과 세를 적용하나 5년간 계좌를 유 지해야 한다.

가입자격은 직전년도 과세기 간에 근로 · 사업소득이 있으면 1 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규취업자 등은 원천징수확인 서 등을 통해 소득확인과정을 거치면 개설이 가능하다. 소득 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가입 한도는 연 2천만원으 로 5년간 1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ISA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차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 음 달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 며,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를 통 과하면 내년 초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MY PORTABLE PORTFOLIO

감각적인 디자인과 환상적인 속도의 만남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세련된 포터블 SSD를 경험해 보세요!

삼성 포터블 SSD T1

samsung.com/T1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박원준) 회장단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건설공사 업역침해의 소지가 있는 품목에 대해 반대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폐지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공

"관급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 폐지를"

전문건설협 "시공-납품업체간 책임분쟁 원인" 주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단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 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 해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폐지 를 요구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란 중 소기업청에서 3년마다 지정하는 공 공 공사용 자재에 한해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토록 한 제도다.

당초 중소제조업체의 판로지원 을 위해 마련됐으나, 일부 납품업체

가 시공에까지 관여하면서 건설업체 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박원준 회장은 "관급 공사용 자재 는 시공업체와 자재 납품 업체 간 하 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자재납품 위 주의 공사 발주가 된다면 전체적 공 정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380여곳 '참가대기표'

소상공인진흥공단 접수 마감 10일 250곳 발표 세차례시행

전국 250여곳 전통시장이 참여하 는 '전통시장 그랜드세일'행사가 (경인일보 7월 31일자 6면 보도) 뜨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은 지난 5일 마감된 전통시장의 세일 행사 참여 접수 결과, 전국 380 여곳이 참여 의사를 희망해왔다고

당초 공단 측은 300곳 정도의 접 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마감 최종일 신청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 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 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로 상대적 피해가 컸던 평택과 수원지 역 등의 전통시장에서만 100여곳이 대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메르스 발생지역 중심 의 시장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시장은 할인품목과 할인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8 월과 9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동 시 세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의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와 연 계된 점을 감안, 선정 250여곳의 시 장외에도 전국 주요 전통시장 대부 분이 세일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행사가 본격화 될 경우 휴가철부 터 추석 명절, 김장철까지 이어지는 장기세일 체제로 전환돼 시장 활성 화가 기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계자는 "10일께 참여 시장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 체됐던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 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주간 생필품 가격비교 <8월 6~12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 일반 1개	1,650원	1,800원	2,380원			
추 일반 悠	2,280원	2,250원	3,800원			
낭추 _{(봉}	1,450원	1,500원	2,000원			
나반고등어 ^{바리}	2,800원	2,900원	1,900원			
유 반10	1,870원	1,700원	1,700원			
내지 삼겹살 1기	2,120원	2,180원	2,200원			
H ^산 목심	2,620원	2,650원	2,200원			
·고기 안심 ·내산 100 g	6,700원	10,500원	7,800원			
날걀 란 30개	6,200원	6,150원	6,300원			
발 일반 20kg	41,760원	44,500원	44,340원			
}울토마토 0g	637원	800원	842원			
남외 _{100 g}	562원	460원	750원			
mart -art						





경제 경인일보 제21552호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인천공항에선 다 通한다









bbb코리아 19개 언어 통역 전화・애플리케이션 등 홍보

인천공항공사는 6일 세계 최 초 언어·문화 분야 NGO단체인 bbb 코리아(회장·유장희)와 함 께 '언어장벽없는 인천공항 만들 기'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하계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여객들의 편리한 공 항 이용을 도울 bbb 통역서비스 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다.

'bbb 외국어통역서비스'는 세 계각국19개언어로소통이가능 한 약 4천900명의 자원봉사자들 이 유선으로 24시간 무료 통역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인천공항은 2009년부터 bbb 코리아와의 업 무협약을 통해 '인천공항 핫라 인' 서비스를 제공, 공항 이용객 의 통역 요청을 160여 명의 'bbb 인천공항 특임봉사단'에게 연결 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실시간 으로 해소하고 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중앙 에 설치한 홍보부스를 중심으로 bbb 통역서비스 안내와 함께 공 항 이용객들의 통역 애플리케이



인천공항공사는 통역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언어장벽없는 공항만들기에 나서 외국인 통역을 지원한다.

션 체험, 이벤트 게임 참여 등을 유도하고, 인천공항 곳곳에 숨 겨진 bbb 관련 아이템을 찾아보 도록 하는 고객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또 여객터미널 1층 밀 레니엄홀에서는 bbb 통역봉사자 를 비롯해 공항 상주직원, 경찰과 보안경비원 등 외국인 여객과의 소 통을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언어 소통의 장애물'을 날려버리는 '종 이비행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bbb 통역 서비스는 2002년부 터 지금까지 50만 건 이상의 의사 소통 어려움을 해결해 왔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글 플 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서 'bbb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인천공항 핫라인' 탭 을 선택하거나, '인천공항 가이 드 앱'에서 통역 메뉴를 선택하 여 이용할 수 있으며, bbb 대표 번호(1588-5644)로도 쉽게 무료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언어서비스는 영 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 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아랍 어, 폴란드어, 터키어, 스웨덴 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 아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인 도어 등이다.

/차흥빈 기자 sky@kyeongin.com



"외국인 관광객 유치 '쇼핑 편의'가 정답"

市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쇼핑 라이크 인천'

환불·교환·AS한번에해결

인천 시민들이 생각하는 외국인 관광객 인천 유치 방법은 무엇일까.

개최한 '제1회 인천시 홍보 아이디 어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권 미정·서지혜·이승희)을 통해 시민 들의 생각을 엿보니 답은 쇼핑 편의 와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이었다.

인천'은 ▲올인원 헬프 데스크 ▲ 도어 투 도어 ▲쇼핑 품질 보증제 도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에서 편 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도울 아이 인 관광객이 쇼핑할 때 맞닥뜨릴 수

디어 3가지를 담았다.

해외 택배서비스 만족도 높여 광객이 상품 구매 후 가장 난처해 하는 환불, 교환, AS 등을 한번에 다. 이 시스템을 인천 내 백화점, 면 세점, 지하상가, 전통시장 등 구매 엔타스면세점이 개관을 기념해 저에 관계없이 통합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자는 게 아이디어 핵심이다. 도어 투 도어는 쉽게 말해, 해외 택배 서비스로 인 천에서 쇼핑한 물건을 여행자 집으 최우수상을 받은 '쇼핑 라이크 용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많은 짐 을 한 번에 보내 외국인 관광객 쇼 핑 만족도 향상을 꾀하자는 아이디 어다. 쇼핑 품질 보증제도는 외국

있는 구매 강요, 바가지 요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서 비스 수준, 정확한 가격 표시 여부, 올인원 헬프 데스크는 외국인 관 시설 편의성 등을 평가해 보증 마크 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엔타스면세점 관계자는 "쇼핑 '질 높은 쇼핑 편의 제공이 답이다!' 접수 받아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 라이크 인천은 창의적이고 구체적 인 아이디어로 높은 점수를 받았 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인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

> 엔타스면세점은 최우수상 등 총 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이 13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해 5 일 시상식을 열었다. 이들에게는 총 1천만원의 상금이 전달됐으며, 최 우수상과 우수상 팀 대표자에게는 엔타스면세점 인턴십 기회도 부여 했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인천대 창업지원단 '비즈쿨 IP 리더 캠프'

지역내 6곳 고교생 31명 참여 쿨 IP 리더 캠프'를 연다.

과 교육 내용이 다양한 창업 관련 한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창의력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천대 송도캠퍼스에서 '2015년 비즈 을 출원한다. 좋은 아이디어는 변

이번캠프는 영화관광경영고, 인 창의력·아이디어 창출 교육 천세무고, 인평자동차정보고, 만 수고, 대건고, 문학정보고 등 지역 인천대 창업지원단이 참여 대상 내 6개 비즈쿨의 학생 31명이 참여 훈련, 아이디어 창출 등과 관련된 인천대창업지원단은 10~12일인 교육을 받고 1인당 지식재산권 1건

리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특허 출원 까지 할 예정이다.

인천대 창업지원단은 이에 앞서 지난 4일부터 '제5회 어린이 창업 발명 캠프'를 열고 있다. 인천을 포 함한 수도권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발명 캠프는 스마 트기기 앱을 활용해 발명 원리를 설 명하고, 아이들의 잠재된 창의력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캠프 일정은 7일까지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대우자판 부지 개발 절차 시작 지역경제 '장밋빛 미래' 비출까

대원플러스건설, PF 진행중 세계 테마파크·호텔과 협의 市 "동시준공 어려워" 의구심

대원플러스건설이 인천 연수구 '대우자판 부지' 개발 절차에 착수 했다. 장기간 방치됐던 이 일대 개 발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동안 토지매매 과정 등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 전망이 밝지

앞서 연수구 옥련동 · 동춘동 일 대 주거·상업용지, 테마파크 용지 등 92만6천952㎡ 규모 대우자판 부 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대 원플러스건설은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무실을 마 련했고, 세계 유명 테마파크·호텔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설 계관련 업체 선정 절차도 진행 중이 다. 금융권과 전체 부지를 대상으 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1년 6개월 뒤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을 동 시 착공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 는 세부추진계획을 인천시에 제출 하기도 했다. 다음 달에는 대우송 도개발 파산관재인 측에 토지 매매 대금 3천150억원을 완납한다는 계

하지만 인천시는 대원플러스 계 획 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 고 있다. 대우자판 부지는 도시개 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 동시 준공 이 조건으로 걸려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을 동시 착공할 경우 테마파크 준공 시기가 늦어져 동시 준공이 이 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천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계획 보 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계획도 테마파크를 먼저 착공하고 2년 뒤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는 것이다. 같이 착공해 동시에 준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파트만 먼저 준 공하려는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송도개발 파산관재인 측과 토지매매 관련 MOU를 체결 했던 엠스타・미소지움(미소디엔 씨) 컨소시엄이 토지매매계약 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도 아 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과 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대우 송도개발 채권단 일부가 매매금액 이 경매 최저입찰가보다 낮다며 법 원에 경매 신청을 한 것도 아직 결과 가 나오지 않았다. 대원플러스 관 계자는 "토지매각을 법원에서 승인

한 만큼 경매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이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달 안 에 모든 부분을 세팅하려고 한다" 며 "인천시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서는 보완해 올해 테마파크 전망대 등 일부 시설을 우선 착공하고, 인 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테마파크 부지 일부 무상제 공도 생각하고 있다. 인천시에 최대 한 협조해 세계 최고의 명소를 만들 겠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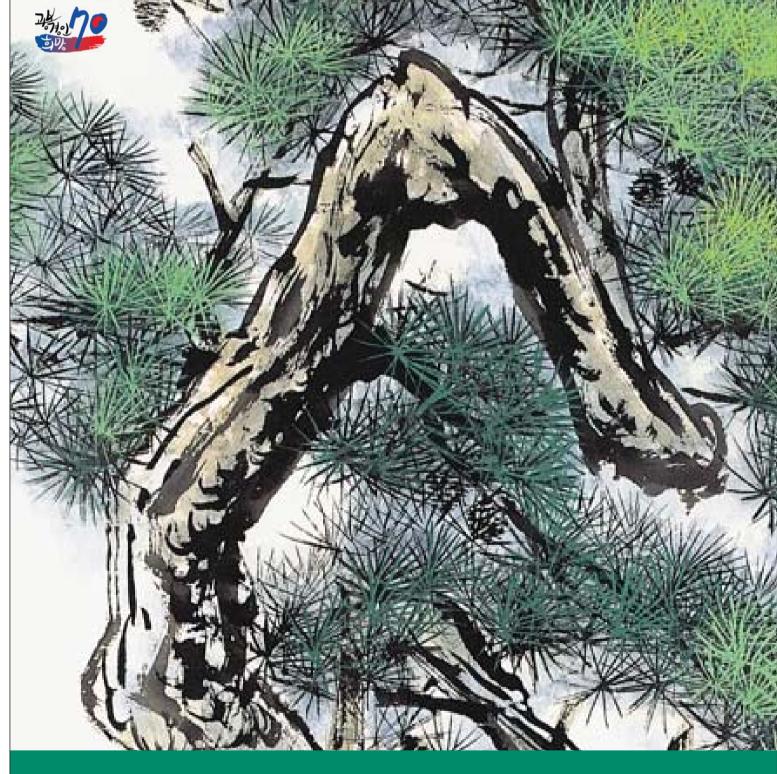
국방기술품질원인천국방벤처센터 가 17일까지 협약 기업을 모집한다. 협약 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방 관련 사업 참여 기회와 컨설팅, 방 산 기업과의 사업 협력, 아이템 발 굴, 국방 관련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인천 내 국방

분야 아이템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

소기업이다. 또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나 품목을 가지고 군 사업화를 준비 중인 곳도 신청할 수 있다.협약 기업 계약 기간은 1년이 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국방벤처센터(연수구 갯벌로 12 인천TP 시험생산동 203호)를 방 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접수하면 된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경인 70·70 특별전

개막식 **2015년 9월 18일**(금) **오후3시**

|본 특별전은 **경인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이하여 여송 서복례화백과 함께 소나무작품 70점을 전시하며 작품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나눔기금 등으로 마련됩니다.

주최·주관 🕤 경인일보사 역송 서복례화백

후원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 경인일보사 인천본사편집위원회

유통 제21552호 **경인일보** 2015년 8월 7일 금요일

'마음의 짐'까지 들어주다

'팔방미인' 캐리어·배낭

스포츠중계를 시청하다 보면 멀티 또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란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된다. 남다른 센스와 운동 능력으로 여러 개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팀의 입장에서 없어선 안 될 그야말로 소중한 존재들이다.

여행이나 출장 시 사용하는 캐 리어나 배낭 중에도 '팔방미인'들 이 존재한다. 일단 길에 나서면 예 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과 조 우하게 되므로 그때그때 발 빠르 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 기 위함이다.

캐리어 후면 힙벨트 장착 여행·출장때 편의성 높여 일부 분리돼 수납도 우수 다기능 제품 소비자 유혹

오스프리의 오존 컨버터블(OZ ONE CONVERTIBLE) 시리즈 는 기존 오존 라인에 배낭의 편리 함을 더한 케이스다. 비결은 캐리 어 후면 대형 포켓 속에 감춰진 하 네스와 힙벨트 등 서스펜션 시스 템. 승강기가 없는 계단과 맞닥뜨 리거나 보다 빠른 이동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무척 편리하다.

꼭 필요한 물건만 수납할 수 있 는 데이팩 시스템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다. 캐 리어와 지퍼로 연결된 전면부 수 납공간을 분리해 소형 배낭으로



사용할 수 있다. 50L와 70L 두 가

지 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

앞서 오존 컨버터블이 캐리어 에 배낭 시스템이 추가된 형태라 면 파포인트(FARPOINT) 시리 즈는 메인 배낭에 소형 배낭을 더 한 격이다. 40L, 55L, 70L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중 55L와 70

L 배낭 전면 수납부를 분리해 보 조 배낭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 벼운 무게와 효율적인 수납시스 템을 갖춘 파포인트 시리즈는 전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 마니아 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다.

나 많은 짐을 수납하지 않아도 되 는 여행이라면 포터(PORTER)

시리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 다. 노트북과 태블릿처럼 전자기 기 사용이 많은 이들을 위해 따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30L, 46 L, 65L 세 가지 용량이 시장에 나 와 있고, 가벼운 트레킹에서부터 캐리어보다 배낭을 선호한다거 도심 속 비즈니스 용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상생 걸음 내딛는 아모레퍼시픽

오산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구매 연계·지원

국내 대표 뷰티그룹인 아모레퍼 시픽이 오산시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유통 상생'에 나서, 관심 을 모으고 있다.

오산지역 사회적기업들과의 구 매 연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자생

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6일 아모레퍼시픽과 오산시에 따 르면 최근 오산시청에서 사회적경 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 연계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갖고,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설명회에는 오사지역 대표적 사회 적경제기업인(주)에코바이오, (주) 만나,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회사 법인(주) 등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오산지역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 측에 기업 설명은 물 론 판매제품을 소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자사 직 원들을 대상으로 오산지역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 구매 등을 독려할 예 정이다.

특히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유통 망을 지닌 아모레퍼시픽의 자산을, 오산지역 사회적기업이 공유할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이홍진오산시경제문화국장은 "오산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 력이 높다"며 "아모레퍼시픽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상생할 수 있 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좋은 물건 나누고, 이웃 情도 나누고

아브뉴프랑 광교 '플리마켓' 주민 포함 80개팀 참여 열기 직접 만든 잼·건어물등 인기

아브뉴프랑 광교점은 '지역주 민과 함께하는 상설 플리마켓'을 개최, 큰 호응을 얻었다고 6일 밝

지난 주말(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띠존 후면부 일대 에서 진행된 플리마켓에는 총 80팀 이 참여했다.

의류, 방향제, 핸드메이드 제품, 액세서리, 쿠키 등 다양한 품목들 이 마련돼 아브뉴프랑을 찾은 고객 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직접 만든 수제잼과 수제건

어물, 수제 밥가루, 수제꽃차 등은 젊은 주부들이 앞다퉈 구매했다.

아브뉴프랑 광교는 참여팀을



아브뉴프랑 광교점에서 지난 1~2일 진행된 플리마켓

/아브뉴프랑 제공

'핸드메이드', '세컨핸드(중고제 품)', '아트/체험' 세 종류로 구분 해 모집했다. 중고제품의 경우 사 용하던 접시나 소품, 의류, 가전제 품 등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업적 목적이 두드러지는 제품은 판 매를 금지시켰고, 참가자들이 낸 소정의 참가비는 수원시에 전액 기 부한다는 계획이다.

아브뉴프랑 광교점 관계자는 "7~8월에 걸쳐 열린 플리마켓 모두 주민들과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 을 받았다"며 "앞으로 플리마켓이 아브뉴프랑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 플리마켓 특성을 살리기 위해 상 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그랜드 하얏트 인천 '미각 여행' 프로모션

와인+프랑스 요리 콘셉트 오크우드 '핫 서머 쿨 비어'

그랜드 하얏트 인천이 28일까지 '레스토랑 8로 떠나는 미각 여행' 프로모션을 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그랜드 하얏트 인 천 이스트 타워 1층의 레스토랑 8에 서 진행하며, '여름 와인과 함께 즐기 는 프랑스 전통 요리'가 콘셉트다.

제공되는 요리에는 달팽이, 캐비 어, 거위 간 등 고급 음식재료가 사

점심 코스는 허브 버터, 자몽 젤 리, 완두 콩잎, 절임 레몬 드레싱 등 을 섞어 만든 달팽이 샐러드와 차가 운 감자 대파 수프, 등심구이, 디저 트가 차례로 제공된다. 저녁 코스 에는 샤워 크림 마카롱, 구운 거위 간 요리 등이 추가된다. 가격은 점 심 6만6천원, 저녁 11만원 이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은 두 가 지 특별 여름 프로모션을 내놨다.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의 36층 오크 바에서는 31일까지 오후 6시~ 9시 생맥주 행사 '핫 서머 쿨 비어' 를 진행한다.

핫 서머 쿨 비어는 클라우드 생맥



오크우드 프리미엄 인천 핫 서머 쿨 비 /오크우드 제공

주 또는 에딩거 생맥주와 치킨윙, 케이준 감자 등의 안주와 세트로 제 공한다. 특히 클라우드 생맥주는 무제한이다. 애딩거 생맥주는 3잔 까지 마실 수 있다. 1인 기준 가격은 클라우드 생맥주 세트 3만2천원, 에 딩거 생맥주 세트 3만9천원이다.

오크 레스토랑에서는 '서머 웰빙 프로모션'을 말복인 12일까지 진행 한다. 이 프로모션은 마, 잣 등으로 국물을 낸 냉국수, 육회 비빔밥, 해 산물 비빔국수, 능이 버섯 삼계탕, 갈낙탕, 장어 초밥 등 6가지 메뉴 중 골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2만5 천~3만3천원이며, 점심과 저녁 모 두 주문할 수 있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신세계여주아울렛 웨딩세일

혼수용품 등 최대 70% 할인

신세계사이먼여주프리미엄아울 렛(대표·강명구)은 7~16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웨딩 스페셜 세일(Wedding Spec ial Sale)'에 들어간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혼수를 위한 생활용품부터 달콤한 신혼여행을 위한 커플 캐주얼과 잡화 등 20여개 의 브랜드를 최대 7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우선 르크루제(Le Creuset)는 원형 주물 냄비와 그릴 세트를 기존 54만8천원에서 23만5천원에 판매 하는 등 냄비와 접시 세트를 최고 55% 할인한다. 로얄코펜하겐(Roy al Copenhagen)은 팔메떼 믹스세 트(6p)를 70% 할인하며, 테팔(Tef al)은 무선청소기 전 상품을 20% 추가 할인해 기존 24만9천원인 엠 비언스 더블그릴을 12만5천원에, 31만원인 주물 스마트 냄비세트 4 종을 14만8천원에 각각 판매한다.

스와로브스키(Swarovski)는 가 을·겨울 주얼리 상품을 기존 30%에 서 50%로 할인율을 높여 판매하고, 룩옵티컬(Lookoptical)은선글라스 상품을 최고 70%까지 할인한다.

여주/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라이나생명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5-1417호(2015.6.17) [22578]

2형(유병자형)가입 시

가입 OK되는 국내 최초의 유병자 전용 암보험 *2형(유병자형)가입시, AIDS(에이즈),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자 또는 유병자 제외

라이나 이 (갱신형)

무늬만 암보험은 가라~ 이제 가입 문턱을 낮춘 암보험 탄생!

40세 남자 월 27,300원 가입금액 1,000만원 2형(유병자형) 최초계약 기준 **2형**(유병자형)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유병자 전용 암보험

*2형(유병자형)가입시, AIDS(에이즈),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자 또는 유병자 제외

1형(표준체형) 15세~60세, 2형(유병자형) 30세~6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위암·폐암·대장암 같은 각종 일반암은 물론, 백혈병·뇌암·골수암도 빠짐없이 보장 요즘 빈발하는 전립선암·갑상선암·유방암·기타 피부암도 보장

*일반암 2,000만원, 유방암 • 전립선암 각 400만원,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각 200만원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계약일 이후 2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보장)

*보장개시일은 1형(표준체형)의 경우 암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이며, 2형(유병자형)의 경우 암과 갑상선암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임.

다만, 소액암(1형: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2형: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계약일부터 보장함. *만기지급금 50만원(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만기 생존시)

1형(표준체형) 남자 여자 여자 9,700원 11,400원 18,600원 14,500원 13,700원 14,700원 27,300원 24,100원 50세 23,700원 18,600원 39,300원 38,900원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혐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1세	289,200원	13,614원	4 <u>.</u> 7%
2년	42세	578,400원	167,029원	28.9%
3년	43세	867,600원	262,543원	30.3%
5년	45세	1,446,000원	419,371원	29.0%
10년	50세	2,892,000원	500,000원	17.3%
기조 · 서버/스	UTI) 710170	T = O + 000 O T =	IZION LANDENIA	CHAIN MILLS

*기준 : 성별(여자), 가입금액 주계약 1,000만원, 전기간월납, 10년만기, 유;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독일 물렉스 전동 드라이버 상담만 받아도!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전기간 월납, 만기지급형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AIDS(에이즈),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자 또는 유병자는 2형(유병자형) 가입 제외. 가입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를 지급함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단,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림.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 가능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 해지 후 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또는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 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전면광고 2015년 8월 7일 금요일 경인일보 제21552호



주최 3 경인일보사

주관 경기도골프협회









삼성디지털시티, 강원도에 이동빨래차

삼성디지털시티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 애인들을 위해 이동 빨래차 3대를 강원도에 전달 했다.

삼성전자 수원사회봉사단(단장·안재근 부사 장)은 6일 강원도청을 찾아가 '행복나눔 빨래터 전 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횡성부군수, 정선부군수, 화천부군수, 삼성전자 수원사회봉사단 안재근 부사장, 삼성전자(수원) 백민승 사원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날 전달된 행복나눔빨래터 차량 한 대에는 드 럼세탁기 21kg짜리 4대가 탑재되어 있어 연간 1만 2천여 명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세탁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양평군과 양주시에 행복나눔 빨래터 2대 를 전달한 삼성전자는 올해 수혜대상과 범위를 넒 혀 경기도와 강원도에 각 3대씩 전달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경기 농협, 소외계층 어린이 축산체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오경석)는 6일 용인시 백암면 용인축협 한우랜드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경기지역 소외계층 어린이 40명을 초청해 재미 있는 어린이 축산체험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오경석 본부장을 비롯한 최재학 용인축협조 합장 등 농·축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40명의 어린이들은 피자·아이스크림 만들 기, 송아지 풀먹이기, 미니동물원 견학 및 트랙터 타 기 등의 축산체험을 즐기며 유익한 하루를 보냈다

오경석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름방학을 맞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이값진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자리 옮겼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정과장 조남숙 △도시 주택국 건축행정과장 박명균 △안전건 설국 안전총괄과장 이정석 △ " 공원녹지과장 구본웅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최진원 △환경관리사 업소 기후에너지과장 김정원 △ " 청소행정과장 최희 면 △교통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장 박성춘 △처인구 민원봉사과장 임도수 △ " 세무과장 유용규 △ " 공원 환경과장 김명종 △ " 건설도로과장 조억제 △ " 건축 허가과장 김종무 \triangle " 남사면장 허광만 \triangle " 이동면장 지영용 \triangle " 원삼면장 한상의 \triangle " 양지면장 이정표 \triangle " 동부동장 허완 △ " 세무과장 최윤식 △기흥구 산 업환경과장 김지호 △ " 기흥동장 최병덕 △수지구 자 지행정과장 황규섭 △ " 세무과장 김종억 △ " 사회복 지과장 지영자 △ " 산업환경과장 박승안 △ " 건축허 가과장 최영만 △처인구 백암면장 직무대리 이용성 △ " 역삼동장 직무대리 김용수 △기흥구 동백동장 직무 대리 박오식 △수지구 풍덕천1동장 직무대리 전학표 △ " 죽전1동장 직무대리 손상훈 △ " 죽전2동장 직무 대리 장창집 △ " 동천동장 직무대리 장봉재 △ " 상현 2동장 직무대리 남상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직무대리 이철희 △ " 농촌테마과장 직무대리 여국현

△ 일반대학원 교학행정팀장 김동호 △ 평생교육원 교학팀장 황재현 △ 대학건설본부 시설팀장 민금홍 △ 사무처 총무팀 장 박춘수 △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 지원팀장 김산정 △ 연구산학처 취업경력개발원 취 업역량개발팀장 박일충 △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평 가팀 TF팀장 조천순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 김형기 △감사팀장 임승빈 △ 대외교류처 대외협 력홍보팀장 고덕봉

인하대

△공학대학원장 황원섭△교육대학 원장 김영순 △정책대학원장 김진영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진옥자씨 별세, 임흥세(남수단공화국 축구 국가 대표팀 감독)씨 빙모상=8월6일 오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30 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31)910-7443, 7444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대표·한기범)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한기범 농구교실'에 참가한 의정부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학생들



림 향해 슈팅, 네 꿈도 이뤄질거야

'무료 농구교실 운영' 한기범 희망나눔 대표

의정부 아동센터 150여명에 인성교육 겸한 강습나서 드리블·슈팅 1대1 맞춤지도…안병용시장 격려 '한몫'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라도 문화나 체육 활동에 소외돼선 안 돼죠"

지난 4일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고등학교 체육관은 농구공이 '팡팡' 튀는 마찰음과 뛰노는 아이들의 숨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사 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대표·한기범)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한기범 농구교실'에 참가한 의정부지역 아동센터 연합회 학생 150여 명은 정식 코트에서 전문 강사에게 농구 기술을 배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가격은 무료이

지만 수업의 질은 최고급이었다. 가 드, 포워드, 센터 등으로 포지션을 나 눈 아이들은 전직 프로선수인 한 대표 의 시범에 따라 드리블과 슈팅의 요령 을 익혔고 한 대표는 아이들의 자세를 일일이 점검해 주며 교육에 열과 성을 다했다.

한 대표는 "희망농구교실은 아이들 에게 운동뿐 아니라 인성교육도 진행 하고 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건전한 자기활동을 할 기회가 많이 부족한 아이들 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웃으며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한몫 거들었다. 지난 3일 개회식에 참석한 안 시장은 일일이 농구공을 전달하고 슈팅 시범(?)을 보이는 등 아이 들을 격려했다.

지난 2011년 결성된 (사)한기범희망나눔은 심장병 환자들과 다문 화가정, 농구 꿈나무들을 위해 다양한 재능기부 행사를 펼쳐오고 있 다. 이는 한 대표 자신이 말판증후군이라는 희귀 심장병으로 인해 고 통받았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달 18일에는 SM엔터테인먼 트와 함께 연예인들을 초청한 '희망농구올스타 2015' 자선경기를 펼 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대표의 목표는 재능을 가지고도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학업 우선주의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이룰 기회 를 주는 것이다. 선수로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는 이것이 자신에

> 게 주어졌던 사회적 관심을 환원하 고 한국 농구에 이바지하는 길이라 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한 대표는 "어려운 환경일지라 도 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며 "앞으로 아이 들이 꿈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부/윤재준·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





연천농기센터, 강소농 육성교육 수료식

연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빈)는 지난 5일 3 층 강의실에서 '작지만 더 강한 연천농업인'을 육 성하기 위한 '강소농' 경영개선실천교육 수료식을

지난 2월부터 총 79시간 진행한 이 교육은 농업 경영자가 품질관리, 비용관리 등 문제점 분석 및 농업경영 쇄신 발굴에 목적을 두었다.

이날 20여 명 수료 농업인들은 교육기간 동안 자 율학습 모임도 구성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협력 의 지도 밝혔다.

김성빈 소장은 "농가의 실질적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안산 초지高, 지역 아동과 '과학 체험전'

안산 초지고등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아 최근 드 림스타트 아동 20명과 부모님을 초청, '지역사회 아동과 함께하는 과학 체험전'을 개최했다.

행사는 초지고 연합 과학동아리 (초록호루라기, The Cell, 싸인, 생태탐사동아리, 천체관측반, 이 공사) 학생 60여명이 주관해 화산폭발 실험, 반짝반 짝 은거울 만들기, 공기대포 만들기 등 12개의 체험 부스로 운영됐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용인시장, 폭염에 축산농가 현장점검

정찬민 용인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 방을 위해 지난 5일 오후 3시 관내 이동면 어비리 축산농가를 방문,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 시장은 "이른 무더위로 가축 폐사 발생이 우 려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예방과 지도를 강화하 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 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축사 환기, 송풍기와 대형 선풍기 가동, 지붕 그늘 막 설치, 축사 벽 단열재 시공 등을 점검하고, 축사 의 적정사육 두수 대비 10~15%의 사육두수를 줄 여 내부 온도 상승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

용인시는 9월 말까지 폭염대책 T/F팀을 중심으 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여주 70대 축구동호회-부시장 등 공직자 20여명, 환경정화



여주시 70대 축구동호회(회장·최인영)는 6일 홍 문동 일대에서 박병선 부시장 등 공직자 20여명과 함께 지역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황학산 산림욕장 주차장부터 이마트 앞까지 걸어가며 도로변 쓰레기 300kg을 수 거했다.최인영 회장은 "솔선수범 자세로 인도 및 도 로변 쓰레기를 지속해서 수거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여주/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가평군-삼육대, 아름다운 도시미관 협약

가평군은 지난 5일 소회의실에서 삼육대 문화예 술대학(학장·고태영)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창출 을 위한 관·학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학이 보유한 우수한 물적·인적 자 원의 교류기반을 구축해 가평군 특성에 맞는 도시 디 자인 정책연구 지원,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 자문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담고 있다. 또 도 시공원, 담장, 가로변 등에 디자인을 입혀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가기 위한 교류협력 등도 포함돼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수원남부署'道베스트학교전담선발' 1위

수원남부경찰서(서장・유진형)는 경기지방경찰 청이 주관한 2015년 상반기 베스트 학교전담경찰 관 선발에서 팀 부문 도내 1위, 개인 부문 도내 3위 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발은 도내 41개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 으로 인지도 및 기여도, 선도 프로그램 및 심사위원 회 운영 실적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수원남부 경찰서는 인지도 분야에서 100%를 달성하는 등 도 내 1위를 차지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수원중부署, 율천주민센터 치안토론회

수원중부경찰서(서장·류영만)는 율천 주민센터에 서 김주성 경기도의원, 염상훈 수원시의원, 심언형 율 천동장 등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중 심의 '시민안전 치안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 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수원시민 체감치안 만족도 향 상을 위한 토론을 하고, 방범용 CCTV와 교통시설물 개선, 청소년 치안예방 등 다양한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하남署, 자율방범 연합대와 간담회

하남경찰서(서장・고진태)는 지난 5일 자율방범 대와 상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경찰인력 부족으 로 인한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 확보를 위 해 하남시 자율방범 연합대(대장·이동섭) 임원 및 각 지대 대장, 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방범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하남서는 경찰이 현재 시행 중인 근 린치안 종합대책, 여성안심귀가길, 합동순찰 강화 등 치안활동 설명에 이어, 월 1회 '협력 치안의 날' 을 지정해 자율방법대와 하남시 전역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차량을 활용해 심야시간대 여성 대 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귀가 종합대책을 마련키 로 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남양주署, SNS 활용 비행청소년 검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남양주경찰서(서장・박승환) 의 특수시책이 일선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남양주 경찰들은 최근 비행청소년들의 절도와 갈취 등으로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소 셜미디어 글을 접했다. 앞서 남양주서는 지구대와 파 출소 단위로 지역 소셜미디어 활동체계(SEN)를 구 축, 주민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제보와 신고를 접수 해왔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용의자들의 인상착 의를 파악, 학교'학원·놀이터 등지 순찰을 대폭 강화 했다. 그러던 지난 3일 오후 2시께 피해 학생의 제보 를 받고 때마침 인근에 있던 호평파출소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 시내를 배회하는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상습절도 및 갈취로 보호관찰 중인 고교 중 퇴생이었으며, 남양주 일대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 로 범행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부 모 제보를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남양주/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사람들 경인일보 제21552호 2015년 8월 7일 금요일 11



인천도시공사, 꿈의 책방 2호점 조성

인천도시공사가 남동구 구월동 한빛지역아동센 터에 '꿈의 책방 2호점'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아동센터는 책을 수납할 가구와 장서가 부족 했던 곳이다. 도시공사는 이곳에 책장, 책상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지원하고,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도서 250여권을 기증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책방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아동들이 책을 통해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고 말했다.



옹진군 휴가철 성범죄 예방 캠페인

인천 옹진군은 지난 4~5일 이틀간 인천항연안여 객터미널과 각 면 해수욕장, 선착장에서 피서객을 대 상으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은 여름 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년 탈선과 각종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조윤길 옹진군수 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 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농협중앙회, 토마토 농가 일손돕기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원예농협 직원 등이 6일 남동구 수산동 토마토농장을 방문해 농 가 일손 돕기 활동을 폈다.

이 농가는 토마토 농사 마무리 시점을 맞아 줄기 제거, 하우스 정리 등 일감이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최인태 인천지역본부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일손 돕기 활동을 벌여 농가, 농업인 지원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50년 레전드, 8년 만의 '리턴 투 한국'

인천 찾은 록그룹 '스콜피언스'

기자회견서 "한국팬과 재회 설레" 소감 오늘 개막 펜타포트 '헤드라이너' 출연

독일의 전설적인 록그룹 스콜피언스가 6일 인

7일부터 9일까지 송도 달빛공원에서 열리는 201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펜타포트) 참가를 위해 입국한 스콜피언스는 6일 송도 트라 이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래도록 스콜피언 스를 사랑해준 한국 팬들을 인천에서 만날 수 있

어 매우 기쁘다"며 "인천 펜타포트 무대에서 수많 은 관객과 만날 순간이 설레고 기대된다"고 말했 다. 스콜피언스는 지난 2007년 한국을 방문한 바

이날 기자회견에는 루돌프 쉥커, 마티아스 잡 스, 클라우스 마이네, 파월 마시워다, 제임스 코 탁 등 스콜피언스의 다섯 멤버가 모두 자리에 나 왔다. 클라우스 마이네(보컬)가 밴드의 대표로 기 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올해는 1965년 스콜피언스가 결성된 지 50주년 을 맞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 클라우스 마이네 는 "50년을 이어온 록 밴드는 롤링스톤즈, 비치 보이스 정도로 50년은 매우 특별한 것"이라며 "기 쁘게도, 아직도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아직도 곡을 연주할 힘과 열정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10년을 맞는 펜타포트의 '헤드라이너'로 출연

하는 스콜피언스는 이번 무대에서 올해 발매한 새 앨범 '리턴투포에버(Return to Forever)'에 수록 된 곡을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이번 앨범은 3년 동안 준비했다. 1980년 도 앨범에 수록하지 못한 곡을 다시 살려보자는 뜻에서 7~8곡 정도 추려 앨범에 추가했다. 1970~ 1980년대 만들었던 곡들을 지금의 관객에게 들려 주고 싶었다"고 했다.

클라우스 마이네는 "모든 나라에서 '클래식 록'을 다시 즐기고 있고 요즘 젊은이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며, 그 관심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세대가 즐겼던 음악을 한국을 비롯한 전 세 계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

지난 2010년 은퇴 선언을 뒤집고 다시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는 등 활동을 재개한 이유에 대해 서도 언급했다. 그들은 "은퇴 선언 이후 '작별투 어'를 하며 팬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음악이 아직 도 살아있고, 팬들도 살아있고 이러한 것들을 놓 아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우리의 에너지와 창의력이 살아있어 이대로 활동을 마감하긴 이르 다고 생각해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중부해경안전본부 봉사단, 장애인시설 '착한손길'

성남 18 *아날로그 21번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우리방송)

강화 길상면 '우리마을'서 근로보조·천연비누 기증 등 '사랑 나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우리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6일

자원봉사단 20여 명은 이날 지적장애인의 근로 보조, 시설환경 미화 등을 실시하고, 구내식당에 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제작한 천연 세 탁비누 200장을 기증했다.

김은준 봉사단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 국민과 함께 하는 해양경 찰이 되겠다"며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자원봉사단은 오는 15, 16일 이틀간 열린의 사회와 함께 덕적도를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물놀이 안전사고 '119 선생님 해파리 등 응급상황 대처 교육

강화소방서,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

인천 강화소방서(서장·류환영) 동막 119 시민수 상구조대는 화도면 소재 동막리 해수욕장에서 시 민과 함께하는 119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운영했다 고 6일 밝혔다.

체험장에선 심폐소생술 및 해파리 쏘임 등 해변 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119 심폐소생술 체험에 참여한 한 시민은 "눈으 로만 보면 참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하려고 하니 어렵 다"면서 "좋은 경험이 되었고 심폐소생술 교육 체



험장이 좀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막해수욕장 을 찾는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과 물놀이 안전사 고 수칙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며 "올여름 강 화도 지역을 찾은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출 동태세 확립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www.ichannel 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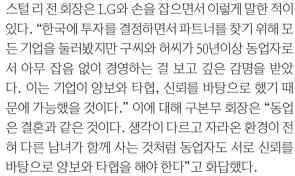
오피니언 12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제21552호 **경인일보**

│ 참성단 │ 具씨와 許씨

옛날 경남 진주에는 사돈지간인 구(具)씨와 허(許)씨가 살고 있었다. 구씨는 장사 수완이 좋았고 허씨는 진주에 서 내로라하는 만석꾼 집이었다. 이들은 의기투합해 동 업으로 창업했다. 경영은 가족이나 친척이 맡아서 했다. 일종의 '가족기업'인 셈이다. 창업 이념은 첫째도 인화 (人和) 둘째도 인화(人和)였다. 기업은 승승장구했다. 영 업에 강한 구씨와 숫자에 관한 감각이 탁월했던 허씨의 완벽한 조화는 그후 LG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 장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시작된 두 가문의 동 업은 고 구인회-고 허만정씨, 구자경- 고 허준구씨, 구 본무(LG회장)-허창수(GS 회장)씨에 이르기까지 무려 68년간 지속돼 왔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구 씨와 허씨가 계열을 분리하면서 아무런 잡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부자간·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일상사가 된 대

한민국 대기업 역사에 두고 두고 회자될 만한 모범 사 례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오래전 LCD 파트너를 구하려고 한국을 방문했던 네덜란드 필립스 社의 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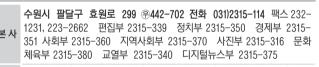


구씨의 경영을 논할 때 등장하는 것이 '정도(正道)경 영'이다. 고 구인회 회장은 도박이나 술 등 사행성 산업 은 물론 '먹고 마시는 것'과 연관된 소비성 사업, 부동산 투자 사업을 엄격히 금지했다.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고, 먹고 마시는 소비성 사업으로 재계 5위가 된 재벌가 롯데가 경영권 다툼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 롯데그룹의 자금부터 계열사 지배까지 '집중 점검' 하려는 모양이다. 롯데가 '일본기업'이라는 논란이 일어 나고, 反 롯데 정서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인 화를 바탕으로 소리 없이 치른 '범 LG가(家)'의 계열분리 작업이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영재 논설위원

※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회장 이길여 | 발행·편집·인쇄인 송광석 | 편집국장 **장철순**



인천시 남구 학익1동 684-1 \$\@\$402-041 전화 032)861-3200 팩스 861-3206,3209 정치부 861-3200 경제부 861-3201 사회문체부 861-3202 사진부 861-3203

서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 삼보호정빌딩 801호 위150-608 전화 본부 02)780-0456 팩스 780-0356 취재부 780-0458 광고부 780-0457

광고문의 수원 031)2315-252~9 인천 032)861-3204 서울 02)780-0456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구독신청 031)2315-503

│ 풍경이 있는 에세이



유 성 호 문학평론가 한양대 국문과 교수

성취해도 전망없는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자기 개발만 강조 하는것은 '어불성설' 정부・기업, 경제 민주화와 청년실업 문제 구조적 점검과 사고전환 필요한 시점



건강한 공동체와 동기부여

한때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마시멜로 이야기' 라는 책이 있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호아킴 데 포 사다가 들려준 이 이야기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 을 위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마시멜로라는 '미국인이 즐겨 먹는, 일종의 부드러운 캔디'를 통해 풀어간다. 성공한 경영자 조나단과 그의 운전기사 찰리의 상호소통을 통한 찰리의 의식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마시멜로는 삶에서 우연하게 찾아오는 매력적이 고 치명적인 유혹들을 함의한다.

이 책은 "끊임없이 결심만 하는 삶이 결심조차 하지않는 삶보다는 희망이 있다" 혹은 "아는 것을 실천해야 힘이다" 같은 잠언적 경구들을 통해 '결 심'과 '실천'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을 제 기한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눈앞에 펼 쳐진 작은 만족과 유혹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 보상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자 세"라고 역설한다. 여기서 작은 만족과 유혹이 바 로 마시멜로인데, 그래서 성공은 더 많은 것을 성 취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 곧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생각을 참아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된다. 그것이 바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마시멜로를 먹어 치운 사람'과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은 사람'으 로 단순 분류된다. 자연스럽게 성공은 마시멜로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그렇다면 '마시멜로 이야기'에 대한 폭발적인 대중 적 반응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이 책의 키워드는



여느 처세술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공과 행복에 맞추어져 있다. 또한 성공 신화의 밑바탕에 '인내'와 '꿈'과 '실천'이 있었다는 새로울 것 없는 결 론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평범한 가설과 결론에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은 지난 시대의 스테디셀러로 등극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독자들이 성공한 사람 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재확인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성공한 사람의 권위에 위임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 만족 감이 바로 그것인데, 그 결과 "내 생각이 맞긴 맞았구 나. 그런데 나는 실천을 못했던 거로구나!" 하는 새삼 스런 각성과 자기 투사(投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가치는 방법적, 기술적 처세와는 다른, 매우 근본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데서 발생하는 보편적 공감에 있다. 저자는 누누이 "성공하는 사람은 늘 소수"라는 전언을 선사한 다. 당연히 독자들은 바로 그 소수가 되기를 욕망 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 방법으로 이처럼 인내와 꿈과 실천이 주어지고 있으니, 그 평범함과 보편성 에 독자들은 안도하고 스스로를 다잡는 것이다. 아마도 더 복잡하고도 어려운 각론적 처방이 제시 되었다면 독자들은 불편해했을 것이고 결국 이 책 을 외면했을 것이다. 삶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성 공과 행복을 향할 수 있다는 보편적 자기 개발의 서사는, 그만큼 성공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강 렬한 흡인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면과 경책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자기 개발의 계몽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불모와 폐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표들은 당사자들의 결심이나 실천으로 높여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구조적, 심층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별히 청 년 세대가 겪고 있는 미래 불안 지수는 미증유의 것 이어서, 정부나 기업 모두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그 러니 성공과 행복을 위해 인내와 꿈과 실천을 강조하 는 담론은 당사자들의 의지 부족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호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자기 성취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자기 개발의 실천만을 강 조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들의 자기 개발 의지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한 번 공동체적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의 과제나 청년 실업의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살피면서 건강한 공동 체에서의 동기부여를 받아가야 할 것이다. 마시멜로 의 유혹을 참고 견디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 체가 구현되기를 대망하면서 말이다.

│ 발언대 │

모두를 위한 배려! 금연벨의 기적



안 승 철 시흥시보건소장

예전에는 마음껏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호프 집과 PC방, 버스정류장, 공원 등이 이제는 금 연구역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노 인과 임산부, 아이들이 곁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가끔 만날 수 있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비흡연자들의 권리를 주목해야 했지 만 뚜렷한 방법이 없다.

그런 고민 속에 태어난 것이 금연벨이다. 이 아이디어는 경기도 주관 창조적 정책발표회에 서 우수상(상금 8천만원)을 수상했다.

법적 금연구역 내 흡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증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단속이 난

관에 봉착하고 민원 마찰도 늘어 사고의 전환 에서 시작된 금연벨은 비흡연자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며 호응을 얻었다.

다중집합장소인 버스승강장, 전통시장, 지하 철역 주변 등에서 담배 연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 는 순간, 누군가 누른 금연벨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멘트는 흡연자들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 어 자발적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연 장 소에 여러 개의 금연벨을 설치하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스피커의 위치를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 는 것이다. 벨을 누른 후 5~10초가 경과 한 후에 안내 멘트가 나오게 해 정확히 누가 벨을 눌렀 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등의 숨은 배려는, 적은 예산으로 시민 만족도 상승과 민원 발생 감소라 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

금연단속의 한계를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 여와 자각을 일깨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새 금연 문화인 금연벨.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긍정 적인 효과가 지속 된다면, 단속 없는 건강한 금 연문화 정착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112와 함께 피싱 금융사기 예방법



김 정 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경위

문명의 발달은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다. 인터넷 ·휴대 폰 등이 은행창구 긴 대기 줄을 없앴지만 이를 이용한 사기조직 출현도 가져왔다.

이러한 사기조직의 기법은 날로 진화, 그 악 랄함은 다양해지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여배우 위샤오판도 상하이 공안국이라고 밝힌 전화금 융사기에 속아 800만위안(14억원)을 송금했다 고 하니 그 대상은 국경, 남녀노소, 지위고하 를 가리지 않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생각지 않 은 이익을 기대하게 하는 유혹과 예기치 않은 피해를 강조하는 불안감의 틈새를 파고든다. 전자가 세금 등의 환급을 빙자하는 유형이라 면 납치를 가장하는 것이 후자일 것이다.

사람은 예기치 않은 말을 들을 경우 당황하 기 마련이다. 그러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의심과 비판의 끈을 놓게 된다. 이렇듯 보이스 피싱에 접하면 외부도움 요청은 생각 도 못하고 허둥지둥 은행 ATM기 등을 찾아 가 그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에만 전화금융 사기는 2천451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도 3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가량 늘 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과 경 찰청은 공동대응 핫라인 설치, 대포통장 근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후에는 수사에 장시간이 걸리며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등 금전적 피해 외에도 화병을 일으킬 정도의 심리적 고통 이 따르는 게 바로 전화 금융사기다. 보이스피 싱, 파밍 등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개인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동경그린전력(이하 "갑")과 주식회사 가나(이 "을")는 2015년 08월 06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을"의 소방사설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 권리와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기로 곁 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 기 바라며 각 시의 주주는 해당시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비 라와 이에 공고함.

2015년 8월 7일 "갑" 주식회사 동경그린전력

"을" 주식회사 가나 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130(상하동) 사내이사 김병문

No. of Lot

· 대지:277㎡ / 건물:489㎡

· 거품빠진 **년 수익률 19%**

임대사업의 황금밭

구미국가공단

는미3길 18-22(미산동) 대표이사 김창현

상속의 한정승인 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

난주,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4. 이장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납골당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추가로 발견된 분묘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8월 7일

공고인:김인석

묘이장전문업체 : 오송장의(010-2370-1598)

. **분묘위치**: 인천시 중구 남북동 158-3번지(임야)

6 공고기가 : 최초 공고인근 보더 3개월가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징

ł시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15. 2. 28. 피상속인 망 장영섭(590615-1**** **, 최후주소: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9번길 40-1 (상대원동))의 사망으로 상속인 장주희는 상속재산 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을 신청하였으며(2015느단588호) 2015. 7. 28일 자로 수리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피상속인 망 장영 섭과 채권관계에 있는 분들은 공고 익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아래 연락처로 채권관계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합니다.

공고인 : **장 주 희 주 소** : 서울 강북구 삼양로59길 16-1 (미아동)

2015년 8월 7일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266 뇌물공여

피 고 인 조 성 호

위 피고인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5년 8월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형사부

판사 고 종 영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1차)

당 회사는 2015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로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그 채권액을 로 회사에 간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

서기 2015년 8월 7일 경원메디케어 주식회사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1차)

당 회사는 2015년 7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5년 10월 1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 난에서 제외됩니다.

서기 2015년 8월 7일 주식회사 코모시스 정왕동, 시화공단) 청산인 김경원

종합미디어그룹





오피니언 2015년 8월 7일 금요일 13 경인일보 제21552호

| 춘추칼럼 |



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의 선거 구 획정은 항상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졸속으로 이뤄져 왔으며, 그 최종 결과는 변함없이 기존 의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 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좀 다를까 하는 기대를 약간 하게 된다.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 소가 표의 등가성 원칙을 내세우며 선거구간 최대 인구편차 기준을 3:1에서 2:1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의원들을 어 려운 정치적 상황에 빠뜨렸다. 새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 거구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농촌출신 의 원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의원 개인의 문제 만이 아니다. 인구 기준을 강조하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 그리고 도 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정치학자들 의원수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정치권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면서 과거에 비해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주었다. 그리고 단순히 선거구획정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 정수 문제 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 것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당에 따라, 또 의원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당파적 이익, 의원 개인 의 이익을 떠나서 보다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떠한 결 론에 도달하게 될까? 참여연대가 지난 6월과 7월 사이 정치학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2%가 현행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대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의원 정수를 330명 이상으 로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치학자라고 해서 개인적인 정치성 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인에 비해서 덜 당파적이 고,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국민은 놀랄 수 있다.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은 정치인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

물론 대부분이 선거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 다. 다만 정치에 대한 폭넓은 불신을 가진 상태에서 의원정수 확 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지방·농어촌 대표성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

그렇다면 왜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가? 물론 한국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은 아 니다. 오히려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선거제 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자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수확대 없이 헌재의 2:1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 정을 할 경우 지방과 농촌의 대표성 훼손이 불가피한 정치 현실 때 문이다. 만약 의원정수를 확대한다면, 이를 비례의석에 배정한 후 비례의석을 권역별 혹은 광역단체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방과 농촌의 대표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난제 해결의 열쇠는 의원정수 확대에 있다. 물 론 국민 사이에 널리 퍼진 정치불신을 감안할 때 의원정수 확대가 쉽 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한국의 정치발전과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정치권・학계・ 시민단체 · 언론이 힘을 합하여 국민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

현역의원들 희소가치・특권의식 줄어 소극적

현재 의원들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의원정수 확대에 매우 소극적 이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의원정수 확대는 기존 의원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의원 수가 확대될 수록 희소가치와 특권의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쩌면 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무기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가지 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하 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 기고 |



이 경 균 경기농림진흥재단 부장 경제학 박사

길 양쪽으로 늘어선 메타세쿼이아, 벚나무, 수양버 들, 그리고 옆에는 벼가 자라는 논과 싱싱한 채소로 가 득한 텃밭, 푸른 잔디밭…. 퇴근 후 수원 일월호수공 원의 산책로를 돌면서 만나는 것들이다. 공원은 원래 19세기 중엽 왕실 정원과 같은 개인 정원이 대중에게 개방되면서 태동한 것이다. 정원은 외부로부터의 자기 방어와 사유를 위한 위요(圍繞)공간, 채소, 과수, 약 초 등을 재배하기 위한 생산(生産)공간, 꽃과 새와 물 고기 등 자연을 감상하는 열락(悅樂)공간으로서의 기 능을 한다(황기원, 정원의 원형시론, 1987). 그러나 이 세가지 기능은 동시대에 태동한 것은 아니고, 원초적 인 기능은 작물재배인데, 19~20세기를 거쳐 열락의 기 능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기능은 약화됐다.

서설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것은, 지금까지 열락

공원의 르네상스, 도시농업공원

공간의 기능만 강조한 도시공원을 이제는 생산 기 능도 가지는 도시농업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이야기 를 하고 싶어서다. 즉 텃밭과 공원이 융합된 도시농 업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좋은 예로 일본 도쿄 의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을 들 수 있다. 이 공원은 총 면적 7만2천㎡에 논 1천200㎡, 밭 2천㎡ 등이 경 작지로, 나머지는 연못, 정원 등 공원요소들과 전통 가옥, 체험공간, 퇴비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농작 물의 씨앗과 모종은 공원내 유리온실에서 길러지 고, 퇴비 또한 공원에서 발생하는 낙엽과 가축분뇨 등을 이용해 직접 제조한다. 논과 밭에 공급하는 물 도 연못에서 끌어다 쓰고, 쓰고 난 물은 공원내를 흘러 다시 연못으로 모이는 순환구조다.

우리나라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텃밭과 공원이 융합된 도시농업공원이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다. 부천 상동호수공원내 농업공원과 일산 대화농업체 험공원을 비롯해 부평도시농업공원, 부천 여월농업 공원과 서울 강동구도시농업공원 등도 텃밭이 결합

된 대표적인 도시농업공원이다.

이밖에 추가조성이 용이한 곳으로는, 앞에서 소 개한 수원 일월호수공원을 들 수 있다. 이곳은 공원 부지(38만1천770㎡) 내의 호수(10만2천80㎡)를 중 심으로 주변에 논과 텃밭이 둘러싸고 있어, 도시농 업공원이 갖추어야 할 천혜의 환경을 갖췄다. 특히 이곳은 전체 공원부지 중 38%(호수면적 포함 14만6 천360㎡) 정도만 조성된 상태이므로, 나머지 부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투자비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많은 도시공원들은 우리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활동하는 모 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롭게 시도되는 도 시농업공원은 원래부터 공원이 가진 생산기능을 되 살려 농작물이 자라고,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 해 자연과 교감하는 공간으로 재생되고 있다. 이는 결국 도시공원 본래의 기능을 부활시키는 공원 르 네상스를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사설]

연정 2년, 성숙된 민주의회로 거듭나기 바란다

경기도의회가 연정 2년차를 맞았다. 민선 6 기를 맞아 출항한 경기도 연정은 우리 정치판 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출해 냈다. 여 야간 의 신물이 나는 정책 대립과 혼란으로 국민들 의 신뢰를 저버린 여의도의 정치판과는 달리 우리 정치사에 남을 획기적인 화합의 장을 열 었다는 평가다. 20개 정책합의 속에 시험대에 오른 경기연정은 지난 1년간 소통과 화합으 로 도정을 반듯하게 이끄는데 성공했다. 연정 2년차에 접어들어 경기도와 의회는 연정을 통 해 추진할 새로운 정책 마련을 위해 내부의견 수렴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남경필 지사의 공 약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정책을, 새정치연 합은 야당이 추천한 사회통합부지사 관할 분 야의 민생사업 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시도 1년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사 회통합부지사 제도를 신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수립 등 주요 현안에 주도권을 양도했다. 20개 정책합의 안건 가운데 생활 임금과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재정전략회 의와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등은 도정 수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 북부지역 발

전을 위한 400억원 규모의 특화발전 기금 조 성과 북부제2청에 경제실 이전 등은 연정이 이뤄낸 성과 들이다. 다만 지방장관직 신설, DMZ평화공원과 개성공단 문제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 에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시도 때도 없이 대 립을 일삼던 정치권의 일그러진 모습이 경기 도에선 1년간의 연정으로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큰 성과의 하나다.

그러나 여야간 의견차가 있는 정책과제를 나눠먹기식으로 빅딜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 던 게 사실이다. 옥에 티다. 여야는 연정 2년 차를 맞아 임시회가 있는 다음달 중순께 협의 를 통해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갈 방침 이다. 메르스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보호 자 없는 병실'확대와 학교내 복지 업무를 담 당할 '학교사회복지사'파견 등 현안정책도 협의 과제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현안 을 2년차 연정의 주요과제로 선정, 예산을 늘 리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 을 두겠다는 것이다. 도민들은 우리 정치사 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경기연정이 한층 성숙되길 기대하고 있다.

성범죄 교사 영구 퇴출, 너무도 당연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 제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해 성추행을 저지르 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 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과 남 자교사들이여교사 · 여학생을성추행 · 성희롱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 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단에 서 불미스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영구추방"이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성범죄 를 저지르고도 법원에서 가벼운 처벌만 받고 교단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여간 초·중·고 교사 240명이 성 범죄로 해임·파면·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 지만 이중 115명이 교사직을 유지하며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일부에 그쳐 솜방망 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성추행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의 초·중·고 교사는 35명에 이른다. 성폭행이나 추행은 가해자가 쉽게 자각하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다. 징계가 해

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의 한 공립학교의 경우 지난해 2월 회식 중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사가 문제가 제기되자 1년간 연가와 병가, 휴직을 이어가며 버티다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전근해 버젓이 수업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일선학교에서 성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단 특유의 비민주적이고 보수적 인 문화, 제 식구라면 무조건 감싸는 배타주 의 문화 때문이다. 여기에 교장과 간부 교사 가 인사권이나 근무성적평정 등을 무기로 여 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통제하는 권력관계는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 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불미스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학교 명예 운 운하며 덮기에 급급했던 것도 문제다.

교단의 불미스런 일은 경인지역 교단이라 고 예외는 아니다. 경기・인천교육청도 성추행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 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 상으로 저질러지는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 회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그랜드캐슬"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청 건축과-39446호(2015.08.06)로 입주자모집
- 공고 승인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79-2번지 대지면적 : 10,046.8m2

 건축연면적 : 9991,3356m2 사용검사 : 2015-안성시 건축과 주택건설사업승인-1 2015년 7월27일

 공급규모 및 내역 : 지상4층, 9개동, 도시험생활주택(단지형연립) 116세대중 111세대 및 부대・복리

■ 공급면적 및 공급대상 (도시형생활주택) (단위 : m²)									
주택형 공급 (m2) 세대수	記 전 용면 적 주	적 주거공용	주거공용 소계	7	기타 공용면 적			대지지분	
(m2)	세대수	F 2804 7768	T/100	1/1	전기,기계실	부대복리시설	소계	계약면적	네시시군
63A	11	63.2943	14.8893	78.1835	0.4526	0.3783	0.8308	79.0144	79.4530
63A-1	4	63.2943	14.8893	78.1835	0.4526	0.3783	0.8308	79.0144	79.4530
63B	47	63.0960	15.0613	78.1573	0.4524	0.3781	0.8305	78.9879	79.4264
63B-1	15	63.0960	15.0613	78.1573	0.4524	0.3781	0.8305	78.9879	79.4264
75A	3	75.0905	17.2831	92.3735	0.5347	0.4469	0.9816	93.3552	93.8734
75A-1	1	75.0905	17.2831	92.3735	0.5347	0.4469	0.9816	93.3552	93.8734
83A	23	83.3111	18.6820	101.9930	0.5904	0.4934	1.0838	103.0769	103.6491
83A-1	7	83.3111	18.6820	101.9930	0.5904	0.4934	1.0838	103.0769	103.6491

■ 공급가격 및 납부일정 (도시형생활주택) - 부기가치세는 건물분 및 토지분 모두 면세입니다. ■ 사용검사후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의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 물 표준관리규약을 참조 적용하여야 합니다.

	타입별 분양금액						
		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형	酃	대지비	건축비	합계	10%	40%	50%
	- 11-11	네시미	신국미	입계	계약시	중도금시	입주예정일
63A	11	69,932,200	99,067,800	169,000,000	16,900,000	67,600,000	84,500,000
63A-1	4	90,622,200	128,377,800	219,000,000	21,900,000	87,600,000	109,500,000
63B	47	69,932,200	99,067,800	169,000,000	16,900,000	67,600,000	84,500,000
63B-1	15	90,622,200	128,377,800	219,000,000	21,900,000	87,600,000	109,500,000
75A	3	78,208,200	110,791,800	189,000,000	18,900,000	75,600,000	94,500,000
75A-1	1	94,760,200	134,239,800	229,000,000	22,900,000	91,600,000	114,500,000
83A	23	90,622,200	128,377,800	219,000,000	21,900,000	87,600,000	109,500,000
83A-1	7	107,174,200	151,825,800	259,000,000	25,900,000	103,600,000	129,500,000

- * 상기 분양대상 도시형생활주택 116세대는 8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신청시 반드시 현장 에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금액은 분양총액 범위 내에서 당시에서 임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세대별 충별, 평
- 형별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평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세법상 등록세 통합)가 포함되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 에 대해서는 정신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외관의 통일성 및 소형주택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일괄 발코니 확
- * 중도금 및 전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 용학교에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8, 5)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 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기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합니다. * "그랜드캐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제한, 재당참제한, 청약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 및 청약일정

1 4	711
청약기간 및 장소	* 일시 : 2015년 8월 10일 (월) (11:00-15:00) * 접수장소 : 당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79-2) #2031)653-8400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 청악신청금 100만원 * 청악신청금 남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청악신청금 남부계좌(계좌번호 : 643901-01-536461 은행명 : 국민은행 예금주 : 박종숙 * 무통장 입금후 청악시간배 청악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악지도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당첨지발표 및 동호수 추첨	* 2015년 8월 11일(화) 10:00 당사 현장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79-2) ☎031)653-8400 * 동호수 결정 방법 : 당사 현장에서 추첨에 의해 층, 호수를 결정 합니다.
청약금 환불	* 당첨자 및 낙첨자 일괄환불 예정(당첨자 발표일 이후부터 환불기간내 계좌로 자동 이체) 단. 환불시 기간 이자는 발생치 않습니다.
청약금 환불 기간	* 당첨자발표일 이후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평일에 한하여 환불예정(환불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안시청시 구:	

- 0 - LON 1 - M	0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임대시업자 포함	* 청약신청서(당사현장비치), 본인 또는 배우자 인장(서명도 가능) * 본인화인증표 : 유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기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청약신청금(무통정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계최 통정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임) * 임대사업자는 시엄지등록증 추가 제출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긴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이래의 서류를 추기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당에 1통(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사)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권도정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현장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 인 (중도금대출 불가)	* 청악신청서(당사 현장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산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가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입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청악신청금(무통장임금증) * 청악신청금 한불계좌 통장사본 1부(청악신청 법인 명의)
※ 상기 제증명 서류	는 계약기준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

청약신청 접수증(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신청시 사용한 도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상기 구비사항 외에 참약자의 인감증명서(참약시참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사)이나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대리인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교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신청시 추가서류 * 청약신청 접수증(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지등록증시본, 신청시 시용한 법인인감 또는

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문의에 대해서는 대화착 오 가능성을 고려하여 응답은 하되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지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시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 계약일시 : 2015년 8월 11일(화) (11:00-16:00) 단, 청약자가 없을 경우, 바로 선착순계약 진행예정 * 계약장소 : 당사 현장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79-2 **☎**031)653-8400)
- 선착순 계약기간 및 장소
- * 계약일시 : 2015년 8월 11일(화) 이후부터 선착순 계약가능 (업무시간: 11:00~16:00) 단, 청약신청자가 없을 경우, 2015년 8월 11일(화) (11:00-16:00)부터 선착순 계약가능함 * 계약장소 : 당사 현장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79-2 **☎**031)653-8400)
- * 입주예정일: 잔금 납부일 부터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입금시 비고란에 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예 : 111호 홍길동의 경우 -> 111홍길동 *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중도금은 공급계약서 지정일)에 상기의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남부하지 아니는 뿐않대금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
- 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된 호수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신청시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임대시업자 포함	* 청악신청 접수증(영수증), 분양계약서(당사 현장 비치) * 본인 또는 배우자 인감도장, 주민동록동본 1통, 인감증명서 2(용도 : 분양계약용) * 본인화인증표 : 주민동록중(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동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 서류 추기제출 : 주민동록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분양계약금(무통작임금) * 임대시업지는 시업지등록증 추가 제출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라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이래의 서류를 추기로 구비하여야 함 - 계약지의 인건증정서 3명 (용도 : 분양계약 위인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사)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계약지의 인감근장(재외등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계약지의 인감근장(제임등포 또는 명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계약지의 인감근장(제임등포 연임 위임장 1명 (당사 현장 비치) - 대리신청지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가소신고증,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및 인장
법 인 (중도금대출 불가)	* 청악신청 접수증(영수증), 분양계약사(당사 현장 비치) * 범인(입각 및 범인(인검증명서 2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범인(등) 부동보 1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범인 대표이 사본인 신청시 주민동목증, 재외동포는 국내가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사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기준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 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제작소간 및 유의사항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합니다.
 * 주민등록증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간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연립주택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원회 등의 공항되는 소의로 환경 환경 등의 유명시험 등의로 환경권 및 사원회 등의 공항되는 소의로 환경권 등의 유명시험 등의로 환경권 및 사원회 등의 공항되는 소의로 환경 등의로 환경권 및 사원회 등의로 환경권 등의로 환경권 및 사원회 등의로 환경권 등의로 유럽 유럽 등의로 유럽 유럽 등의로 유럽 유럽 등의로 유럽
- 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본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 다. * 임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진금완날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 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근 신급 파면 도본 및 단시 커무리 증가증시 등으로 한번 소금 및 건등이 흥성을 구 처합니다.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기타공용부,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부지내 설치되는 공유시설물(발코니, 공개공지 등)에 근접한 세대는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일부실은 실외기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발생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현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사
- 부광건설 대표 : 박종숙 외 1인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46번길 38, 2층 등록번호 : 인천-주택 2014-0070

-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 04-496
- 다숲건설 대표 : 김명희 등록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월곳중앙로 70번길 3, 5층 5051호
- 설계사 비봉건축 대표 : 육용근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331, 2층
- 등록번호 : 경기도 건축사 시무소 2586 * 감리금액 : 육천민원정(6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감리 비봉거축 대표 : 육용근

단 한번 이긴 여자… 단 한번 패한 남자

<북한전 6승7무1패>



한국 남녀 축구 가동아시아축구연 맹(EAFF) 축구선 수권대회(이하 동 아시안컵)에서사상 첫 동반 우승을 노

린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 은 8일 북한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2005년 한국에서 열렸던 제1회 대회 이후 10년 만 의 우승에 도전한다. 또 슈틸리케호는 9 일 북한을 상대로 2008년 중국 대회 이후 7년 만에 다시 중국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 릴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우승하면 동아 시안컵 통산 3번째다. 특히 한국 남녀 축 구가 함께 우승하면 동아시안컵에선 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가 동시에 2개의 트로피 를 가져오게 된다.

■태극낭자, 북한 꺾어야 우승

윤덕여호는 8일 오후 6시10분(한국시 간)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북한과 우승컵을 다툰다. 이 경기는 사실

동아시안컵 막판은 남북대결

8·9일 차례로 출격 '사실상 결승' 남자축구 비길땐 중일전에 달려

상의 결승전과 다름없다.

이번 대회는 4개팀이 풀리그로 우승팀 을 가린다. 그러나 남은 1경기를 남겨놓 은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은 각각 2승씩을 챙겼다.

한국은 지난 1일 중국을 1-0으로 격파 하고, 4일 2차전 상대인 일본마저 2-1 역 전승을 거두며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4-2, 중국을 3-2로 꺾 은 북한 여자대표팀에 골득실에서 밀려 2 위를 마크 중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해선 북한 을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 비길 경우 우승 컵은 북한이 된다.

객관적인 전력에선 북한이 다소 앞선

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북한 (8위)은 한국(17위)보다 9계단이 높다. 역 대 전적에선 한국이 1승1무13패로 열세 다. 게다가 한국 여자축구는 2005년 동아 시안컵에서 1-0으로 승리한 후 10년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지난해 인천 아시 안게임에선 준결승에서 1-2로 졌다.

그러나 태극 낭자들은 이번 대회 중국 과 일본을 연파하면서 사기가 높아진 데 다 북한도 잡겠다고 벼르고 있어, 또 한 번의 이변을 예고하고 있다.

■태극전사 우승 자신

슈틸리케호는 9일 오후 6시10분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북한과 마지막 경기 를 벌인다. 북한과의 A매치는 2009년 4월 서울에서 열렸던 FIFA 남아공 월드컵 최 종 예선 이후 6년 4개월만이다. 슈틸리케 호는 1차전에서 중국을 2-0으로, 2차전 에서 일본과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1위 를 달리고 있다. 북한은 일본에 2-1 역전 승을 거뒀으나, 중국에 0-2로 덜미가 잡 혀 3위로 내려앉았다.

따라서 슈틸리케호가 북한을 이기면다 른 팀의 경기에 상관없이 통산 3번째 우승

을 확정 짓는다. 무승부를 기록하면 뒤이 어 열리는 중국-일본전의 결과를 기다려 야 한다. 패할 경우 우승은 어렵다.

FIFA랭킹은 이번 달 현재 한국(54위)이 북한(124위)보다 높고, 역대 전적에서도 6승7무1패로 앞서 있다. 한국은 1990년 10월 평양에서 열렸던 친선경기에서 1-2 로 패한 후 한 번도 북한에 지지 않았다. 태극 전사들은 일본과 비기면서 3전 전승 의 우승은 물거품이 됐지만, 북한을 반드 시 잡고 자력으로 우승하겠다는 의지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한국랭킹 역주행 '일본은 제쳐' 54위 2계단 하락… AFC선 2위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 킹 순위에서 6개월만에 일본을 제쳤다. 아 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가운데 랭킹

2위다. FIFA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 표한 이달 랭킹에서 한국은 랭킹 포인트 599점으로 일본(595점·56위)을 제치고 54위를 기록했다. 지난 2월 한국은 랭킹 54위로 일본(55위)를 앞섰지만, 이후 지난 달까지 일본에 순위에서 밀렸다.

다만 한국 순위는 지난달의 52위보다

두 계단 내려간 것이다. AFC 가맹국 중에 선 이란이 4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했고 한국, 일본, 호주(61위)가 그 뒤를

동아시안컵 3차전에서 한국과 맞붙을 북한은 124위를 마크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슈퍼맨이 된 다이버 6일(한국시간) 러시아 카잔의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27m 하이 다이빙 결승전에서 체코의 마이클 나브라틸이 멋진 자세로 다이빙하고 있다.

/AP=얜 뉴스



/수원 삼성 제공

매탄중, 6연속 '우승 드리블'

추계중등축구연맹전 2연패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수원 삼성 U-15팀인 매탄중이 제51회 추계중등축구연맹전 1학년부에서 대 회 2연패를 달성했다. 주승진 감독이 이끄는 매탄중은 6일 제천 축구센터에 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김 포 통진중을 3-0으로 대파하며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대회 2연패를 거머쥔 매탄중은 참가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신기록도 달성했다. 매탄 중은 지난해 오룡기 우승을 시작으로 2014 추계연맹전, 2015 춘계연맹전 프 로산하 그룹, 춘계 연맹전 왕중왕전,

소년체전에 이어 이번 2015 추계 연맹 전까지 참가하는 대회마다 모두 정상 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날 결승에서 매탄중은 전반 6분 손승우의 프리킥 골을 시작으로 전반 21분과 35분 천세윤과 고현우가 각각 추가 골을 넣어 승리를 확정 지었다.

수원삼성관계자는 "매탄중의우승 행진은 수원 삼성 축구단의 유소년 육 성에 대한 체계적 투자와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면서 "2009년 창단한 매탄중 은 그동안 기술, 정신력, 인간미의 3대 육성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와 K 리그를 이끌어나갈 우수한 유소년 선 수들을 키워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곡선중 에이스 '가뿐한 스매싱'

장관기탁구서 인천남중 4-0 완승 올해 4번째 우승·대회 2연패 달성

여중부선 문산수억중 정상 올라

'탁구명가' 수원 곡선중이 제48회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학생종별탁 구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4개 대회를 제패했다.

곡선중은 6일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 서 막내린 대회 남중부 단체전 결승에서 인천남중을 4-0으로 제압하고 1위에 올 랐다. 이날 우승으로 곡선중은 올해 중고 종별대회, 전국종별대회, 소년체전에 이 어 시즌 4관왕에 올랐고 지난해에 이어 2 연패를 달성했다.

곡선중은 1단식에서 김홍빈이 상대 채 병욱을 3-1로 꺾은 뒤 2단식에서도 김예 능이 인천남중 안중영을 3-2로 물리쳤 다. 곡선중은 3복식에서도 송준현-김예 능이 상대 이상훈-황민을 3-0으로, 4단 식에서 송준현이 인천남중 최인혁을 3-0 으로 각각 이기고 우승기를 가져왔다.

곡선중 윤정일 코치는 "결승에서 선수



6일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서 막내린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 학생종별탁구대회 중등부 단체전에서 우승한 곡선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곡선중 제공

들이 모두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남은 대회에서도 최 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중부 단체전에선 파주 문산수억중이 결승전에서 서울 명지중을 4-2로 물리치 고 정상에 섰다.

문산수억중은 1·2단식을 모두 내줬지 만 3복식에서 김예림-유한나가 상대 최해 은-유시우를 제압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

공한 뒤, 4단식에서 위예지가 김명선을 이 겨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문산 수억중은 5복식에서 위예지-안소연이, 6 단식에서 유한나가 차례로 승리하며 우승 을 확정했다.

이밖에 남중부 개인전 결승에선 우형규 (부천 내동중)가 조기정(충남 호서중)을 3 -1(11-4 11-8 11-3)로 꺾고 금메달을 목 에 걸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SK "가을야구 가야지"

힘빠진 한화 5위서 끌어내려 KIA 무서운 상승세도 '주춤'



프로야 구 포스트 시즌 마지 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5위 자리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인천 SK 와이번스는 모처럼 상승세를 타며 한 화 이글스를 끌어내리고 5위 자리를 탈환 했다. 후반기 들어서면서 눈에 띄는 것은 삼성 라이온즈가 단독 선두 체제를 구축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뒤를 NC 다 이노스, 넥센 히어로즈, 두산 베어스가 뒤쫓으며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해 마다 그렇듯 이맘때가 되면 최고 관심사 는 포스트 시즌 막차를 누가 타느냐다.

현재 SK와 한화, KIA 타이거즈가 마 지막 와일드카드를 손에 쥐기 위해 치열 한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SK는 최 근 안방으로 불러들인 한화를 상대로 2연 승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순 위도 5위로 올라섰다.

마운드의 뒷받침 속에서 '가을남자' 박 정권이 최근 10경기에서 0.371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타선도 힘을 내는 모양새다.

반면에 한화는 점점 힘에 부쳐 하는 분 위기다. KIA에 지난 주말 3연전을 모두 패한 뒤 SK에도 2연패를 당하며 버텨오던 5위 자리를 SK에 내주고 6위로 떨어졌 다. 최근 새로 영입한 뉴욕 양키스 현역 투수 에스밀 로저스의 활약 여부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이다.

후반기 들어 가장 돋보였던 팀은 KIA 다.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KI A가 후반기 시작하면서 6연승 가도를 달 렸다. 하지만 선발로 나선 에이스 양현종 이 대량 실점하는 등 마운드가 버텨주지 못하면서 넥센에 2연패를 당했다.

중위권을 형성한 이들 3개 팀은 2게임 차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펼치고 있다.

올 시즌 삼성의 독주를 막아낼 대항마 로 평가받으며 한때 선두 자리까지 올랐던 SK가 최근 연승 행진의 기세를 몰아 내친 김에 한화와 KIA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홈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건국, 50m소총 3자세 대회신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사격 기대주' 이건국(고양 주엽고)이 제41회회장기전국중·고등학생사격대회 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건국은 6일 전남종합사격장에서 열 린 대회 3일째 남고부 50m 소총 3자세 결 선에서 443.1점의 대회신(종전 442.2점)을 기록하며이재원(서울오산고·442.5점)과 윤성준(서울고·431.7점)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또 남고부 50m 소총3자세 단체 전에선 남궁호-유승석-유병욱-황재윤 이 출전한 평택 한광고가 합계 3천380점 을 획득해 인천체고와 주엽고(이상 3천 375점)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남고부 25m 속 사권총 단체전에선 이재균-양윤호-김경 환-유민상이 출전한 의정부 송현고가 합 계 1천659점으로 서울 환일고(1천679점) 에 이어 2위에 머물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주말의 경기|

7일(금)

△프로야구=넥센-두산(잠 실) LG-한화(대전) kt-KI A(광주) 롯데-NC(마산) SK-삼성(포항· 이상 18시30분)

△프로야구=KIA-NC(마 산) kt-SK(문학) LG-두산

(잠실) 롯데-한화(대전) 넥센-삼성(대구• 이상 18시) △프로축구=K리그 챌린지 수 원FC-서울E(수원) 충주-고양(충주) 부 천-안산(부천・이상 19시) 대구-안양(대 구·19시30분)

△프로야구=KIA-NC(마

산) kt-SK(문학) LG-두산 (잠실) 롯데-한화(대전) 넥센-삼성(대구· 이상 18시) △프로축구=K리그 챌린지 상 주-강원(상주・19시)

생활체육 경인일보 제21552호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스포츠의 감동, 꿈과 희망 전하다



19개 시·군 1600여명 대상 진행 kt 경기관람 야구응원문화 즐겨 안전교육 철저 해양스포츠 체험 한국민속촌서 전통놀이도 배워

여름 방학을 맞아 도생활체육회는 꿈 나무 스포츠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좀 고 프로 스포츠 관람과 해양 스포츠 체 험, 한국 민속촌 견학 등을 준비했다. 19 개 시•군에서 1천600여명의 아동 및 관계 자가 참여한 이번 이벤트는 7월 한 달 동 안 진행됐다.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예 술·체육 활동에 소외된 사회배려계층 아 동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방학 중 즐거 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면서 "앞으로 꿈나무 스포츠학교와 같은 스포츠복지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꿈나 무들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수원 케이티위즈 파크 관람 = 7월 1 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스포츠 이벤트 처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벤트를 구상했 는 수원에 연고를 두고 있는 kt wiz의 홈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었다. 수원 등 9개 시·군 800여명이 참가해 kt의 승리를 함 께 외쳤다. 이러한 프로스포츠 관람 이벤 트의 추구가치는 '건강'이다. 경기 결과 또는 과정이 주는 감동을 넘어서 스포츠 행사를 총괄한 도생활체육회 강병국 가 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도내 청소년에 게 전달함으로써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코자 한 것이다. 이날 아이들은 승패를 떠나서 함 께 kt를 응원을 하면서 야구 응원 문화를 배웠고, 전광판에 kt wiz를 응원하는 문 구를 전송하면서 즐거워했다.

■ 해양스포츠 체험 = 7월 25일 화성시 전곡항에선 2차 스포츠 이벤트가 진행됐 다. 가평, 청평, 주소망, 설악지역 아동센 터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 교육 및 펀보트, 페달 보트, 레프팅, 카약, 크루저 요트 체험을 진행해 참가 아동 및 지도자 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 체험의 가장 큰 목적은 '안전'이었다. 쉽게 접하기 힘 든 해양 스포츠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추억이 됐지만 본격적인 체험에 앞 서 진행된 해상 안전 교육, 구명조끼 착용 법, 비상탈출 절차 훈련 등을 배우는 아이

사뭇 진지했다.

■ 한국민속촌 견학 = 1일 열린 한국 민속촌의 견학 인기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민속촌에 방문한 750여명의 아이들은 오랜 시간 전승돼 온 고유의 생 활풍속 및 놀이체험과 마상마술 공연 관 람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생 활체육회 관계자는 "우리 선조들은 각종 무예나 놀이를 통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전인양성에도 힘썼 다"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예 로부터 전해지는 신체활동의 역사와 가 치를 스스로 깨닫게 해 스포츠와 삶이 톱 니바퀴처럼 함께하는 문화라는 것을 전 달하고자 민속촌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기도생활체육회 대학자원봉사단이 7일 가평역에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벌인다. 사진은 한경대 자원봉사단 학생들. /경기도생활체육회 제공

대학봉사단 안전사고 예방・뉴스포츠 알리기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대학자원봉사단(SP OLIGHT)이 가평역에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6일 도생활체육회에 따르면 한경대 소 속 대학자원봉사단 10명은 7일 여름철 인 기 휴양지인 가평의 역을 찾아 물놀이 안 전사고 예방과 평생건강 보급을 위한 '생 활체육 7330 캠페인 및 뉴스포츠 체험'이 벤트를 개최한다.

또 간단한 체조 시범은 물론 플라잉 디 스크 등 스포츠박스의 뉴스포츠 미션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홍보활동은 성공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해 SPOLIGHT 단원 대학생들 이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기획했다 는 점이 특징이다.

송준섭 한경대 SPOLIGHT 팀장은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를 위한 다양하고 쉬운 체조를 전파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 론 나아가 실생활의 모든 신체활동이 생 활체육임을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 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열정과 재 능기부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생활체육회 제공

청소년과 함께 야영체험 '오리엔티어링캠프'

인천시생활체육회

인천시생활체육회(회장・이인철)는 강 화군 국화리 학생야영장에서 '2015 생활 체육안전교실 오리엔티어링캠프'를 성황 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까지 1박2일 간 진행된 이번 캠 했다. 프에는 가좌여자중학교, 강화여자중학 교, 화도진중학교 학생과 교사 100여 명 이 참가했다. 오리엔티어링이란 지도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활 동으로 빠른 지도 해석력과 판단력, 체력 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조를 이뤄 야영생 활을 체험했다. 특히 지도 보는 방법과 나 침반 사용법 등을 익힌 후 인근 산과 들에 서 오리엔티어링을 체험하며 인내력과 협 동심을 길렀다. 또 강화소방서에서 재난 대비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이인철 시생활체육회 회장은 "단체생 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체력증 진 향상에 도움이 됐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생 활체육 사업을 더 다양하게 개발하겠다" 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가.

마당 깊은 집 '한줄기 선율'

여주 해평윤씨 동강공파 종가서 오늘 음악회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 가치도 함께 느껴볼 수 있다. 터는 올해 '경기민속문화의 해' 를 맞아 7일 오후 7시 여주 해평 윤씨 동강공파 종가에서 '한 여 계종가, 광명 오리종가, 용인 름 밤의 고택 마당음악회' 공연 을 개최한다.

은 조선 고종 28년(1891)에 지어 져 1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 이다. 안방과 대청마루가 나란 통해 조선 후기 시대상을 고스 히 놓인 형태의 전형적인 조선 후기 경기 지방 가옥으로, 현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7호로 지정돼 있다.

이번 공연에는 창작악단 '해 라고 밝혔다. 조음'이 참여한다. 다양한 악기 를 활용해 침향무·아리랑 블루 스·판소리 흥부가 등을 선보이 며, 전통·현대 음악을 함께 아우 를 예정이다. 신명 나는 공연은 물론, 경기 종가의 존재 의미와

경기학연구센터는 이번 행사 외에도 안산 경성당, 의정부 서 해주 오씨종가 등 경기지역 전 통 종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 공연 장소인 해평윤씨 종택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란히 간직한 곳에서 종부와 종 손을 만나 집안의 역사 이야기 도 듣고, 음악회도 즐길 수 있 어 일석이조의 경험이 될 것"이

이번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현장에 '문화이음' 기부금 모음 통이 운영, 관람객들의 자발적 인 기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문 의 : (031)231-8579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종

황톳빛 생활의 지혜를 담다

기는 예로부터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 는 귀한 도구였다. 선조들은 채소나 장 (醬)을 저장·보관하는 그릇으로 옹기를 사 용했으며, 자체 정화기능 덕분에 옹기는 집집마다 물 저장고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옹기는 우리 민족의 생활 속 지혜가 집약돼 만들어진 산물이다.

부천옹기박물관은 과학과 옹기의 만남을 다룬 '우리그릇 옹기이야기' 기획전을 오는 10월 31일까 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부천시 박물관에서 진행 하는, 교육과 박물관의 융합 'Ede+museum' 시리 즈의 일환으로 열린다.

부천옹기박물관 석달간 기획전

지역 채굴장소 표기 '황토지도' 공개 '옹기유' 개발 영상으로 우수성 확인 도예연구소서 직접 과정 체험기회도





/부천옹기박물관 제공

부천 지역 내 옹기의 원료가 되는 황토가 출토된 장소를 모아 만든 황토지도와 전시실에 배치된 옹기.

경인일보의 함께하는 경인항공 여행사 휴가철 골프여행의 끝판왕!







엘리시안CC+세인트포CC 1박2일 36홀, 1인 399,000원 엘리시안CC+세인트포CC 1박2일 45홀, 1인 429,000원

출발 2015년 **8**월 **23**일(일)

왕복항공료(아시아나항공), 세인트포 60평 골프텔(4인1실), 그린피 2회, 클럽하우스 조식, 셔틀차량(2일), 발마사지(36홀고객 限)

※<mark>3팀 이상 예약시</mark> 단독 행사차량이 배정됩니다.

불포함 카트피, 캐디피, 중석식, 기사봉사료(1인 1만원)

! 정	카트피	시 간	내 용	비고
		06:50	아시아나항공 김포출발	
		08:30	미팅 및 차량탑승	
	8/23(일)	11人 ~12人	엘리시안CC 티오프	18홀
		19:00	석식 (제주시 방면)	불포함
		21:00	세인트포 골프텔 체크인	4인1실
		06:20	조식 (클럽하우스)	포함
	2일차	08시~09시	세인트포CC 티오프	18홀 또는 27홀
	2 2 시	오후	지사미벌	18홀고객
		20:30	아시아나항공 제주출발	

9 경인항공 **장일수** 팀장 **TEL.1577-5779**

옹기박물관은 장소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천주교 박해 가 가장 극심했던 병인박해 (1866년) 당시 관군의 눈을 피해 천 주교인들이 현재 박물관이 들어선 '점말'(현 부천시 여월동)지역에 들 어와 옹기를 구워 팔며 생계를 유지

이같은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이곳은 역사적 정통성을 인정받은 기, 이를 지도로 제작한 '황토지 전문 박물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는 옹기제작 방법을 관

역성과 옹기의 미래발전 가능성도

특히 올해 초 옹기박물관이 수주 도예연구소와 함께 부천 여월동에 서 채취에 성공한 적황토를 활용, 옹기 유약 '옹기유'를 선보여 주목 된다. 부천 지역 구석구석의 흙을 분석해 옹기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황토를 채굴할 수 있는 장소를 표 도'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옹기유 개발 과 람객에게 전하는 동시에 부천의 지 정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상영해 관

람객들이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시장에 마련된 '도예연 구소'라는 체험공간에서 옹기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인들의 옹기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선조들의 지혜가 배어있 는 옹기를 통해 과거 조상들의 생 활상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2)668-9057~8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얼음창고의 문화공간 변신 '빙고!'

인천 아카이브 카페 빙고 형태 보존 리모델링 '정성' 근대 건축 전시장 활용도

방치된 옛 얼음창고가 문화 공간 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3일 오후 외국인 선원들이 주로 찾는다는 인천 중구의 한 술 집 후미진 뒷골목을 찾아갔다. 좁 은 골목을 들어서니 어두운 분위기 를 밝게 만드는 깔끔한 공간이 나 타났다. 이곳의 이름은 '인천 아카 제든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웠고, 목 이브 카페 빙고(氷庫)'.

나무로 된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 서자 이 공간의 주인장 이의중 (36)씨가 일어서 인사를 건넸다. 이 히 계획을 세워 올해 봄부터 차근차 씨는 오래전 얼음창고였다가 최근 까지일반창고로사용된이곳을경 도록황토를조금씩제거해다른재 매를 통해 인수했다고 한다.

내부를 살피니 건물 외벽 아래 쪽 은 2m 높이의 화강암 석축을 쌓고 그 위로는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모습이었고, 목조 구조물이 건물 지붕을 받들고 있는 구조였 다. 그는 "내부 공간에 기둥이 없이 벽돌과 나무로 만든 전형적인 근대 창고 양식"이라며 "낡고 오래된 건 물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현대인이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고 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 다"고 설명했다.

황토를 발라 쌓아올린 벽돌은 언 조 지붕과 기둥도 반쯤은 썩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물 상태 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꼼꼼 근 손을 봤다. 벽체가 무너지지 않 료로 채웠고, 나무 기둥과 지붕도

재료 하나하나 상태를 봐 가며 교체 하는 과정을 거쳤다.

공사가 마무리되니 골목에서 뒹 굴던 취객들의 토사물과 쓰레기도 자취를 감췄다. 인근에서 30년 가 까이 장사를 해온 유창융(59)씨는 "밤이면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과 주먹질이 오가고 때로는 칼부림도 벌어지던 골목이 이젠 일부러라도 들르고 싶은 골목이 됐다"며 흐뭇

이 공간은 카페 외에 인천 중구의 근대 건축물에 관한 전시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씨는 "개항장 일대의 오래된 건축물을 다듬어 새로운 가치를 불 어넣는 일을 이어가고 싶다"며 "건 축물과 함께한 도시의 역사와 숨겨 진 이야기를 계속 찾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폐허 공장부지 등 불친절한 도시 시각화

이아름나리 작가 개인전 30일까지 '대안공간 듬'

이아름나리 작가의 개인전 '불친 절한 주변의 노래'가 8일부터 30일 까지 인천 남구 신기시장 뒤편 '대

안공간 듬'에서 열린다. 인천에 사는 이 작가가 자신의 일 상 공간 주변을 관찰하며 도시로부

터 느낀 불친절한 감정들을 영상 등

으로 시각화했다.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공사 현장 혹은 폐허로 변해버린 공장 부지 등 도시의 변화 를 목격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욕망 ·천박함·돈 등 우리가 인식하지 못 한 채 사라지는 가치에 주목했다.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모아 밧줄 을 형상화 한 설치 작품을 비롯해 공사 현장의 모습 등을 기록해 만든 짧은 영상물 등을 만날 수 있다.

대안공간 듬(인천시 남구 주승로



이동하는 건설의 전설, 싱글 채널 비디 오, 3min 40sec, 2015

69번길 22, 월요일 휴관). 문의 : (032)259 - 1311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바다·섬·숲·계곡··· 쉼표 하나, 추억 둘

있다. 각기 다른 매력의 바다, 섬, 숲, 계곡을 지니고 있는 여수, 강진, 영암, 광양에서 여름 추억을 쌓아보자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축제로 흥겨운 여수 바다

바다의 도시 여수가 축제로 들썩인다. 여름바다의 낭만이 가득한 축제의 현장이 기다린다. 12일 여수세계박람회 3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마당이 펼쳐진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내 특설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진 행되고 화려한 BIG-O쇼가 여수 밤하늘 을 물들인다. 3주년을 맞아 레이저쇼를 무 료로 관람할 수 있다.

12일부터 17일까지 우아하게 돛을 늘어 뜨린 범선이 여수항을 가득 채운다. 홀수 해마다 개최되는 여수국제범선축제의 4번 째 잔치가 벌어진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범선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외국 승무 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감 넘치는 현장이 마련된다. 여수세계박람 회장 일원과 소호요트경기장에서 제10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린다. 요트・핀 수영・카누・트라이애슬론 등 정식 종목과 바다수영 번외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또한 세계청소년들의 흥겨움도 여수를 움직인다. 14일부터 16일까지 2015여수국 제청소년축제가 이어진다. 댄스경연대회, 청소년 문화공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숨 겨진 끼와 톡톡 튀는 재치를 발산하며 유 쾌한 여름 축제를 벌인다.

섬과 숲이 만나는 강진

바다 물놀이장이 없는 강진에 숲 속의 물 놀이장이 준비됐다. 울창한 편백림의 운치 들의 교육현장으로도 좋다.



영암 '기찬 묏길'.

13일부터 16일까지 해양스포츠의 박진 가 있는 초당림이 그곳이다. 강진 칠량면 명주리에 위치한 초당림은 총 960ha의 규 모로 백제약품 설립자인 김기운 회장이 50 여 년 전부터 조성한 전국 최대의 인공숲이 다. 초당림이 감춰져 있던 속살을 공개하 면서 강진의 여름 명소가 됐다. 숲길 테크 산책에 물놀이까지 더해져 여름 휴가를 즐 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오는 23일까지 운영되는 남성리 고성골 의 보은산 브이(V)-랜드 물놀이장도 숲과 계곡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물놀이장 주변으로 숲 탐방로, 백련단지 등 사계절 꽃을 감상하고 걷을 수 있는 산 물과 숲이 만나 여름 무더위를 날린다. 책로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고, 고성사와 영랑생가 등의 문화재도 접하고 있어 아이



영암 '도갑사'.

바다 산책길도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린 다. 가우도의 출렁다리와 섬둘레길을 따 라 여름 바다를 거닐어 보자. 영랑 쉼터와 복합낚시 공원 등이 가우도의 매력을 더해 준다. 청자의 고장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 다. 가우도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고려청자 박물관이 있다. 마량 놀토 수산시장도 가 우도에서 멀지 않다.

#월출산 기가 충만한 영암

월출산 자락에 자리한 기찬랜드에서 건 강한 물놀이를 즐겨보자. 맥반석 계곡에서



광양 백운산 진상면 '어치계곡'.



국제범선·세계청소년축제… 12일부터 바다의 도시 여수 '들썩'

강진 초당림・가우도 섬둘레길 같은듯 다른 '운치' 매력 영암 월출산 고즈넉한 도갑사 천연 맥반수 자연풀장서 '기' 충전 광양 백운산 4대 계곡 '신선놀음'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

흐르는 천연 맥반수가 기찬랜드의 자연형 풀장 6곳을 채우고 있다. 온 가족이 물놀 이의 즐거움, 웰빙과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휴양지다. 악성 김창조 선생을 기 리는 가야금 테마파크도 이용할 수 있다.

월출산의 기를 받으며 걷는 산책길도 좋 다. 기가 가득 찬 산길이라는 뜻의 '기찬 묏길'. 지상의 기(氣)를 모아 하늘로 솟구 치는 형국의 월출산 기슭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 속에서 월출 산의4기(영기·정기·생기·활기)를 느낄 수 있는 건강길이다. 월출산 천황서 주차장에 서 시작해 왕인박사 유적지와 미암에 이르 는 100리 길에서 '4기'를 충전하자.

고즈넉한 산사의 산책도 좋다. 호랑이 가 앞발을 들고 포효하는 형상의 산자락

아래 도갑사가 자리하고 있다. 해탈문(국 보 제50호)과 마애여래좌상(국보 제144 호),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9호), 5층 석 탑(보물 제1433호) 등이 있는 유서 깊은 고 찰이다. 도갑사를 둘러본 후 월출산을 등 반하는 1박 2일 코스도 좋다.

#숲 속의 힐링이 있는 광양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진 백운산 계곡에서 여름을 즐겨보자. 특유의 풍광 을 지닌 4대 계곡이 백운산 곳곳에 숨겨져 있다.

다압면 금천리에 위치한 금천계곡은 선 녀가 내려와 베를 짰다는 옥녀봉에서 발원 해 흐른다. 때묻지 않은 자연이 숨 쉬는 금 천계곡은 섬진강의 절경과 조화를 이루며 멋진 풍광을 선물한다. 옥룡면 동곡리에 위치한 동곡계곡은 광양읍 동천을 거쳐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백운산 계곡 중 가장 크고 길다. 교통이 편리하고 폭이 넓어 가족 단위 피서지로 인기가 높다.

도솔봉과 형제봉 사이에서 시작된 성불 계곡은 조령리의 성불교에서 성불사 위쪽 까지 약 2km. 4대 계곡 중 가장 아담하며, 기암괴석과 수려한 삼림 사이로 평평한 바 위들이 자리한다. 진상면 어치리에 위치한 어치계곡은 울창한 원시림 사이에 위치했 다. 맑은 물길을 따라 쉬어갈 수 있는 크고 작은 바위가 있다.

느긋하게 어머니의 품 같은 백운산을 만나고 싶다면 백운산 자연 휴양림에서 하 루를 보내보자. 삼나무·편백 등의 인공림 과 천연림이 아름드리 펼쳐져 있는 곳에서 느긋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광주일보/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8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영화&맛집 제21552호 경인일보

겉모습 너머 내면까지 당신, 사랑하고있나요

뷰티인사이드

감독 : 백감독

출연배우: 한효주, 박서준, 이범수, 김주혁, 이진욱, 유연석, 김대명, 우에노 주리 개봉일: 8월 20일

126분/12세 관람가/판타지 로맨스



"사실…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 꼭 그쪽이랑 밥 먹고 싶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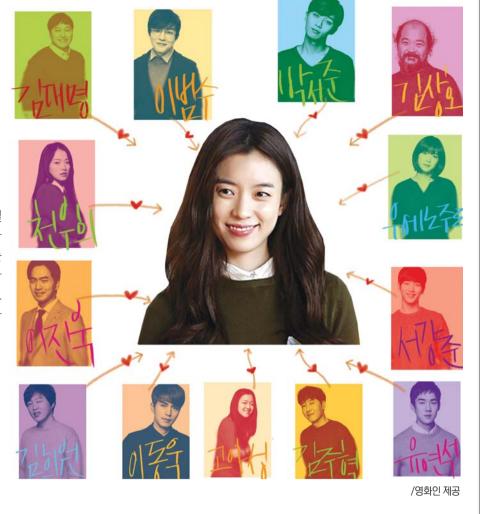
우진(박서준)은 가구점 매니저 이수(한 효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다. 사실 우진 은 오랫동안 이수를 지켜봤다. 하지만 이 수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우진은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뷰티인사이드'는 사춘기 18살부터 성

별과 나이는 물론 인종까지 넘어서며 매일 다른 모습으로 사는 우진이 이수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 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상대방의 겉모 습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숨겨진 내면까 지도 사랑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개성파 배우 21명이 1인역 성별·나이·인종까지 초월 매일 달라지는 얼굴 '독특' 영상미·대사 관객 큰 울림

영화는 독특한 주인공을 설정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극을 이끄는 주인공의 목소리는 하나지만, 스크린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무려 123명이다. 매일 얼굴이 달라지는 우진 역은 박서준·천우희·유연석·도지한 등 떠오르는 스타부터 김주혁·이범수·김상호·김희원등충무로 개성파 배우 등 21명이 맡았다.



이 밖에도 123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영화 스태프들은 물론 출연 배우들이속한 매니지먼트 대표까지 출연했다는 후

CF와 뮤직비디오 쪽에서 능력을 인정 받은 백성열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기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감각적인 색감과 앵글 구도를 선보였다. 마치 완성도 높은 한 편의 광고를 보는 듯하다.

배우들의 개성과 영상미 외에 관객들의 가슴에 와 닿는 대사가 인상적이다. 우진 의 '인터넷으로 모든 게 가능한 세상에서 얼굴 없이 사는 게 편하니까…'라는 대사 는 현대사회의 메마른 인간 관계를 보여 주며, 관객에게 큰 울림을 준다.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수원 중동 '청기와'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캬~ 무더위 뚝!

여름 계절메뉴 '맛조개전골' 이열치열 인기 통통·달콤 벌교산 고집… 씹는 재미도 쏠쏠

맛조개전골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더라는 입소문을 듣고 간 청기와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의 황토색 대문이 달린, 영락없는 가정집이다. 대문 위에 파란색 간판이 있긴 한데, 간판을 보고도 여기가 식당이 맞나 싶다. 그야말로 숨어있는 맛집인데, 골목으로 흘러나오는 음식냄새를 맡다보면 어떻게 숨어있었나 싶기도 하다.

맛조개전골은 여름 한 철만 판매하는 계절메뉴다. 연 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요즘, 얼음 동동 뜬 음식을 먹 어도 시원찮겠지만, 맛조개전골 맛을 알게 되면 전골 끓 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린다.

청기와에서 쓰는 맛조개는 벌교에서 온다. 가까운 서 단골손님들과의 정도 듬뿍 들었다.

해 갯벌에서도 맛조개가 나지만 운임비를 더 들여가면서 도 굳이 멀리서 가져오는 이유는 벌교 산 맛조개가 살이 더 통통하고 달기 때문이다.

맛조개전골은 지난해 부터 팔기 시작한 신상(?)인데, 요즘 청기와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이걸 찾는다. 뜨 끈하고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여름 더위를 잊 게 해준다. 푸짐하게 든 맛조개를 씹는 재미도 있다. 지 금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며 부지런히 다니는 손님들이 많다.

청기와의 대표메뉴는 재래식 두부와 생태찌개, 병어 조림이다. 담백한 두부와 진하게 우려내는 찌개 맛은 28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이순영(44) 사장의 아버지가 친구네 집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일흔 다섯의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손님들에게 내는 음식과 반찬을 만든다. 세월따라 손맛이 깊어갔고 단골손님들과의 정도 듬뿍 들었다.



동네사람들이 단골이라 음식값도 저렴하다. 두부부침, 생두부가 5천원이고, 두부찌개 백반이 6천원이다. 생태찌개 백반이 1만원이고, 가장 비싼 메뉴가 병어조림인데, 대(大)자가 4만5천원이다.

이 사장은 "대부분 손님들이 오랜된 단골이라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면 손님들한테 혼난다"며 "단골장사라홍보나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으니 저렴하게 판매하고

겨울철 메뉴로는 굴전이 있다. 빈대떡과 맛전도 별미다. 수원시 팔달구 중동 59-2. (031)253-5930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성룡에게 바치는 오마주 '베테랑'

유난히 정의로워서가 아니다. 특별히 사명감이 투철한 것도 아니다. 그저 쪽팔 리게 살지는 말자는 게 그의 지론이다. 돈 도 빽도 없고 겁도 나지만 죄짓는 놈이 싫 다. 그게 철없는 재벌 2세라면 더욱 그렇 다. '돈이 없는 것이지 가오가 없냐'며 호 기를 부릴 때, 그가 말하는 '가오'는 그럴 듯하게 폼 잡는 것이 아니다. 도리나 염치 로 바꾸어 말해도 좋을 어떤 것이다. 결 국, 돈이 있어도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와 염치가 없는 이들에 대한 질책인 것이다.

류승완만의 '폴리스 스토리' 완성 호쾌함 뒤에 평면적 인물 아쉬워

액션 감독 류승완이 '베를린(2012)'이후 3년 만에 호쾌한 액션·오락영화를 들고 돌아왔다. 벌써부터 류승완 액션의 완성이라는 찬사가 들려온다. '부당거래 (2010)'의 무거움은 버리고 스토리는 심플해졌다. 액션은 더욱 세련 돼 졌다. 데뷔당시 한 인터뷰에서 류승완 감독은 가장존경하는 감독이 성룡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폴리스 스토리'를 최고작으로 꼽았다. 그는 15년 만에 자신만의 '폴리스 스토리'를 만든 셈이다.

그런데 '베테랑'의 호쾌함 뒤에는 아쉬 움이 남는다. 류승완은 성룡이 아니기 때 무이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2000)'를 데뷔 작으로 들고 나왔을 때부터, 그는 성룡이 만들어내는 한없는 낙천성을 지닌 평면적 영웅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액 션에는 냉소가 도사리고 통쾌함 뒤에는 연민 어린 응시가 있다. 일방적이기만 한 절대 악은 없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빚어 지는 갈등의 소산물이다.

그러나 '베테랑'의 인물들은 지나치 게 단순화되면서 고민도 내적 갈등도 없 이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인물들로 가득 하다

망나니 재벌 2세 조태오(유아인)는 그냥 나쁜 놈이며, 형사 서도철(황정민)은 그냥 정의롭다. 최상무(유해진)는 응어리와 욕망으로 이글거리지만 끝내 표출되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그래야만 할것 같은 자리에 모범적으로 놓여 있다. 그렇게 영웅이만들어지고 정의구현이라는 환상이 완성된다. 조태오라는 절대 악의 설정은 돈을 매개로 한 부도덕한 관계의 구조적 모순을 건드릴 여지를 남기지않고 그것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버린다.

'베테랑'은 분명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오락영화다. 그러나 류승완 표라는 딱지를 붙이기에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영화평론가

록그룹 비치보이스, 격정적 인생속으로

영화공간 주안 '러브…' 내일 상영

'영화공간 주안'은 8일 오후 4시 영화를 보고 전문가와 관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제28회 사이코시네마 인천' 행사를 개최한다.

상영작은 빌 포래드 감독의 '러브 앤 머시'로, 록그룹 비치보이스 리더인 브라이 언 윌슨의 천재적 음악성과 그의 격정적 인생을 다룬다. 1960년대와 1980년대를

오가는 독특한 구성에 할리우드 개성파 배우 폴 다노, 연기파 배우 존 쿠삭 등 2명이 2인 1역으로 주인공 브라이언 연기를 펼친다. 비치보이스의 주옥같은 명곡들이 관객의 귀를 사로잡으며 옛 향수를 자극한다. 특히 폴 다노는 화려했던 시절의 브라이언을 연기하며, 자신의 육성으로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다. 관람료 8천원. 문의: (032)427-6777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www.maxmovie.com

맥스무비 영화예매 순위

<mark>1</mark> 베테랑	<mark>2</mark> 암살	<mark>3</mark>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4 미니언즈	5 인사이드 아웃	6 명탐정 코난
예매율 27.80%	-11 112 2 10 10 /0	예매율 23.71%	예매율 9.72%	예매율 7.84%	예매율 4. 76%
평점 ★★★★★		평점 ★★★★☆	평점 ★★★★☆	평점 ★★★★★	평점 ★★★★★





바로, 레이디제인에 "딱 내 스타일"

■MBC '세바퀴-친구찾기' (7일 오후 10시)

7일 방송되는 MBC '세바퀴-친구찾기'에서는 변정수・원기준・이철민・고은미・진예솔・한이서・바 로 · 은정 · 조세호 · 레이디제인이 출연해 화끈한 토 크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바로는 프로그램 내 호 감도 조사에서 레이디제인을 꼽았다. 그는 그녀에 게 "오래전부터 레이디제인 누나를 좋아했다. 내 스타일이다"라고 고백한다. 또 바로는 앞으로 홍 진호와 함께 섭외가 들어오면 피하겠다고 말하는 레이디제인에게 "앞으로 저랑 같이해요"라며 저돌 적인 연하남의 모습을 보여 여심을 뒤흔든다.

진행을 맡은 신동엽은 레이디제인에게 홍진호 와 바로 중 한 사람을 꼽으라고 말해 레이디제인을 고민에 빠뜨린다.



리키김, 태오 식탐 잠재울 묘책은…

■SBS 오! 마이 베이비(8일 오후 5시)

생감자부터 장어까지 온갖 먹거리를 섭렵하며 남다른 먹성을 보여주었던 태오가 이번엔 신맛 아 이스크림에 호되게 골탕 먹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먹을 것이라면 생식도 마다치 않는 태오의 식탐 이 커지는 가운데 아빠 리키김도 걱정이 커져간다.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나누길 거부하는 태오 를 보며 아빠는 아주 특별한 훈육을 계획했고, 결 국 양보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태오의 아이스크림에 신맛이 나는 비타민 가루를 뿌린다.

혼자 욕심부리면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절대 달콤 하지 않다는 아빠의 깊은 뜻이 담긴 묘책.



1944년 8월, 미얀마에서 포로로 잡힌 위안부들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발견된다. 일본군이 패전하고 퇴각한 뒤 숲 속에 버려진 위안부들이 연 합군에 의해 발견됐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가 처 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진 순간이다.

2차 대전 당시 버마는 격전지로 일본군 사이에서 는 '버마 지옥'으로 불릴 정도였다. 위안부들에게 는 더 혹독한 고통의 현장이다.

KBS 탐사보도팀은 태국에서 미얀마, 중국 윈난 성까지 2차 대전 당시 '버마 전선' 3개국 현지 취재

를 통해 사진 속 위안부들의 실체를 추적했다.

K B S 1	KBS2	МВС	SBS	OBS	채 널 A	■ EBS/종합편성채널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한국인의 밥상	6:00 2TV 아침	5:00 MBC 뉴스 5:10 오늘 플러스	5:00 SBS 5뉴스 5:10 굿모닝 510	6:00 와이드 Asia (재) 6:50 TV 주치의 (재)	5:00 관찰카메라 24시간 (재) 6:00 채널A 시청자 마당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6:00 MBC 뉴스투데이 7:50 (劇) 이브의 사랑	-특별한 오늘 6:00 모닝와이드-1, 2, 3부	7:05 독특한 연예뉴스 (재) 7:45 OBS 뉴스 745	7:00 굿모닝 A	7:00 부릉! 부릉! 브루미즈
8:25 아침마당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8:30 아침연속극	8:15 팔도 食客(식객)	8: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8: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9:30 KBS 뉴스	9:00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9:40 나를 돌아봐	9:30 MBC 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어머님은 내며느리> 9:10 좋은 아침	8:45 미디어 공감 좋은 TV 9:45 OBS 뉴스 945	9: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	11:20 하나뿐인 지구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40 지구촌 뉴스	11:00 MBC 파워매거진	10:00 SBS 뉴스	10:05 드라마 극장	10:20 시사 인사이드	12:00 EBS 정오뉴스 10 문화유산 코리아
10:55 별별가족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11:00 우리동네 예체능 (재)		10:30 SBS 생활경제 11:30 여름방학특집 애니왕국	<유나의 거리> (재) 11:15 Music & Movie	11:40 채널A 뉴스 특보	13:40 한국사 시간여행
11:55 바른말 고운말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15:00 드래곤 길들이기 30 허풍선이 과학쇼
12:00 KBS뉴스 12	12:2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12:00 MBC 정오뉴스	12:00 SBS 12 뉴스	12:05 아웃도어클럽	1:50 뉴스 특급	16:45 랄랄라 빠삐에
1:00 역사저널 그날 (재) 1:50 별별가족 (재)	키친 스페셜 1:30 영상앨범 산 (재)	12:2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15 2016 리우올림픽 비치발리볼	12:50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	<풍찬노숙> 1:05 꿈꾸는 U (재)		17:10 헬로! 코코몽 2 18:05 이얍! 스페이스 정글
1: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2:00 열린채널	2:00 KBS 뉴스타임	아시아예선 2차전 2:30 똑? 똑! 키즈스쿨	 2:00 열린TV 시청자 세상	2:05 행복 부동산 연구소	3:00 직언직설	19:0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50 장수의 비밀
2:30 행복한 지도 (재) 3:00 광복 70년 국민대합창	2:10 (NBS 뉴프리늄 2:10 인간극장 스페셜 2:50 생활의 발견 (재)	3:00 MBC 뉴스 3:10 여름방학특집 마법천자문	3:00 SBS 뉴스 3:10 특집 SBS 컬처클럽	2:35 OBS 애니월드 2:45 OBS뉴스 245	3.00 -0-12	20:50 하나뿐인 지구
나는 대한민국 (재)	3:45 후토스 잃어버린 숲 (재)	스페셜 (3)	로큰롤로드 2부	3:05 꾸러기 TV		21:30 한국기행 50 명의
3:55 튼튼 생활체조		3:4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30 TV 주치의 3:45 특집 <안전 퀴즈왕 선발대화 (재)		22:45 고전영화극장
4:00 오늘의 경제	4:10 누가 누가 잘하나	4:25 (劇) 딱 너 같은 딸 (재)	4:00 SBS 애니갤러리	4:45 OBS 뉴스 & 이슈 5:45 드라마극장	4:30 쾌도난마	TV조선
4:1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재)	5:10 코파 반장의 동화수사대 (재)	5:00 MBC 이브닝 뉴스	4: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유나의 거리〉	5:50 박정훈의 뉴스 TOP 10	6:3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5:00 KBS 뉴스 5 5:20 시사진단	5:40 세상의 모든 다큐		5:00 SBS 뉴스 퍼레이드 5:30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8:00 내 몸 사용 설명서 9:00 TV 조선 뉴스 9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6:30 뮤직뱅크 7:50 (劇) 오늘부터 사랑해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劇) 위대한 조강지처	6:20 민영방송 공동기획 창업스타	6:55 휴먼로드 <360 ° 지구 한바퀴> (재)	7:10 칼데까지 가보자 (재)	10:00 김광일의 신통방통
7:00 KBS 뉴스 7 7:30 소비자 리포트		7:55 MBC 뉴스데스크	7:20 (劇) 돌아온 황금복	7:45 OBS 뉴스 M		11:20 살림 9단의 만물상 12:50 엄성섭 정혜전의
8:25 (劇) 가족을 지켜라	8:30 VJ 특공대	8:55 (劇) 딱 너 같은 딸	8:00 SBS 8뉴스	8:25 오늘의 월드뉴스	8:20 충격 실화극 싸인 (재)	뉴스를 쏘다
9:00 KBS 뉴스 9	9:30 나를 돌아봐	9:30 리얼스토리 눈	8:55 궁금한 이야기 Y	8:55 독특한 연예뉴스 9:45 오 ! 이맛이야	9:30 채널A 종합뉴스	14:40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 16:00 장성민의 시사탱크
10:00 광복 70년 특집 한국인의	10:50 2015 KBS 드라마	10:00 세바퀴	10:00 정글의 법칙	10:40 OBS 京仁 뉴스라인	10:50 채널A 스포츠 뉴스	17:30 이슈해결사 박대장
건강은 어떻게 변해 왔나 10:55 국민대합창 우리歌	스페셜	11:15 나 혼자 산다	11:25 불타는 청춘	11:05 프리미어 스포츠피싱 FLW	11:00 아내가 뿔났다	18:35 3488 오늘! 50 이것은 실화다
11:00 KBS 뉴스라인 11:40 생방송 심야토론						20:00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1: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재)	12:10 유희열의 스케치북	12:40 MBC 뉴스 24	 12:45 힐링캠프 500人 (재)	12:05 여행 로드다큐 <도시樂> (재)	 12:40 나는 몸신이다 (재)	21:30 TV조선 뉴스쇼 판 22:50 TV조선 스포츠 판
2:00 이웃집찰스 (재) 2:55 알약톡톡(재)	1:30 예띠 TV	1:0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10 MBC 특집다큐멘터리-간호사,	2:05 심야식당 (재) 3:05 스포츠 빅이벤트	12:35 폰스타 <전당포 사나 이들> (재)	2:10 관찰카메라 24시간 (재) 3:20 나는 몸신이다 특급비법 (재)	23:00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 2
3:15 KBS 스포츠 중계석		생명 최전선에 서다 2:0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5 Music & Movie (재) 1:55 인생열전 <살맛나는 세상>	3: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리얼 스토리 북	24:50 보금자리
K D O 4	K D 0 0		0.00			C FDC /조하면서 케너
K B S 1 5:00 KBS 뉴스	KBS2 6:00 국민대합창 우리歌	M B C 5:00 우리가락 우리문화	S B S 5:00 문화가중계	OBS 6:00 어영차 바다野 (재)		EBS/종합편성채널
5:10 KBS 네트워크 참TV	6:20 다큐 공감 (재)	6:00 MBC 뉴스투데이	6:00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6:50 TV 주치의 스페셜	5:50 TV주치의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남북의 창	7:10 2TV 저녁 생생정보	-1, 2부 7:30 MBC 월드 리포트	-1, 2, 3부 	7:50 OBS 애니월드 스페셜	닥터 지. 바. 고 	6:30 다문화 '사랑' 7:00 마샤와 곰
8:3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9:30 KBS 뉴스	8:20 특파원 현장보고 9:00 인간의 조건	8:00 2015 메이저리그 강정호 출전	8:40 영재발굴단 (재) 9:45 동상이몽 괜찮아 (재)	8:50 기(氣)찬 처방전 <100세 푸드> (재)	8:10 채널 A 뉴스 특보 9:30 뉴스특급	8:00 코코몽 3 30 모여라 딩동댕
9:40 걸어서 세계속으로		〈피츠버그:LA다저스〉	0.10.00.10.10.10.11	9:50 BBC 휴먼기획 <남태평양> (재)	0.00 11 = 10	9:00 로보카 폴리
 10:30 행복한 지도	10:20 영화가 좋다	11:3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10:50 접속! 무비월드	10:45 멜로다큐 <가족> (재)	10:40 구원의 밥상 (재)	10:2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1:00 세계인 스페셜 (재) 11:05 다큐공감	11:30 나를 돌아봐 (재)			11:45 OBS 뉴스 11:55 로드다큐 <만남>	11:5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	11:00 지파이터스
11:55 숨터 12:00 KBS 뉴스	12:50 개그콘서트 (재)	12:00 MBC 뉴스	12:00 SBS 뉴스	 12:50 행복 부동산 연구소	 1:20 통일준비 생활백서,	3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2:0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RB3 규드 12:10 국악 한마당 1: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12:30 1112 (11)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2:10 원화드라마 <미세스 캅> (재)	리포트	잘 살아보세 (재)	15:00 사선에서
1.00 1 시비성 시성사 네스크		1:35 수목미니시리즈 <밤을 걷는 선비> (재)	시마시스 입기(세)	1:50 OBS 시네마		<해운대를 지켜라> 17:35 한 컷의 과학
2:00 헬로카봇 2 2:15 놓지마 정신줄 2	2:25 슈퍼맨이 돌아왔다	3:40 MBC 뉴스 3:50 쇼! 음악중심	2:25 런닝맨 (재) 3:40 SBS 뉴스		2:50 아내가 뿔났다 (재)	18:40 한국기행 20:15 다문화 고부 열전
2:30 어리이야기 2 3:00 야생일기 (재)			3:50 아빠를 부탁해 (재)			20:15 다문와 고두 월전 21: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3:15 광복 70년 특집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왔나						22:35 장수의 비밀 23:05 세계의 명화
4:10 광복70년 특별기획	4:05 수목드라마	5:00 우리결혼했어요	5:00 오! 마이 베이비	4:35 와일드 블랙박스	4:20 뉴스 스테이션	
대하드라마 징비록 5:00 KBS 뉴스	<어셈블리> (재)			4:45 OBS 뉴스 4:55 여행 로드다큐 <도시樂>	5:40 쾌도난마	TV조선
5:10 청년취업프로젝트 내 일을 부탁해				5:25 아시아 TOP 5 5:55 오늘은 경인세상 (재)		5:00 낭만과 논리가 있는 토크쇼 낭만논객
6:00 동행 7:00 KBS 뉴스	6: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6:25 무한도전 7:55 MBC 뉴스데스크	6:25 놀라운 대회 스타!킹	6:45 타큐드라마 <진시황> (재)	7:00 채널A 종합뉴스	6:00 닥터의 냉장고 7:00 휴먼다큐 달콤한 인생
7:10 RB3 뉴스 7:10 다큐 공감	7:55 주말연속극 <파랑새의 집>			7:45 OBS 뉴스 M		8:00 엄마의 봄날
 8:00 광복 70년 국민대합창	9:15 연예가중계	8:45 주말드라마	8:00 SBS 8뉴스	8:10 OBS 스페셜	 8:20 독한인생 서민갑부	9:00 뉴스 토요특급 10:10 토요 신통방통
나는 대한민국 9:00 KBS 뉴스 9		<여자를 울려>	8: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9:10 전기현의 씨네뮤직	9:3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11:40 애정통일 남남북녀
9:40 광복 70년 특집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시즌 2 13:10 대찬인생
10:3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10:2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10:00 주말특별기획	10:00 특별기획	10:10 OBS 시네마	11:00 나는 몸신이다	14:40 솔깃한 연예토크 호박씨 16:10 뉴스 토요특급
11:45 콘서트 7080	11:30 인간의 조건	<여왕의 꽃> 11: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너를 사랑한 시간> 11:10 그것이 알고싶다	<식스센스>		17:30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12:45 KBS 뉴스	12:50 영화가 좋다 (재)	12:40 라디오 스타 스페셜	 12:15 심야식당	12:00 프리미어 스포츠피싱	 12:50 충격실화극 싸인 (재)	19:00 TV조선 주말 뉴스 토土 20:00 강적들
12:50 T타임	12:00 8471 84 (/41)	1:35 스포츠 매거진 2:3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15 웃음을 찾는 사람들 (재)	FLW (재)	2:20 카톡쇼 X (재) 3:20 구원의 밥상 스페셜 레시피	21:30 살림 9단의 만물상
1:20 알약톡톡 1:40 KBS 바둑왕전 3:00 아생의기		3:25 통일전망대 (재)	2:30 순간포착 스페셜 3:4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12:55 거대 건축의 비밀 (재)	아진 (전기 답장 스페셜 데시피	23:00 내 몸 사용 설명서 24:30 헬로 차이나
3:00 야생일기		4:05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여행 (재)			
KBS1	KBS2	MBC	SBS	OBS	채 널 A	■ EBS/종합편성채널
5:00 KBS 뉴스 5:05 생로병사의 비밀 (재)	6:00 야생일기 6:10 생생 정보	5:00 MBC 네트워크 특선 5:50 늘 푸른 인생	6:00 SBS 뉴스 6:10 생활의 달인 스페셜	6:00 사람, 산 (재) 6:50 OBS 초대석	4:40 나는 몸신이다 (재) 5:50 갈데까지 가보자 (재)	EBS
6:00 KBS 뉴스 6:10 글로벌정보쇼 세계인(재)	7:00 KBS 일요 뉴스타임 7:40 영상앨범 산	6:20 시간여행 그땐 그랬지 7:00 MBC 뉴스	7:2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7:00 신 대동여지도	6:30 장수의 비밀 7:0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7:05 TV회고록 울림		7: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0.00 FLOT THE	0:00 0000 710	0:40 1451101 1 1 1	8:00 뽀롱뽀롱 뽀로로
8:00 KBS 뉴스 8:10 일요진단	8:10 체인지업 도시탈출 9:00 1박 2일 (재)	8:00 해피타임! 9:15 복면가왕 스페셜	8:20 잘먹고 잘사는법 식사하셨어요?	8:00 위대한 자연 8:55 아웃도어클럽	8:10 선데이 뉴스 쇼 9:30 뉴스 특급	30 모여라 딩동댕 9:00 두다다쿵
9:00 이웃집 찰스 (재) 9:55 광복 70년 국민대합창			9:30 TV동물농장	9:55 폰스타 <전당포 사나이들> (재)		50 글로벌 가족정착기
나는 대한민국 10:55 TVA 지표명표	10:05 호바 드리틴 시즈 0	10:45 VIHISTA NATIOUS	 10:50 정글의 법칙		 10:40 두근두근 카메라	10:50 상학퀴스 11: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0:55 TV쇼 진품명품 11:55 숨 터	10:35 출발 드림팀 시즌 2 11:50 해피투게더 스페셜	10: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0.00 8근의 답식	11:45 OBS 뉴스	미.사.고 (재)	12:30 극한 직업 13:20 명의
				11:55 다큐드라마	11:50 아내가 뿔났다 (재)	14:15 일요시네마
12:00 KBS 뉴스 12:10 전국 노래자랑	1:20 청춘 FC 헝그리 일레븐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2:00 SBS 뉴스 12:10 특별기획 <너를 사랑한	12:55 리얼대탐험 1:50 OBS 시네마 (재)	1:2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살아보세 (재)	<미세스 다웃파이어> 16:45 세계의 눈
1:20 스카우트		1:15 월화특별기획 <화정>(재)	시간> (재) 1:15 드라마스페셜 <용팔이>			17:35 세계 테마 기행
			(재)			20:15 다큐 프라임 23:00 한국영화 특선
2:10 KBS걸작 다큐멘터리 3:00 세계인 스페셜 (재)	2:25 주말연속극 <파랑새의 집>(재)	3:35 MBC 뉴스 3:45 섹션TV 연예통신	3:30 SBS 뉴스 3:40 SBS 인기가요	3:45 와일드 블랙박스 3:50 휴먼로드	2:5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재)	<의형제>
3:05 아생일기 (재) 3:15 광복70년 특집 한국인의			5.40 GDO [27 7] III	<360 °지구 한바퀴>		TV 7 L
건강은 어떻게 변해 왔나						TV조선
4:1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0 KBS 뉴스	4:50 해피 선데이	4:50 일밤 - 복면가왕 - 진짜사나이	4:50 일요일이 좋다 - 아빠를 부탁해	4:45 OBS 뉴스 4:55 언더커버 보스 넥스트	4:20 뉴스 뱅크 5:40 채널A 뉴스TOP10	5:30 엄마의 봄날 6:30 살림9단의 만물상
5:10 미디어 인사이드 5:40 동물의 왕국				5:50 옴니극장 <이것이 인생> (재)		8:00 낭만과 논리가 있는 토크쇼 낭만논객
 6:00 황금의 펜타곤 3	7:55 주말연속극	7:55 MBC 뉴스데스크	6:10 일요일이 좋다	6:50 감성여행	7:00 채널A 종합뉴스	9:00 뉴스 일요특급
7:00 KBS 뉴스 7:10 도전 골든벨	<파랑새의 집>		- 런닝맨	<우리가 만난 세상> 7:45 OBS 뉴스 M		11:40 이것은 실화다 13:10 대찬인생

경인일보를 CJ헬로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안내: CJ헬로TV 데이터방송 메인 → 게임&조이 채널 → TV신문)

1:2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

8:45 주말드라미

<여자를 울려>

10:00 주말특별기획

12:05 세바퀴 스페셜

<여왕의 꽃>

11:15 시사매거진 2580 (재)

BBS/종합편성채널 **JTBC** 캐치온 빌리어즈 TV 8:20 군도 11:00 투데이 해피라이프 ':00 부릉! 부릉! 브루미즈 4:50 닥터의 승부 10:40 명량 16:00 제11회 경기도연맹회장배 6:00 시청자 의회 :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55 빅매치 한국여자3쿠션 챔피언실 :30 최고의 요리비결 7:00 미술탐험대 14:50 워킹걸(2015) 17:00 2015 잔카 세이프티배 :20 하나뿐인 지구 30 아침 & 16:45 블렌디드 3쿠션 챔피언십 :00 EBS 정오뉴스 9:10 님과 함께 시즌 2 18:50 패션왕 23:30 2015 포르토 세계3쿠션 10 문화유산 코리아 -최고의 사랑 20:50 로맨틱레시피 당구 월드컵 10:30 냉장고를 부탁해 :40 한국사 시간여행 XTM Mnet :00 드래곤 길들이기 11:50 라스트 10:00 하트어택 8:00 코드제로 14:35 뉴스 현장 30 허풍선이 과학쇼 9:00 GET IT GEAR 11:00 Mnet Music Twit :45 랄랄라 빠삐에 15:50 4시 상황실 사건반장 12:00 남자들의 동영상 랭크쇼 13:30 음담패설 :10 헬로! 코코몽 2 17:10 정치부 회의 15:30 슈퍼스타K 16:00 가제트 :05 이얍! 스페이스 정글 18:20 님과 함께 시즌 2 18:00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19:00 4가지쇼 :0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최고의 사랑 20:00 더 지니어스:게임의법칙 20:30 Live on M 50 장수의 비밀 19:40 JTBC 뉴스룸 23:00 OPEN YOUR STAGE 23:00 쇼미더머니 시즌4 :50 하나뿐인 지구 20:30 라스트 :30 한국기행 KBS 드라마 내셔널 지오그래픽 21:45 냉장고를 부탁해 11:00 그래도 푸르른 날에 9: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23:00 마녀사냥 50 명의 13:00 슈퍼맨이 돌아왔다 11:00 와일드 순간포착 (1) 2:45 고전영화극장 24:35 라스트 16:20 오늘부터 사랑해 13:00 슈퍼 스네이크 14:00 아시아의 독사 V조선 17:00 그래도 푸르른 날에 21:20 불후의 명곡2 21:00 빅데이터 마이닝 :3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5:50 열린TV 열린세상 22:40 1박2일 시즌3 22:00 프리미엄 와일드 최후의 3:00 내 몸 사용 설명서 6:50 굿모닝 MBN 24:10 해피투게더 시즌3 지상 낙원, 부탄):00 TV 조선 뉴스 9 8:00 아침의 창 MBC 드라마넷 복지TV :00 김광일의 신통방통 매일경제 9:50 민선 6기 1주년을 말하다 9:20 여자를 울려 :20 살림 9단의 만물상 9:20 뉴스파이터 12:00 이브의 사링 11:50 복지TV 뉴스 :50 엄성섭 정혜전의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5:50 다다다 우리말 퀴즈 13:20 여왕의 꽃 11:50 속풀이쇼 동치미 뉴스를 쏘다 17:20 위대한 조강지처 17:20 복지TV 뉴스 13:00 기막힌 이야기 :40 정치부장 이하원의 시사Q 19:50 WBC 전국나눔노래자랑 18:40 나 혼자 산다 :00 장성민의 시사탱크 실제상황 21:50 복지TV 뉴스 20:00 여자를 울려 :30 이슈해결사 박대장 15:30 뉴스 BIG 5 22:10 라이프 스타일 예보 23:30 위대한 조강지처 :35 3488 오늘! 16:50 뉴스 & 이슈 SBS 드라마 플러스 투니버스 50 이것은 실화다 18:10 MBN 뉴스와이드 11:50 돌아온 황금복 10:00 요괴워치 :00 정보끝판왕 황금마차 19:40 MBN뉴스 8 12: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15:00 안녕자두야 2 :30 TV조선 뉴스쇼 판 20:40 천기누설 15:2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18:00 요괴워치 :50 TV조선 스포츠 판 21:50 현장르포 특종세상 18:20 어머님은 내 며느리 20:00 막이래쇼:무작정여행딘 :00 애정통일 남남북녀 23:00 아궁이 19:10 자기야 백년손님 21:00 검정고무신4 시즌 2 24:40 천기누설 스페셜 22:00 외계인이나타났다!오노 22:00 용팔이 :50 보금자리 1:00 소나무 23:20 돌아온 황금복 23:00 명탐정코난스페셜 BBS/종합편성채널 ■케이블/위성

EBS	JTBC	캐치온
6:30 다문화 '사랑' 7:00 마샤와 곰 8:00 코코몽 3 30 모여라 딩동댕 9:00 로보카 폴리 0:20 최강전사,	스쁴설 10:15 비정상회담 11:45 냉장고를 보탄해	6:30 내심장을 8:15 톰과제리: 9:30 기술자들 12:55 정글히어! 14:20 패딩턴 17:55 더기버:기 23:00 나이트크
미니특공대 1:00 지파이터스	13:00 뉴스 현장 20 라스트	XTM
3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3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2:00 최고의 요리비결 5:00 사선에서 <해운대를 지켜라> 7:35 한 컷의 과학 3:40 한국기행 0:15 다문화 고부 열전	14:35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15:50 냉장고를 부탁해 17:10 JTBC 뉴스룸 50 2015 동아시안컵 〈한국:북한〉(여자) 20:30 라스트 21:4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9:00 겟잇기어 12:00 SNL KOF 14:00 가제트 17:00 겟잇기어 18:00 가제트 BF 20:00 겟잇기어 23:00 남자들의
0.10 101 11 21		1400 E 3151

	\0 1 · 2€/(M/I)
	MBN
=	5:00 성공다큐 최고다 40 MBN 경제플러스 6:20 엄지의 제왕
인생	7:30 휴먼다큐 사노라(8:40 MBN 뉴스와이드 10:00 아침의 창 매일경/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박씨	14:00 고수의 비법 황금: 15:30 엄지의 제왕 17:00 시사스페셜

JTBC

7:30 힐링의 품격

9:15 닥터의 승부

13:00 뉴스 현장

14:40 비정상 회문

17:10 JTBC 뉴스룸

20:30 닥터의 승부

24:00 마녀사냥

20 썰전

10:30 냉장고를 부탁해

8:30 유자식 상팔자 스페셜

11:4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6:0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50 2015 동아시안컵 남자

23:00 이규연의 스포트 라이트

1:30 2015 동아시안컵 남자

<중국:일본>

3:40 사랑하는 은동아

6:30 현장르포 특종세상

7:40 정보쇼 헤이데이

8:40 MBN 뉴스와이드

11:2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 1, 2부

14:00 속풀이쇼 동치미

15:50 아궁이

24:20 아궁이

1:20 리얼다큐 숨

2:20 스포츠 야

17:00 시사스페셜

18:20 엄지의 제왕

19:40 MBN 뉴스 8

20:30 고수의 비법 황금알

5:20 리얼다큐 숨

<한국:북한>

14:40 솔깃한 연예토크 호박씨

17:30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19:00 TV조선 주말 뉴스 일日

23:00 솔깃한 연예토크 호박씨

24:30 살림9단의 만물상

2:30 살림 9단의 만물상

1:30 보금자리

21:30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 2 21:40 천기누설

20:00 강적들

16:10 뉴스 일요특급

23:00 라스트

1:30 2015 동아시안컵

<중국: 일보>(여자)

18:20 천기누설 19:40 MBN 뉴스 8 20:30 나는 자연인이다 21:40 속풀이쇼 동치미 24:50 천기누설 스페셜 2:10 나는 사연인이나

빌리어즈 TV 8:00 2015 포르토 세계3쿠션 |:스파이퀘스트 11:00 투데이 해피라이프 로 21:30 제1회 하림배 서울당구연맹 그랑프리 오픈 캐롬3쿠션 대호 'l억전달자 23:30 제11회 경기도연맹회장비 한국여자3쿠션 챔피언실 Mnet 8:20 M morning RE 9:00 4가지쇼 10:00 하트어탁

BEST 17:30 엠카운트다운 19:10 슈퍼스타K Before & After | 동영상 랭크쇼 21:50 쇼미더머니 KBS 드라마 내셔널 지오그래픽 9: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8:00 그래도 푸르른 날에 11:20 슈퍼맨이 돌아왔다 11:00 와일드 순간포착 14:00 위키드 튜나 14:00 파랑새의 집 17:30 이것은 실화다 16:40 1박2일 시즌3 20:00 아시아 헌터 18:05 어셈블리 20:4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00 순간포착!위험한 동물들 23:00 코스모스 23:30 개그콘서트 MBC 드라마넷 복지TV

8:10 이브의 사랑

9:50 여자를 울려

20:40 무한도전

15:00 미세스캅

캐치온

9:05 상의원

15:00 나쁜이웃들

21:10 돌핀테일 2

8:15 오늘 뭐 먹지?

12:00 코미디빅리그

10:00 주말N영화

19:00 코드제로

20:00 겟잇기어

14:00 1박2일 시즌 3

18:30 파랑새의 집

19:50 개그콘서트

MBC 드라마넷

15:30 화정

14:50 아빠를 부탁해

21:10 1박2일 시즌 3

KBS 드라마

11:15 빅매치

17:40 아빠를 부탁해

19:10 너를 사랑한 시간

7:35 비행기2:소방구조대

18:55 캡틴아메리카:윈터솔저

23:00 더퍼지:거리의반란

13:00 강용석의 고소한 19

23:40 나혼자산다

11:20 어머님은 내 며느리

16:00 너의 목소리가 보여

9:50 다다다 우리말 퀴즈 11:50 복지TV 뉴스 12:30 딱 너 같은 딸 14:50 일일드라마 - 내일은 많음 15:30 밤을 걷는 선비 17:20 복지TV 뉴스 18:00 여자를 울려 17:50 TV 메디컬 케어 19:50 감성토크<청춘아> 21:50 복지TV 뉴스 SBS 드라마 플러스 투니버스 6:50 당신을 주문합니다 8:00 안녕자두야2 8:10 돌아온 황금복

9:00 막이래쇼:무작정여행딘 14:00 짱구는 못말려14 17:00 명탐정코난극장판 19:00 짱구는못말려X파일 20:00 안녕자두야2 23:1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검정고무신3

8:00 제3회 국토정중앙배

11:00 투데이 해피라이프

당구월드컵

8:10 너의 목소리가 보여

7:00 M morning

16:30 2015 잔카 세이프티배

3쿠션 챔피언십

19:00 2015 포르토 세계3쿠션

2015 전국당구선수권

빌리어즈 TV

	광복70년특집	5:05 생로병사의 비밀 (재) 6:00 KBS 뉴스 6:10 글로벌정보쇼 세계인(재) 7:05 TV회고록 울림	6:10 생생 정보 7:00 KBS 일요 뉴스타임 7:40 영상앨범 산	5:50 늘 푸른 인생 6:20 시간여행 그땐 <u>-</u> 7:00 MBC 뉴스 7:10 시사토크 이슈를
	されたないるとれると	8:00 KBS 뉴스 8:10 일요진단 9:00 이웃집 찰스 (재) 9:55 광복 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8:10 체인지업 도시탈출 9:00 1박 2일 (재)	8:00 해피타임! 9:15 복면가왕 스페셜
		10:55 TV쇼 진품명품 11:55 숨 터	10:35 출발 드림팀 시즌 2 11:50 해피투게더 스페셜	10:45 신비한TV 서프
	8월 9일 (일) 밤 9시 40분	12:00 KBS 뉴스 12:10 전국 노래자랑 1:20 스카우트	1:20 청춘 FC 헝그리 일레븐	12:00 MBC 뉴스 12:10 출발! 비디오 (1:15 월화특별기획 〈화정〉(재)
	2차대전 버마 정글속 위안부 삶 추적	2:10 KBS걸작 다큐멘터리 3:00 세계인 스페셜 (재) 3:05 야생일기 (재)	2:25 주말연속극 <파랑새의 집>(재)	3:35 MBC 뉴스 3:45 섹션TV 연예통
J	■KBS 1TV 광복 70년 특집 다큐멘터리: 끌려간 소	3:15 광복70년 특집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 왔나		
	녀들 버마 전선에서 사라지다 (9일 오후 9시 40분)	4:1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0 KBS 뉴스	4:50 해피 선데이	4:50 일밤 -복면가용

9:00 KBS 뉴스 9 9:40 광복70년특집 끌려간소녀

12:55 문화빅뱅 더 콘서트 (재)

10:30 역사저널 그날 11:20 취재파일 K

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젝트 나누면 행복 스페셜

9:40 쇼미더머니 13:00 4가지쇼 14:00 슈퍼스타K Before&After 16:40 엠카운트다운 23:00 남자들의 동영상 랭크쇼 18:20 하트어택 내셔널 지오그래픽 9:30 이것은 실화다

8:40 그래도 푸르른 날에 11:20 슈퍼맨이 돌아왔다 12:00 코스모스 13:00 와일드 콜롬비아 16:00 이것은 실화다 19:00 흑멧돼지의 육아일기 20:00 아시아 허터 22: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3:00 최후의 지상낙원, 부탄 복지TV 9:50 이경규의 방과후 학교

8:00 위대한 조강지처 11:20 복면가왕 14:50 일일드라마 – 내일은 맑음 13:00 여자를 울려 17:20 복지TV 뉴스 17:50 TV 메디컬 케어 20:40 마이 리틀 텔레비전 19:50 송지현의 명불허전 22:00 복면가왕 21:50 복지TV 뉴스 23:30 무한도전 23:50 토크인가요 SBS 드라마 플러스 투니버스 8:50 어머님은 내 며느리 8:00 검정고무신 10:30 요괴워치 10:50 돌아온 황금북 12:00 소원의성캐릭아일랜드 3 12:10 정글의법칙

19:00 자기야 백년손님 20:00 안녕자두야 2 20:2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00 아기공룡둘리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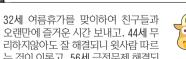
한국역리연구소 (031)237-0693

17:00 터닝메카드

15:00 요괴워치론칭특집



김나인의 주말의 운세 7일(금)~9일(일)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44세 무 리하지않아도 잘 해결되니 윗사람 따르 는 것이 이롭고. 56세 금전문제 해결되 고 목돈만질일 있게되니 만사 길. 68세 서로 마음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 있게 되니 상생의길 가도록.



31세 사소한 일로 지인과 쟁투하나 아 무런 이익없으니 삼가도록. 43세 투자 등의 일로 고민하나 운기 하락하니 무 리하지말기를. 55세 세상은 항상 변화 하는것이니 흐름에 따라야 이롭고. 67 세 자손문제로 근심있으나 재물지출 과 다하지않도록 주의.

8: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 쇼 9:15 개그 콘서트

12:00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12:55 이웃집찰스 (재)

10:55 다큐멘터리 3일 11:55 어송포유



30세 무리하면 일만 복잡해지니 서둘지 말고 윗사람 따르도록. 42세 새로운 길 이 열리니 확신갖고 밀고나가면 성과 있 게되고. 54세 하늘의 도움으로 회생의 길이 열리니 금전운기 열리고. 66세 변 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일이 중요하니 편견 버리도록.

8:00 SBS 8 뉴스

8: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10:00 특별기획 <너를 사랑한 시간>

통일의 조건

1:25 네트워크 특선

12:10 자기야 -백년손님 (재)



9:10 명불허전

8:10 연예매거진 <좋은 일, 나쁜 일, 수상한 일>

10:10 OBS 시네마 (재)

12:55 전기현의 씨네뮤직

1:55 OBS 스페셜

29세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이성친구와 멋진추억 만들어 보도록. 41세 윗사람 도움으로 명예에 좋은일 생기니 신변에 변화가. 53세 이치에 맞는 일이라면 망 설이지말고 밀고 나가도록. 65세 일이 잘풀리고 목돈만질일 있게되니 더없이 좋은때.

8:20 두근두근 감동카메라 미.사.고

11: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12:40 독한인생 서민갑부 (재)

1:50 갈데까지 가보자

9:30 아내가 뿔났다 (재)



40세 자신의 이익보다 단체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는것이 우선. 52세 자주 움 직일수록 근본에서 멀어진다면 행하지 않는것이 좋을듯. 66세 이익이 생기면 혼자 독식하지말고 분배 정확히 하고. 75세 최소한의 윤리와 상식의 길 나선 다면 문제될것 없고.



39세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일이 잘 품리 니 꼼수부리지말기를. 51세 해서 안되 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것이 마음부담 줄 이는 길이고. 63세 마음이 가는대로 행 하는것이 마음편한 길이고. 75세 부모 의 사랑은 부족한듯 보여도 늘 차있는 연못같은 것이고.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상승

38세 능력발휘할 기회 생기면 강하게 밀 고나가는 것이 이로운 길. 50세 무거운 짐 벗어내는 일이 중요하니 자신의 길 가는것이 유리. 62세 가족과 함께 떠나 는 여행 오랜만에 웃어볼일이. 74세 집 안에 웃음꽃이 가득하니 무언가 상서로 운일 있을터.



재물 무난

37세 사소한 일이라고 방치하지말고 마 무리 확실히 하도록. 49세 운기가 상승 하니 좋은 문서 잡게되고 금전수입 많 아질수도. 61세 말이 많으면 막히게되 니 조용히 지켜보는것이 좋고. 73세 야 욕은 좋으나 수하자에게 양보하는것이 훨씬 수월한 길이고.



재물 상승

36세 피서지에서 남과 쟁투하는일 이익 없으니 참아야 이롭고. 48세 자신의 부 족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 무책임 한 행동이고. 60세 명예 구하는일 연목 구어의 형상이니 과욕부리지말고. 72 세 순간의 실수로 손해볼일 생기니 문 서 함부로 맡기지말고.



35세 지나친 행동으로 이마를 다친 형 상이니 명예에 불리한 일이. 46세 순간 의 실수로 후회할일 생기니 남과 쟁투 는 자제함이 길. 58세 세상의 일이란 원 한다고 모두를 이룰수 있는것은 아니 고. 70세 낯선 곳에서의 음식건강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재물 무난

34세 가까운 지인과 쟁투하나 길이 아 니면 가지않는 것이 이롭고. 46세 음과 양의 조화가 있어야 뜻을 이루니 마음 비우고 출발을. 58세 일이 더디고 꼬여 있으니 새로운 길 찾는것이 급선무. 70 세 정리절차 미루면 마음만 무거워지니 바로 해결짓도록.



35세 마음에 부담은 있으나 해야할 일이 라면 강하게 추진하도록. 44세 지인의 도움으로 오랜 문서문제 해결되니 선업 의 결과이고. 57세 윗사람으로서의 도 리는 행하는것이 대인의 길이고. 69세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과 재물 상승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인천 20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제21552호 **경인일보**

천대받던 옛 이야기들의 '인생역전'



차이나 Story

<4> 중국의 소설을 통해 본 대중문화

근대이전 하찮은 글로 취급 송대 이르러 오락거리 유행 현대 TV·영화 소재로 인기

경인일보, 인천대학교 중국학 술원, 계양도서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국 인문학 강좌 '차이 나 스토리'의 네 번째 강좌가 6일 오후 7시 인천 계양구 계양도서관 지하 계수나무홀에서 열렸다. 중 국 소설을 연구하는 박계화 연세 대학교 강사(문학박사)가 '중국의 소설을 통해 본 대중문화'를 주제 로 강연했다.

■다음은 강연요지

근대 이전 중국에서의 '소설(小 說)' 개념은 현대의 '소설(Fictio n, Novel)'과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 소설은 공자(孔子) 같은 사상 가의 철학이 담긴 경전(經典) 등과 상반되는 말로 '작고 하찮은 말', '자질구레한 이야기'라는 의미다. 오랜 기간 정통문학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신세였지만, 공자가 "볼 만한 것이 있다(必有可觀者焉)"고 언급했듯이 소설 속에는 인간의 삶과 욕망이나 호기심이 반영돼 있 는 중국인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송나라(960~1277년) 이후 도시 경제가 발전하고 서민들의 오락 거 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서민 들 사이에서 소설은 크게 유행했 다. 소설의 범위는 생활 전 영역에 이르고 있지만, 대중의 사랑을 가 장 많이 받은 소재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와 현명한 판관이나 협객들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이 야기였다. 당나라 황제 현종과 양



6일 오후 인천 계양도서관 지하 계수나무홀에서 박계화 연세대 강사가 '중국의 소 설을 통해 본 대중문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귀비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인 '장 한가전'은 희곡 작품으로 재창작

돼 수없이 공연했다. 소설은 현대 중국 대중문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귀신과 인 간의 사랑을 그린 영화 '천녀유혼' 은 청나라 소설 '요재지이'에 나오 는 섭소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끈 드라마 '판관 포청천'도 소설의 이

야기를 가져온 것이다.

고전 속 자질구레한 옛이야기들 이 중국 현대 대중문화 소재가 되 는 것을 보면, 소설이 중국인들의 문화적 원형으로 뿌리 깊게 자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중 국의 대중문화와 중국인의 문화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옛이야기, 즉 소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대·계양도서관·경인 일보 공동개최

부평문화의거리 주차불편 '해법'

구, 6480만원 투입… 이용객 최대 1시간까지 요금 지원

부평구는 '부평문화의거리' 주 차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시행, 주변 사설 주차장 이용 구민 에게 주차요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부평구는 땅값이 비싸 공영주차 장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부평 최 대의 상권 부평문화의거리의 주차 난 해결을 위해 8월부터 국비 3천 890여만 원 등 총 6천480만원을 들 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고 따른 고객 불편 문제가 다소나마 해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평문화의거리 주 인근에 위치한 사설주차장(썬 주차 장, 부평문화로 65번길 37)을 사용 하면, 국비 등으로 주차요금 일부

를 대납해 주는 것이다.

부평문화의거리를 이용한 고객 이 물건을 구입한 점포에서 주차쿠 폰을 받아 주차장에 제출하면 당일 최대 1시간(30분 1,000원, 60분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지원받

구 관계자는 "부평문화의거리일 대는 부평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 은 지역이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매우 어렵다"며 "주차시설 부족에 결돼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 변 점포에서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였다. 한편 부평문화의거리 주차환 경개선사업은 8월부터 12월말까지 시행(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예

정이다./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찜통더위 가축관리요령 홍보 강화군, 농가 냉방시설 점검

인천 강화군은 최근 폭염으로 가 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농가에 대한 가축관리 요령과 냉방시설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고 6일 밝혔다.

가축의 여름철 관리 요령으로 소 의 경우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 분히 먹도록 하고, 천장이나 벽에 열 막이 재료를 부착해 태양열을 차 단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과 광물질을 사료에 섞어 먹이고, 소금은 자유롭게 먹 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군은 당부

돼지 농장 안에 송풍기 또는 대 형선풍기를 설치하고, 천장에는 물 안개 살포장치를 설치해 지붕에 물 을 뿌려 축사내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료는 1주일분 정도씩 구매해



상한 사료를 먹이지 않도록 주의해 야 한다.

닭장 안의 환기는 자연환기보다 는 환풍기 등 강제통풍을 하고 닭 장 지붕 위에 물을 뿌려 복사열을 막아줘야 한다.

또한 적정 마릿수 유지와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 는 것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한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가축 폐사와 발육저하, 번 식률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여름철 가축관리요령에 따라 가축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 부했다./김종호기자kjh@kyeongin.com

세계적 발레·오페라 '온 스크린'

인천 평생학습관 은여름방학과휴가 철을 맞아 서울 예 술의전당 우수 공연 례 상영한다고 6일

밝혔다. 상영작들은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된 우수 하고 인기있는 발레・오 페라•연극 작품으로 이

관객들은 가로 7m와 세 로 6m의 대형 스크린을 통 해 출연진들의 생생한 표정 과 몸짓을 감상할 수 있다.

뤄졌다.

평생학습관은 거리와 시 간상의 문제로 예술의전당 공연을 접하지 못하는 인 천시민·학생에게수준높

인천평생학습관, 영상 사업

예술의전당 우수공연 상연

이 담긴 영상을 4차 명저 6권 인문학 특강까지

은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의전당의 '공연영상화사업'(S AC on SCREEN)을 유치했다고 설 명했다.

예술의전당 측이 상영 작품과 일 정을 선정하고 상영 장비와 인력 파 견 등 행사 전반을 담당한다.

인경식 평생학습관장은 "영상이 공연 전체와 부분을 조화롭게 담아 마치 공연장 VIP석에서 감상하는 느낌을 줄 것"이라며 "많은 시민 학 생이 클래식을 감상하며 무더위를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인천평생학 습관은 다음 달 2일부터 '세계 명저(名著) 다이제 스트 산책'을 주제로 인 문학 특강을 실시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 정겸교수의강연으로진 행되는 이번 특강에서는 '도덕경'·'꿈의해석'·'제 물론'•'문학의 숲에서 나 이테를 읽다' 등 6권에 책 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

인천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인 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성이확대될것으로기대하 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032-899-1517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치카푸카' 치아튼튼 구강교육

강화군보건소 28개기관 대상

칫솔질 실습·불소 도포 실시

인천 강화군 보건소는 이달부터 나라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오는 11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관내 28개 기관을 직접 방문, 1 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 가는 치카 푸카' 구강 보건 교육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치카 푸카 교실'은 평 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군 보건소에서 관 내 유아 보육기관을 직접 찾아가 치 아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칫솔 질 실습, 불소 도포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은 '치아를 알아요' 라는 프로 그램으로 구강교육과 함께 만 3세 이상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치아

또한 체험부스에서는 치아 물감 놀이(세균막 검사), 치카 푸카(이 닦기), 치아 튼튼(불소도포), 치아 사랑 캐릭터(판박이 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칫솔 등 구강위생용품 과 부채도 받을 수 있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아동 스스로 건강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강소농 20명 정보화 교육 사진편집 · 앱 활용방법 등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 의 스마트한 농업 경영을 위해 지 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3회 에 걸쳐 인천 관내 강소농 농가 20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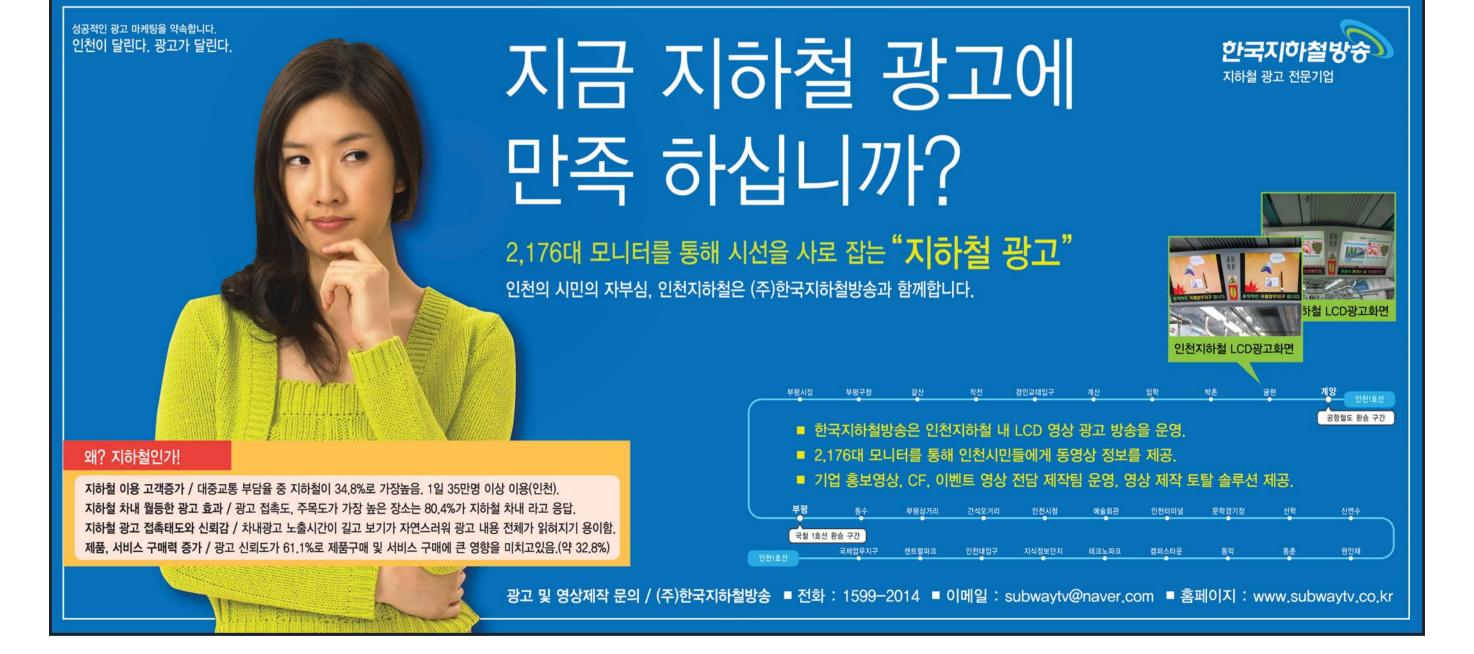
강소농(强小農)이란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의미한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 컨 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정부 의 지원정책이다.

이번 강소농 정보화 교육은 강소 농 농장주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농가경영 및 영농일지를 실시간으 로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진 편집과 메모기능을 습득하고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필수 어플리케이 션의 활용 방법 등을 익히는 방식으 로 진행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 육을 통해 인천 관내 강소농들이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정남산단 조성 "교통대란·상습수해 불보듯"

<화성 음양리·내리·덕절리 일원>

주민. 합동설명회서 82번 국도 등 확・포장 요구

하천범람·농경지침수 우려… 대책 마련 촉구도

SK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화성 정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 련, 인근 주민들이 녹지파괴에 따 른 기온 상승과 주변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수해마저 우려된다며 반 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오후 화성시 정남면사

무소에서SK건설이연합동설명회 에서 음양리・내리・덕절리 주민들 은 조경수를 키우던 녹지를 하루 아침에 6천500명이 출퇴근하는 산 업단지로 조성하면 엄청난 교통체 증에 시달리게 된다며 주변 82번 국도를 비롯해 310번, 314번 도로 구했다.

주민들은 현재도 주변 공장 난립 으로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체증 에 시달리고 있는데 조림지를 통째 로 공장지대로 탈바꿈시키면 최악 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4 차로 이상의 확장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56만9천㎡의 녹지를 걷어내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지대로 조성하면 별안간 빗물 고속 도로가 생겨나 아래쪽 음양리 마을

를 확·포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 은 하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등 심 각한 수해를 겪을 우려가 높다며 침 사지 2곳은 형식에 불과한 만큼 실 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들은 이어 정남면의 허파나 다 름없이 조경수를 키우던 곳을 산단 으로 변경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증 가로 기온상승 등 이상 징후가 발생 돼 주민 생계에도 심각한 불편을 초 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K건설 측은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수준이어서 오

늘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다"면서 "환경영향 평가 본안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건설은 정남면 음양리 632일원 56만9천791㎡(약 17만3천 평)에 2천750억원을 투입해 2019년 까지 민간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 를 조성해 분양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체육공원 자재입찰 특정업체 밀어주나

시흥시, 인조잔디 요건 강화 한 곳만 충족 특혜의혹 제기

시흥시가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 장 개선사업과 관련한 6억원 대의 관급자재(인조잔디) 입찰 과정에서 국내의 한 업체에서만 생산 · 인증받 은 제품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르면 시는 정왕동 2156 일원에 조성 된 정왕동 체육공원 야구장의 길이 를 90m에서 110m로 늘리고 구장 바닥(1천50㎡)에 인조잔디를 설치 하는 시설 개선작업을 벌이기 위해 지난달 27일 입찰공고를 냈다. 총 사업비는 16억3천800여만원(공사 도급액 5억6천700여만원, 물품액 10억7천100여만원)이다.

시는 야구장 바닥면에 설치될 6억 3천800여만원에달하는인조잔디구 매 입찰공고를 내면서 제조물품 조 건을 KS 인증업체로 제한했다. KS 인증업체는 국내에 1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여기에녹색기술인증과PE코팅이란

입찰조건을 추가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증을 받은 국 내 업체는 단 한 곳(A사)밖에 없어 업계의 통상적 물품계약이 아니라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종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년 동안 인조잔디 사업을 하면서 이번 과 같은 입찰 공고는 처음 봤다"며 "녹색기술인증과 PE코팅 조건으 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국내에 6일 시흥시와 동종업계 등에 따 단 한 업체밖에 없다. 입찰에 참여 하더라도 조건에 맞는 업체의 물건 을 구매해 납품하든가, 해당 업체 측에 물품 납품을 협의 의뢰할 수 밖에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녹색기술인증 등에 대한 자 격 요건을 둠으로써 경쟁 자체가 불 가능하다. 결국 특정 업체만 돕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 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에 입찰조건에 해당 사항을 넣었다. 업 체로 선정되면 녹색기술인증과 PE 코팅 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면 된 다"고 말했다.

> >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GTX·전철 3호선 파주 출발 '허하라'

'GTX, 3호선 파주출발 시민 추진단'은 6일 GTX 파주출발 11만인 청원서를 청와대와 기획 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은 이날 청원서를 국토부 여 형구 제2차관에게 전달하고, 일 산 킨텍스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계획된 GTX 'A' 노선을 운정신 도시까지 연장해 파주에서 출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 고 요청했다. 김단장은 "정부의

서의 청와대・기재부・국토부 전 달은 파주출신 새누리당 황진 하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 장은 황 총장이 청와대 민정수 김광선 추진단장 등 대표단 8 석비서관과 기재부·국토부 장 관에게 전화를 걸어 GTX 파주 출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GT X 파주출발 11만인 청원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덧붙였다.

> 수도권을 1시간 이내로 연결 하는 GTX는 관련 법인 '대도시

추진단, 11만인 청원서 靑·기재부·국토부에 전달

주택정책으로 조성된 수도권 서 북부 최대규모의 운정신도시가 성공하려면 GTX 파주 출발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제2차관은 "국토부에서도 GTX 파주연장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중인 'GTX 기본계획'에 도 파주구간을 포함 시키기 위 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며 "GTX 기본계획 확정을 위 해서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파주시 도 관계기관 협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GTX 파주출발 11만인 청원

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법(이하 대광법) 시행령'에 전체 구간을 50km로 제한하고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파주시가 제 외됐다. 시는 이에 따라 법 개정 을 요청하는 파주시민 10만인 청원서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 위와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4년 3월 31일 관련 법이 개정돼 GTX 파주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GTX 파주 연장은 2013년 한국교통연구원 의 비용 대비 편익분석(B/C) 결 과 1.11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지난달 20일부터 20여일 가까이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내손 제1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의 주차권 발권기의 안내 문을 민간위탁업체 관계자가 가리키고 있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의왕 공영주차장 잦은 고장 '뒷짐' 비난

민간위탁社 영업피해 발생 시 "수입부품 조달 어려워"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민간 에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 의 잦은 고장으로 영업피해가 발생 하고 있지만 이를 나몰라라 해 민간 위탁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6일 내손 제1공영주차장 위탁업 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주차 장의 주차권 발권기가 고장 나 시간 별 주차가 불가능하다. 위탁업체는 시와 도시공사에 수차례 조속한 수 리를 요청했지만 "수리업체에서 외 국산 부품을 수입하는데 시간이 걸 리고 있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구

체적인 대안을 듣지 못하고 있다. 내손 제1공영주차장과 같은 주

차시스템을 사용 중인 내손 제2공 영주차장도 발권기가 고장 나 현재 무료 개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달에는 내손 제1공영주차장의 무인요금정산기가 고장 나 주차장 을 1개월 동안이나 무료 개방하기

문제의 내손 제1·2공영주차장 주차시스템은 지난 2009년 11월 포 일자이 아파트를 재건축했던 조합 측이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현 재 제조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다 른 주차시스템 제조업체에서 땜질 식 AS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는 내손 제1공영주차장

의 민간 위탁대행료가 연간 3천500 만원에 불과한 반면, 무인 주차시스 템 교체비용은 위탁대행료의 두배 가 넘어 선뜻 교체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위탁업체 관계자는 "시와 도시 공사가 주차장을 민간위탁 했으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입부 품 조달이 어려워 시간이 많이 소요 되고 있다"며 "내년에 무인주차시 스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 명했다.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서정리역 관광안내 표지판 평택시-코레일 철거 갈등

평택 서정리역에 설치된 관광안내 표지판 철거를 놓고 평택시와 한국철 도공사(코레일)가 마찰을 빚고 있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방문 외지인과 외국인들에게 관내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9 년 8월 코레일 수도권남부지사와 협 의, 시예산을 들여 서정리역과 진위 역에 각각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 했다. 관광안내 표지판은 서정리역 출입구에 가로 2m, 세로 1m50cm의 벽면 부착용이, 진위역에는 역사 광 장에 가로 2m65cm, 세로 2m의 지주 형이 각각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코 레일 서정리역사가 자체적으로 역 사 내 환경개선사업을 벌이면서 해 당 관광안내 표지판을 협의 없이 일 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 혀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정리역

사 측은 지난 5일 시청 담당자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로만 자진 철거를 요구한 뒤 6일 오전 철거를 강행하 겠다고 시에 알려왔다.

이에 대해 시는 담당 부서와 공문 을 통한 협의 절차를 거친 뒤 관광안 내 표지판 철거 여부를 결정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한 관광안내 표지 판을 협의도 없이 전화 한통만으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 려운데다 이전도 아닌 철거를 강행 하겠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 다"고 반발했다. 서정리역사 관계 자는 "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 담당자와 연락이 닿 질 않았고 다른 시설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고 있어 철거를 강행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시 와 협의를 거쳐 철거 혹은 디자인 및 위치 변경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veongin.com



잡아드리겠습니다 유해가스, 악취

- 암모니아, 황화수소 가스 제거
- 신속한 악취제거로 환경 개선
- 질병발생 감소 및 생산성 향상
- 인체 및 축체에 안전한 제품

클린왕은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수소 가스를 화학적 침전법으로 침전시켜 살포후 악취가스가 신속하게 제거되는 가스제거제로서 항생물질, 소독약과 혼용이 가능하며 추운 동절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클린왕은 생산성 향상, 호흡기질병 감소, 약품비 절감, 작업환경 개선들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악취제거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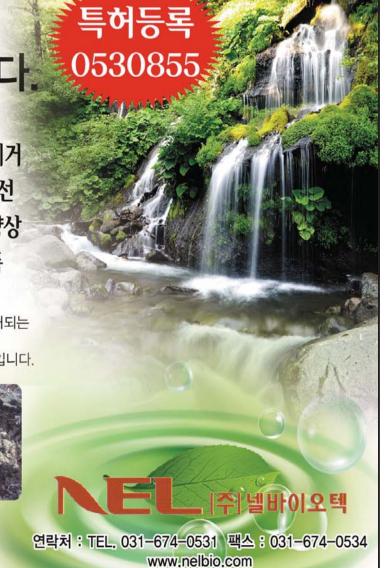








■ 적용사업장: 양돈장, 양계장, 비료제조공장, 분뇨/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판매원:석천씨씨 주식회사

사회 **22**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제21552호 경인일보

금연구역에 버젓이 재떨이 대한민국은 '흡연무법지대'

금연단속 2년… 경인지역 업주 과태료 부과 18건 그쳐 음식점 "신고 안하면 피워도 상관없다" 종이컵 주기도

"흡연 가능합니다.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지난 5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관양동의 한 참치 전문점은 방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했 다. 올해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등에서 금연해야 하지만 손 님들은 거리낌 없이 담배를 입에 물 었다. 음식점 내 칸막이식 룸의 미닫 이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연기가 새어나와 홀에 있는 손님들은 눈살 을 찌푸렸다. 참치전문점 관계자는 "방 안에서 피우는 것은 상관 없다" 며 "대신 재떨이는 줄 수 없고, 종이 컵을 나눠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같은 시각 수원시 인계동의 갈비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방 안에서

부산

제주 | |

식사를 하는 손님들은 별다른 죄의 식 없이 흡연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던 김모(30)씨는 "다 른 사람들 앞에서 피우는 것도 아닌 데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다. 반면 비흡연자 이모(30)씨는 "담배 연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질 정도"라고 말 했다. 인천시 구월동 유흥가에 널린 이른바 '룸(Room)' 식 주점들도 흡 연자들에게는 천국이다. 칸막이만 설치됐을 뿐 담배 연기는 룸 곳곳을 오가고 있었다. 종업원은 "단속을 나오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말했 다. 지난 2013년 첫 금연단속이 실시 된 이후 2년, 흡연 무법지대가 생겨

나고 있다. 룸 형태의 공간이 마련됐 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음식점 은 물론이고 칵테일바, 노래방에는 아예 재떨이가 비치돼 있다. 특히 지 자체 단속반원들이 업주는 처벌하지 않고 흡연자만 적발해 과태료를 부 과하면서 흡연가능 업소들이 뚜렷해 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인지역에 서 흡연자를 상대로 한 금연단속 건 수는 1만건을 넘지만, 업소(업주)를 상대로 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경기 13건, 인천 5건에 그쳤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음식점 내 흡연은 야간시간 대에 발생하는 데, 단속반원이 부족해 일일이 찾아 다니기 어려워 단속이 어려운 실정" 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 자는 "금연단속과 관련한 예산 증 액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영훈·김주엽기자 kyh@kyeongin.com

날씨 7일 금요일 (음력 6월 23일) 모래사장에 새긴 발자국 조금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 22~25도, 낮 최고기온 29~35도의 분포가 되겠다. 인천 밀물 09:29 22:12 해뜸 05:41 해짐 19:36 달뜸 -:- 달짐 13:09 渗透 장이 결국 교단을 떠났다.



서울 🖄 26/33 🖄 25/32 의정부 🖄 25/32 🖄 25/31

파주 > 26/33 > 25/32 백령도 > 23/28 > 22/27

'자녀면접 특혜' 교사채용 수원공고 교장 해임 처분

면접관으로 참여해 자신의 자녀 를 교사로 채용(경인일보 4월 30일 자 22면 보도)한 수원공고 현직 교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공고 법인 이사회는 징계위원 회를 열고 지난 5일 이모 교장과 딸 에 대해 각각 해임 및 임용취소 처분 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수원공고에 대한 감 사를 통해 신규 교사 부당 채용, 교 원 채용절차 부적정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이 학교 법인 이사 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절차를 진 행하고 있다.

한편도교육청감사 결과 교장은 지난 1월 철학과목 교사를 채용할 당시 마지막 전형인 3차 면접에서 면접관으로 참석해 자신의 딸을 포 함한 지원자 4명을 심사했다. 당시 3차 면접 전까지 최고 점수를 받지 못한 교장의 딸은 교사로 최종 선 발됐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수원, 이천, 과천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경기 일부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6일 오후 과천 관악산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 이 시원한 폭포 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성범죄교원 교육 현장서 '퇴출'

도교육청, 품위유지 위반 명확한 징계기준 개정키로

경기도교육청이 성범죄 교직원 을 교육 현장에서 퇴출하기로 했 다. 도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 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과 여교사를 상대로 연쇄 성추행, 성 희롱 등의 사건을 저지른 것을 계기 로 성범죄나 부적절한 성관계에 연 루된 교직원을 퇴출 할수 있는 강력 하고 세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 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그동안 성범죄 전과가 없어 낮은 처벌을 받거나, 합의 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상당수 교 직원들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관련법을 개정해 사전에 차단한다 는 방침이다. 또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 정 세부기준에서는 성폭력, 성희 롱, 성매매 이외의 성 관련 사건의 경우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 로만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교직 원과 학생, 교직원과 교직원, 교직 원과 학부모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

한 징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도 부적절한 관계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간주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 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가해자 측이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을 회유하거나 부당하게 접촉할 수 없도록 적절한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중 처벌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기준 개정은 피해 학생 등을 강력하게 보 호하고, 가해 교직원들을 보다 세 분화해 처벌하려는 데 있다"고 말 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



이기택 (56 • 147] • 사진) 서울 서부지방법 원장이다음 달 퇴임하

(60·10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 청됐다.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법원장 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 에게 임명제청됐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 원장・이기수)는 지난 4일 이 법원장 을 비롯한 3명을 추천한 바 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동물전용호텔서 반려견 다쳐도 책임못물어

피해 구제 법적근거 없어

동물 전용 호텔에 맡긴 반려동물 이 다치거나 분실돼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어 구제를 받기 어려 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사는 김모 (38)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도로 가 족여행을 떠났다.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찾지 못한 김씨는 동물 전용 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다. 그러나 김씨는 휴가 이틀

만에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호텔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실수로 문을 열어뒀는데 그 틈을 타 지난달 27일 새벽, 김씨의 강아지가 달아난 것. 김씨는 "호텔 측이 가족이나 다 름없는 강아지를 잃어버려 놓고 찾 아주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호텔 측이 뒤늦게 보상금을 운운하며 돈 으로 때우려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동물 호텔에 고양이를 맡긴 이모(28)씨 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고양 이 발이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병원 은 '이 정도는 보호자가 이해해야 한다'는식이다"라며 "이럴줄알았 으면 호텔에 맡기는 게 아니었다" 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은 2012년 기준 17.9%로 5가구 중 1가구에 이른다. 동물 관련 산업 도 발전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 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 건수만 지

난 2012년 3천245건, 2013년 3천609 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에는 애완동물 판매업에 한해서만 피해보상 기준이 있을 뿐, 동물 전 용 호텔에 대한 책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키 우는 가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반려동물 선진국인 호주는 반려 동물 숙박업의 시설과 동물 보호,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있다"며 "관 리 인력과 안전시설에 대한 법적 기 준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책임 문 제도 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 1위를 획득하여, 명실 상부하게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은 명품배터리! 그리고, 고객 신뢰로 성장하는 기업 ㈜존슨콘트롤즈 델코배터리와 함께 인천지역 시장을 키워 갈 점주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지역: 인천광역시

2 모진브무

2. エロナモ				
	구분	모집기준		
	대리점	 ► 담보제공 및 점포임대 가능자 ※담보 (부동산, 질권, 보증증권 등) ※점포 (15평 이상, 1층 권장) ▶ 배송차량 보유 및 운전면허 소지자 ▶ 관련업종 경험 유무 상관없음 		
	소형특약점	▶ 자동차 관련업종 종사 또는 경력자로 배송차량 보유 및 운전면허 소지자▶ 소형특약점 확정시 신원보증증권 제출 필요		
3,				

㈜존슨콘트롤즈 델코배터리

4.문의처: 대표전화 **02-529-8975** 02-3498-0731 / 02-3498-0733





사회 경인일보 제21552호 2015년 8월 7일 금요일 23

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선착장에서 추락한 A(26)씨의 승용차가 인양되고 있

월미도 앞바다 또 투신사고

20代 차몰고 뛰어들어 숨져 올해들어 극단 선택 잇따라

올해들어 월미도 앞바다에서 20 대가 투신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오전 10시15분께 중구 월미 도 선착장에서 A(26)씨가 '자살하 겠다'며 차를 몰고 월미도 앞바다 로 돌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 고가 발생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잠수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윤씨 는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차 안에 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선 착장으로부터 10여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창문을 연 채로 바다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친

구에게 전화해 "엄마와 말다툼을 하고 나오는 길이며 차와 함께 바다 에 뛰어들겠다"고 영상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시께도 어머니 에게 전화해 "자살하겠다"고 알렸 다. 해경은 A씨가 투신한 이유를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를 상대로 사 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중이다.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40분께도 월미도 등대 아래 갯바위에서 B (25)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 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의 소지품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B씨는 폐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 히 목숨은 건졌다.

지난 1월26일 오전 1시55분께는 '월미도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 다'는 112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

해 C(29)씨를 구조하기도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반대여론 귀막고 '송도 LNG 증설 강행'

시공사 3곳 오늘 선정·발표 "가스공사, 지역 의견 무시" 연수구・주민들 불만 높아져 "市 제지 나서야" 목소리도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송도 LNG 저장탱크 증설을 위한 시공사 3곳 을 7일 선정해 발표한다. LNG기지 의 증설을 반대하고 있는 연수구와 지역 주민들은 가스공사가 지역 여 론을 무시하고 공사강행을 위한 수 순을 밟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7일 송도 LNG 저장탱크 3기를 증설 할 최종 후보에 오른 시공사 3곳을 선정해발표할계획"이라고 6일 밝

이번 공사에서는 20만kℓ급 저장 탱크 3기와 부대설비 축조가 이뤄 지며 총 공사비는 4천360억원이다. 가스공사는 3곳의 시공사를 상대 로 40~50일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공사업체를 확정할 예정

가스공사는 지난달 연수구가 보 완을 요구한 '건축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도 다시 제출할 계획이 다. 당시 구는 지난해 인천시 도시 계획심의위원회에서심의가결조건 으로 내세운 강화된 안전기준 적 용, LNG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충 분한 보상 지원, 지역주민 의견 적 극 수렴 등에 대한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을 촉구

업체 선정을 마친 뒤 연수구에 건 축허가와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제 출하면 LNG 증설을 위한 행정 조 치는 마무리된다.

가스공사가 공사를 위한 사전 절 차를 진행하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초 열린 주민 설명회

가 3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주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가스공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 기되고 있다.

송도입주자연합회 박한준 회장 은 "가스공사는 주민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힘만으로 LNG 기지 증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됐 다"며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증설 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 히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설명

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민여론을 충분히 거치지 않 았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동 의가 없으면 어떠한 증설 허가도 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에너지수급 계획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매년 겨울 철이 되면 저장용량이 부족해 공급 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며 "안정 적인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계획대 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명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 골프 꿈나무, 연습할 곳이 없다

무료 라운딩 지원 고작 1곳 대부분 특정 아카데미 독점 골프장 못구해 타지 원정도

인천지역 골프장들이 지역 청소 년 골프 교육생 지원에 인색하다는

인천시골프협회 등에 따르면 현 재 인천지역에는 중구 영종도 '스카 이72골프클럽'을 이용하는 '주니어 골프 아카데미' 30여 곳을 비롯해 부평, 청라, 남동구 등에서 50여 개 의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일명 명문으로 불리는 '주니어 골프 아카데미'들이 특정 골프장과 계약을 맺고 교육생 연습 라운딩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들 아카데미는 레슨비, 연습 장 사용료, 주 2~3회 9홀 연습라운 딩비 명목으로 일반 아카데미에 비

해 2~3배가 넘는 연습생 1명당 월평 균 500만~700만원을 받고, 이중상 당 부분을 골프장에 내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청소년 교육생들 에게 무료 라운딩(9홀)을 지원하는 곳은 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가 운 영하는 '드림파크CC' 한 곳 뿐이 다. 그 외 골프장들은 특정 아카데 미와 교육을 맺은 교육생 외에는 연습라운딩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아카데미 소속 교육생들은 정 상 요금을 내고 3~4명씩 1개 조를 맞춰 18홀 라운딩을 해야 하는데 예 약 자체가 어려운 데다, 연습시간 을 맞추기도 쉽지 않아 교육 불균 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천시골프협회 관계자는 "다른 시 · 도에서는 골프전문학교를 유치 하고, 지역 골프장들도 함께 나서 지원하고 있다"며 "인천은 청소년 교육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이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 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습 골프장을 찾지 못한 상당수 인천지역 교육생들은 라운 딩을 무료로 지원하거나 할인해주 는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 골프장을 찾아 떠나고 있다. 경기도 일부 골프 장들은 전국대회 성적 상위 30% 이 내 청소년 선수들에게 무료 연습 라 운딩을 지원하고 있고, 전라도 지역 골프장들은 청소년 교육생에게 다 양한 지원과 혜택을 주고 교육생 유 치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데미 운영 관계자들은 "7~8 년 전만 해도 인천 출신 교육생들이 한 해 150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절반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며 "굳이 무료나 할인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교육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 록 라운딩 전용 예약제도라도 마련 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워 했다.

/이진호기자 province@kyeongin.com

례 받자 의도적으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다"며 "이 때문에 20년 간의

공직생활과 그동안 가정생활에 큰

"인천구치소 직원들이 집단폭행"

40代 벌금 미납자 고소… 구치소측 "사실무근"

벌금 미납으로 인천 구치소에 들 어갔던 40대 남성이 구치소 직원들 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벌금 미납자 A(45)씨가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 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해 수 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29일 구치소에 수감된 후 가족들에게 구 치소에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휴대 전화 제출을 거부하자 교도관들이 손을 뒤로 제쳐 수갑을 채운 뒤 집 단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A씨를 고소인 신분 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구치 소의 협조를 얻어 당시 CCTV 등을 확보하고 관련 구치소 직원들을 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

A씨는 지난해 형사사건으로 기 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 태였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 을 내고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당시 자신을 때린 구치소 직원들을 기억 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 조사를 통 해 신원을 특정한 뒤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구치소 관계자

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고소 내용 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 박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상사에 앙심품고 '악성 소문' 공무원 200만원에 약식기소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이 성희)는 상급자에 대한 악성 소문 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인 천 모 구청 계약직 공무원 A(55)씨 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3월 까지 같은 부서 상급자 B(56)씨에 대해 "손가락도 없는 주제에 정규 직이라고 까불고 있다" "주차단속 원 서포터스와 입을 맞추는 등 불 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업무지적을 몇 차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또 하나의 다짐입니다.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세계적 명문,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써 나가는 곳 연세대학교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꿈에 도전하십시오.

연세대학교총장 정 갑 영

YONSEI, where we make *history*.







 24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전면광고
 제21552호 경인일보



신분당선 동천역 앞! 판교를 품에 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명품 복합단지!



대표번호 1644-7722

생활·업무·쇼핑이 하나로 뭉친 원스톱 복합단지 - 분당·수지 유타워

| 교통의 명작 | 신분당선 동천역(2016년 개통예정, 가칭)개통으로 강남까지 20분대! 판교IC, 23번국도, 용서고속도로 인접으로 빠른 광역교통망

| **입지의 명작** | 판교, 분당과 인접하여 신도시의 모든 도심인프라를 쉽고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수지의 핵심입지



시행: **KB부동산신탁**

ροsco ^{시공 :} **포스코건설** 위탁 : **(주)동천 U**TOWER



현장 및 모델하우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번지